

발간등록번호

71-4060000-000059-01

판문점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2020. 5.

한반도 평화수도 **PAJU**

속 표 지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관문점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이사장 이 동 미

목 차

I.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3
제2절 계획의 목적	5
제3절 계획의 범위	6

II. 판문점 일반현황과 여건 분석

제1절 판문점 일반현황	9
1. 판문점 주변 환경	9
2. 판문점 역사 및 행정구역	11
제2절 판문점 여건 분석	14
1. 판문점 여건 분석	14
1) 판문점 현황	14
2) 판문점 명칭에 관한 이견	15
3) 판문점의 대중인지	16
2. 판문점 관광 주체별 운영현황	16
1) 국가정보원	16
2) 통일부	18
3) 국방부	19
4) 행정안전부	21
5) 한국관광공사	21
6) 경기관광공사	22
3. 판문점 관련 국내외 이미지와 경향 분석	22
1) 국내외 언론분석	22
(1) 국내 언론	22
(2) 해외 언론	25
(3) 관심 집중	25
2) 국내외 예비 방문객 이미지 조사	28
3) 공공기관 자료를 통한 경향 조사	33

(1) 한국관광공사	33
(2) 경기관광공사	35
(3) 국방부	37
(4) 경기 연구원	39
4) 국내외 여행 트렌드 조사	42
(1) 영향력 있는 매체의 여행 트렌드 분석	42
(2) 여행 경향 전망	45
4. 판문점 및 주변 관광자원 현황	46
1) 판문점	46
2) 제3땅굴	47
3) 도라전망대	48
4) 캠프 그리브스	49
5) 대성동 마을	50
6) 해마루촌	51
7) 통일촌	51
8) 임진각 관광지	52
9) 파주출판도시	56
10) 통일동산 관광특구	58
11) DMZ 평화의 길	60
12)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62
5. 판문점 관광과 연계 관광 상품 분석	64
1) 유엔사 선정 4개 전담여행사 상품 분석	64
2) 판문점 또는 DMZ 관련 10개 여행사 29개 상품 분석	72
3) 기존 상품 현황 분석	84
4) 파주시청 홈페이지 여행상품	85
5) 여행상품 관련 개선방안	89

Ⅲ. 판문점 및 인근 지역 관광 자원화

제1절 판문점 관광콘텐츠 개발	93
1. 판문점 장소별 콘텐츠 개발	93
1) 통일대교 상징화	93
2) 판문점 관람 코스(아날로그 버전)	97
3) 판문점 관람 코스(디지털 버전)	99
4) 판문점 코스화의 바닥 유도선	106
5) 사진 촬영 명소 설치	107
6) 판문점 관련 명칭 아이디어 공모전	109

2. 판문점 고유 서체개발	109
1) 서체개발의 필요성	109
2) 서체개발의 활용	111
3) 서체개발 과정	113
3. World Peace Artist Project	114
1) WPA 프로젝트 개요	115
2) WPA 참여 방법 및 운영 방안	115
3) WPA 기대효과	117
4. 대성동 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	117
1) 대성동 마을의 특수성	117
2) 이북음식체험 마을로의 특화	119
3) 대성동 이북음식 특화 마을 운영 방안	121

제2절 판문점 연계 여행상품 개발

1. 임진강+철책선의 Peace Road 특화 구간	124
1) peace road 특화 구간의 필요성	124
2) peace road 개요	125
3) peace road 현황	125
2. 야간관광 상품 개발	127
1) 운영방식	127
2) 유사사례	128
3) 야간관광 활용안	129
3. 판문점 연계 관광 상품 개발	130
1) 내국인 대상	130
2) 외국인 대상	137
3) 동반자별 추천 여행상품	144
(1) 어린 자녀동반 여행 동선	144
(2) 학생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판문점 견학 상품)	145
(3) 인문학적 접근의 프로그램	145
(4) 연인들을 위한 프리포즈 여행 동선	146
(5) 중년 여성 친구들과 우정 여행	146
(6) 중년 남성 친구들과 우정 여행	147
(7) 어르신을 위한 북한 음식 여행	147
(8) 젊은이를 위한 전쟁 체험 여행	148
(9) 미식 여행	148
4. 테마 여행상품	149
1) K-culture Tour	149
2) Tasty Local	149

제3절 판문점 관광기념품 개발	151
1. 기존 관광기념품의 현황 분석	151
1) on-line 기념품 판매	151
2) off-line 기념품 판매	152
2. 추천 관광기념품 사례	154
1) 한국관광공사 공모 아이템	154
2) 독일 암펠만 Ampelmann	156
3) 스타벅스 Starbucks 굳즈	158
3. 판문점 관련 관광기념품 개발	160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방향	160
2) 판문점 관련 기념품 제안	162
(1) 전투식량 K레이션	162
(2) 판문점 씨앗 엽서 Up-cycling Handmade Pot Paper	164
(3) 판문점 달디 쿠키 Panmunjeom Cookie	168
(4) 판문점 선글라스 케이스 키링	168
(5) 한 입 초코파이 Mini Chocopie	170
3) 파주 관련 기념품	171
(1) 한 끼 쌀 rice pack	171
(2) 남북통일 술 세트 Korean unification liquor set	172

IV. 판문점 및 파주시 관광 중장기 발전 방안

1. 판문점·파주 여행 스토리텔러 양성	175
1) 여행 스토리텔러의 필요성	175
2) 판문점 및 파주 지역 여행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176
2. 파주시 관광홈페이지 개선	178
1) 관광홈페이지 현황	178
2) 관광홈페이지 개선 제안	179
3. 판문점 관광 파주시로 일원화 추진	182
1)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 현황	182
2) 판문점 견학 등 평화관광 운영 일원화 필요	183
4. 판문점과 주변 유사 지역 답사 학술 연구	184
1) 독일 그뤼네스밴트 Grunes Band	184
2) 베를린 체크 포인트 찰리 Checkpoint Charlie	186
3) 베를린·유럽 슈톨퍼슈타인 Stolperstein	187
4) 해외 분쟁 접경지역 변화 사례	189
5. 파주 스토리 아카이빙	190
1) 파주 원천 스토리 발굴 필요성	190

2) 스토리 발굴 단계	191
3) 스토리 발굴 방법	193
4) 스토리 활용	194
(1) 사례 / 영화 <국제시장>	195
(2) 사례 / Mr. Men and Little Miss	196
(3) 사례 / The Avengers	197
6. 평화통일도시, 파주! 이미지 만들기 작업 ‘무궁화 심기’	198

〈표 목차〉

표1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21
표2 경기관광공사의 경기 관광 포털	22
표3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 인지도와 선호도 상승률	33
표4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나라별 인지도	34
표5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나라별 선호도	34
표6 DMZ 인지도와 프로모션 후 한국·DMZ 방문의향	35
표7 경기관광공사 조사에 따른 경기도 이미지	36
표8 임진각 평화누리 만족도 조사	36
표9 관광 정보 지식시스템에 따른 2018년 국방부 자료	38
표10 파주 안보 관광지의 연도별 방문자 수	38
표11 DMZ 접경지역 방문 여부와 방문지(한국인)	39
표12 국적별, 성별, 연령별 중국인과 독일인의 DMZ 접경지역 방문 여부	40
표13 DMZ 관련 평화적 활용제안	41
표14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실태 조사	45
표15 경기도 주한 미군 반환 공여 구역 개발 현황	63
표16 판문점 관련 주요사건	100
표17 글로벌 가상·증강현실 시장 전망	101
표18 VR, AR, MR 시장 전망	102
표19 판문점의 콘텐츠 활용	104
표20 여행자의 디지털 여행 매커니즘	107
표21 한글 관련 상품 증감률과 한글 앱 단비	111
표22 A 사의 서체개발 과정	114
표23 World Peace Artist 운영 프로세싱	115
표24 대성동 자유의 마을 여건	118
표25 대성동 마을 방문 동선과 의미	119
표26 흥미로운 이북음식 콘텐츠	122
표27 국내 여행 선정 시 중요 순위	130
표28 국내 여행 유형의 선호도	130
표29 판문점 연계 당일 여행	131
표30 판문점 연계 1박 2일 여행(근거리 거주)	132
표31 판문점 연계 1박 2일 여행(원거리 거주)	133
표32 판문점과 주변 지역 2박 3일 여행	135
표33 임진각 기념품 판매에 대한 만족도	153
표34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브랜드	167
표35 파주 및 판문점 여행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177
표36 파주시의 관광지 분류	179

표37 인천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 정보 기능	181
표38 해외 분쟁 접경지역의 변화 사례	190
표39 이야기 발굴 단계	192
표40 인터뷰를 통한 원천 스토리의 콘텐츠화	193
표41 OSMU(One Source Multi Use) 방법	195
표42 MTOT(Multi-tasking for One Theme) 방법	195

〈그림 목차〉

그림1 남북분단의 현장인 판문점	4
그림2 판문점 위치	9
그림3 DMZ의 위치와 구성	10
그림4 역사적·정치적·이념적 사건의 중심지 ‘판문점’	12
그림5 판문점의 구조	14
그림6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전협정 체결 장면	23
그림7 해외언론을 통하여 본 판문점 이미지	26
그림8 남북정상회담의 CNN 보도	27
그림9 전 세계 언론의 관심	28
그림10 제3땅굴	48
그림11 캠프 그리브스	50
그림12 대성동 마을 지도와 항공사진	51
그림13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55
그림14 파주출판도시	57
그림15 파주 ‘DMZ 평화의 길’ 노선도	61
그림16 통일대교와 브란덴부르크 문, 파리저 광장	95
그림17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 떼 방북	96
그림18 월스트리트의 황소상과 사람인(人)을 넣은 소 얼굴 모형	96
그림19 프리포즈 코스	98
그림20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어메리카〉의 포스터와 덤보(DUMBO)	99
그림21 판문점의 디지털 콘텐츠화	103
그림22 남북정상회담 환송 행사 당시 판문점 미디어 파사드	105
그림23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의 바닥 유도선	106
그림24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포토 포인트 이미지	108
그림25 정전협정 당시의 글자	110
그림26 인도네시아의 한글 쓰기 대회 참가자들	111
그림27 파주 출판단지 활판박물관의 한글 관련 콘텐츠	112
그림28 서체개발사례-시흥시의 동네 봄	112
그림29 서체개발사례-583 양조장	113
그림30 판문점체를 이용한 타투용품	113
그림31 대성동 마을 지도와 불거리	120
그림32 대성동 마을 민방공 긴급 대피소(방공호)	121
그림33 교동도 대룡시장의 강아지 떡	122
그림34 peace road 특화 구간	126
그림35 peace road 특화 구간의 시설과 현황	127
그림36 밤하늘 관찰에 좋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128

그림37	경복궁 야간개장	128
그림38	황희 정승과 반구정	134
그림39	울곡 이이와 자운서원, 가족묘	135
그림40	판문점과 주변 관광지의 위치, 특성	137
그림41	임진각에서 판매 중인 기념품	152
그림42	도라전망대에서 판매 중인 기념품	153
그림43	한국관광공사 공모기념품 / 훈민정음 토스트 스탬퍼	154
그림44	한국관광공사 공모기념품 / 경복궁 단청 연필	155
그림45	한국관광공사 공모기념품 / 스니커즈, 단청 타투 스티커	155
그림46	한국관광공사 공모기념품 / 제주 돌 빵	156
그림47	독일의 암펠만 굳즈	158
그림48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스타벅스 카드	159
그림49	벚꽃 카드, 이대 매장 공모전 카드, 카드 수집 마니아	159
그림50	이화여대 매장, 한국 이미지 등 특화된 스타벅스 굳즈	160
그림51	포르투갈 리스본 안내 센터와 포르투의 기념품 진열	161
그림52	전투식량과 인스타그램 인증샷	163
그림53	판문점에서 먹는 전투식량	164
그림54	씨앗 엽서	165
그림55	업사이클링 브랜드와 제품	166
그림56	다양한 문구와 문양을 넣는 판문점 쿠키	168
그림57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연관되는 선글라스 케이스 키링	169
그림58	크기를 작게 만든 판문점 한 입 초코파이	170
그림59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한 끼 쌀	171
그림60	남한 술과 북한 술을 묶어서 파는 통일 술 세트	172
그림61	국학진흥원의 이야기 할머니	178
그림62	비무장지대(DMZ)에서 '생명의 띠'가 된 그뤼네스반트	185
그림63	체크 포인트 찰리의 현재 모습과 실제 모습	187
그림64	독일의 걸림돌 프로젝트 슈톨퍼슈타인	188
그림65	영화 <국제시장>의 인물과 사건들	196
그림66	Mr. Men and Little Miss의 활용사례	197
그림67	어벤저스 전략의 사례	197
그림68	통일의 이미지, 무궁화	198

I.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제2절 계획의 목적

제3절 계획의 범위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 판문점(板門店)

- 본래 지명은 널문리였으나, 1951년 휴전회담이 열리면서 중국어 표기를 위해 판문점으로 지명이 굳어짐.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에 위치함
- 세계인에게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은 영어로 JSA(Joint Security Area)이며 6·25전쟁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한 공동경비구역으로, 공식 명칭은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임
- 판문점은 남북한 직접 대화 및 교류의 장으로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공동경비구역 내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고, 5월 26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통일각에서 개최됨
-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1980년대 중반 까지도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북측 지역의 '판문각'과 UN 측의 '자유의 집'은 각종 회담 장소로 활용됨
- 최근의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기보다는 남북한 직접 대화 및 교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 판문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본 연구조사는 문헌 조사,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예비 방문객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조사, 현장 관찰평가, 자문위원 의견, 기획과 운영 전반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판문점 평화관광 성장에 필요한 과제 도출의 필요성에서 기인함
-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장소인 판문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판문점 방문객의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 대표 관광지로 파주 지역 발전 방안 모색에 필요한 선결과제로서 수행되는 것임



그림 1. 남북분단 현장인 판문점

□ 판문점 방문객 분석과 평가

- 본 연구는 판문점의 관광 현주소 파악 및 프로그램 운영과 현황 등을 분석하여 판문점 이미지 전략과 평화관광의 방향성 및 활성화 방안,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를 종합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이해 시의적절한 대안을 탐색하여 판문점 관광기반 조성, 관광콘텐츠 확충, 코스개발 및 여행상품 운용 등 종합적 의견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찾는 데 목적이 있음
- 조사된 내용에 근거하여 현행 판문점 관광을 종합하여 향후 판문점 핵심 사업을 구상하고 평화관광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평가의 최종 목적임

□ 공간적 범위

- 판문점과 판문점 주변 지역

□ 시간적 범위

- 2020년~2022년(3년간)

□ 내용적 범위

- 계획의 개요 / 판문점 관광 개요 및 조사 설계
- 판문점 관광기반 마련을 위한 여건 분석
- 판문점 관광콘텐츠 현황 분석 및 확충방안
- 판문점 관광코스 개발 및 여행상품 운용
- 판문점 평화관광 발전 방안

Ⅱ. 판문점 일반현황 및 여건 분석

- ① 판문점 일반현황
- ② 판문점 여건 분석

II. 판문점 일반현황 및 여건 분석

1

판문점 일반현황

1. 판문점 주변 환경

- 판문점의 위치는 서울 서북쪽 48km, 개성에서 동쪽으로 10km,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180km,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 부근으로, 북서쪽과 서쪽 경계를 흐르는 임진강과 서남쪽을 흐르는 한강이 있음



그림 2. 판문점 위치

- 판문점은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 측과 북한·중국의 공산군 측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긴 지름 1 km, 짧은 지름 800m의 장방형 지대로, 가운데에 군사분계선이 있음

- 공동경비구역은 휴전선 155마일 중 한국군 300여 명과 미군 200여 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경비대대가 관할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지역임

- 휴전협정에 따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DMZ)는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가르는 아픔의 상징이자 동시에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67년 이상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청정구역임



그림 3. DMZ 위치와 구성

- 인근 임진강은 물살이 빠르고 강변에 층층이 툽날 모양으로 깎인 바위가 늘어서 있어 자연경관이 빼어난 관광지가 발달하여 있음

- 파주시의 주요 관광명소로는 통일전망대 등 안보 관광지 외에 용미리의 부처 돌 입상, 덕은리의 옛 주거지와 고인돌군, 갈현리의 장릉, 조리읍의 공릉·순릉·영릉, 교하동 한강 하류의 재두루미도래지 등이 있음

2. 판문점 역사 및 행정구역

- 판문점은 6·25 전에는 널문(板門)이라는 지명으로, 초가집 몇 채만 있던 외딴 마을로 1951~53년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음. 천막을 치고 시작한 휴전회담은 1년 9개월을 끌었고, 휴전회담을 마친 뒤 정전협정 조인을 위해 부근에 목조건물을 지었으며, 그 후 본래 판문점 위치에서 1km 남쪽의 현재 위치로 다시 이전함. 서쪽의 사천(砂川)에는 민족분단의 상징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옛 이름은 널문 다리)가 있음
- 1953년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판문점은 당시 장단군이었으나 지금은 파주시 진서면으로 되어있음. 행정구역상 주소지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임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전후좌우 경계 간의 직선거리가 800m에 불과하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을 비롯해 UN 측의 ‘평화의 집’, 북측의 ‘통일각’과 ‘판문각’ 등 24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음
- 휴전회담은 처음으로 1951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을 시작했지만, 중립지대로 결정된 회담 장소가 양측의 공방전으로 위협을 받게 되자 9월 6일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김
- 1953년 7월 27일 이곳에서 북한·중국과 국제연합(UN)군 간에 전문 5조 36항으로 된 한국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개전 후 3년, 회담 시작 후 2년 1개월 만에 6·25전쟁은 휴전상태로 UN과 북한 측의 ‘공동경비구역’으로 정해짐

- 판문점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 1967년 ‘이수근 위장 귀순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세계적인 긴장 완화 추세로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남북 간 접촉 및 회담의 장소로 자주 거론됨
- 1971년 8월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1972년 7월 7·4 남북공동성명이 열리면서부터 판문점 내의 중립국 감시위원회 회의실은 실무접촉과 예비회담 장소로, 북측 지역의 판문각과 UN군 측의 자유의 집은 본회담 장소로 활용되어 옴
- 1985년 9월 20일~24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과 평양에서 이루어진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교환공연’은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통과한 민간차원의 왕래로 기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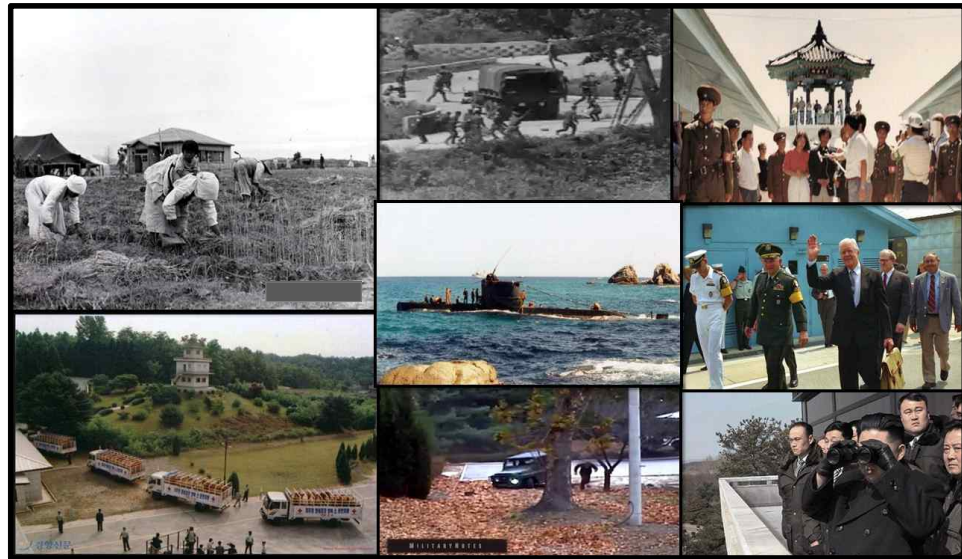


그림 4. 역사적·정치적·이념적 사건의 중심지 ‘판문점’

- 1988년부터 재야단체와 학생들에 의해 통일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해 8월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국회 회담'이 재개, 예비접촉부터 시작하여 10여 차례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림
- 1990년에 남북한 직접 대화의 길이 열려 남북고위급 예비회담이 열렸으며, 이후 남북한 간에는 휴전 위반사례가 현격히 줄어들고 판문점 지역 남북한계선 1km 미군 경비구역이 국군에 이관되는 등 남북한 직접 대화 및 교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17년 11월 13일 북한군 오청성 병사가 북한군의 총격을 뚫고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해 화제가 되면서 공동경비구역은 다시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평화 교류의 물꼬를 트고, 4월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되어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무형 정상회담이 통일각에서 개최됨

1. 판문점 여건 분석

1) 판문점 현황

-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을 비롯해 평화의 집, 통일각과 판문각 등 24개 동의 크고 작은 건물이 세워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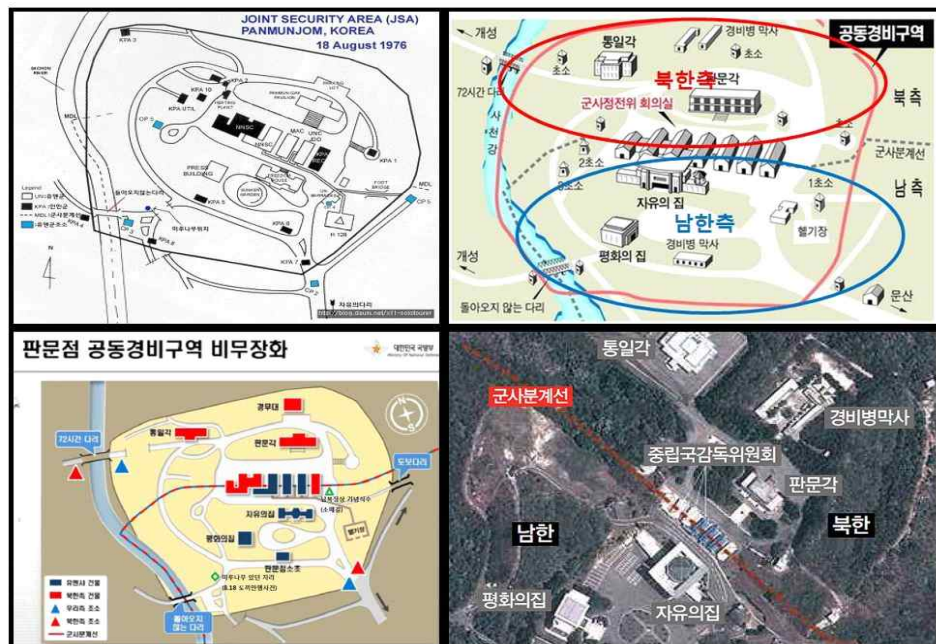


그림 5. 판문점의 구조. 시계방향으로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국방부 홈페이지, 인공위성 사진 자료.

- 군사분계선(MDL) 상에 동서 방향으로 7채의 조립식 막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늘색의 T2 건물은 ‘군사정전위원회 본 회의실’이며 왼쪽이 T1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T는 ‘임시’(temporary)의 약자임

- 남쪽에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북쪽에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음. 남쪽 ‘자유의 집’ 2층에는 지난 1971년 9월 20일 열린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북한과의 직통전화와 2명이 상주 직원이 있음

- 공동경비구역이 설치된 이후 쌍방 군정위 관계자들은 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으나 1976년 8월 도끼만행사건 이후부터 양측 간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여 경비병을 포함한 모든 군인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며 개인적으로 북한군을 만나거나 말을 걸지 못하게 되어 있음

2) 판문점 명칭에 관한 이견

- 기존 내용 : 본래의 지명은 널문리로 판문점의 유래에 대해서는 “1951년 10월 22일 널문리 주막 마을을 새로운 휴전회담 장소로 정하고 중공 측 대표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중국어 표기를 위해 널문리 주막 마을의 한자 뜻인 판문점(板門店)으로 하였다”라고 함

- 명칭에 관한 이견 : 널문리의 한자 의미인 판문리에 주막의 의미를 붙여 판문점으로 바꾼 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이곳의 주막을 판문점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음. 중공군 휴전 대표들을 위해 한자표기를 하느라 바꾼 게 아니라 원래부터 판문리에 주막거리가 있었다는 의견임

- 食後發行。至板門店。益文來迎。相遇於此。下車入店房。詳聞安況。甚

可慰也。 밥을 먹고 출발하여 판문점에 이르니 익문이 나와 맞이하므로 만났다. 수레에서 내려 주막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니 크게 위로가 되었다(연원직지 5권 계사년, 1833년 3월 기록) * 출처. 파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파평면 두포리 역사연구회

3) 판문점의 대중인지

- <공동경비구역 JSA>는 박상연이 쓴 소설 <DMZ>를 원작으로 2000년 영화로 제작됨. 감독 박찬욱, 출연 이영애, 이병헌, 송강호, 신하균 등 화려한 출연진과 그들의 명연기로 인기를 불러일으킴. 그 이후에도 뮤지컬, 연극 등으로 리메이크되어 공동경비구역 JSA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졌음

2. 판문점 관광 주체별 운영현황

1)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is.go.kr>)를 통해 판문점 견학 신청을 할 수 있음

-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군사분계선 이북은 북한 측이, 이남은 UN 측이 각각 관할하는 특수지역으로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음

- 방문 대상은 만 10세 이상의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외국인

- 국내인의 일반방문일 경우 최소 30명 이상 최대 41명 이하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신원(확인·보증)을 받아 방문희망일 60일 이전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 견학 신청은 월 단위로 구분되며 월별 견학 신청 단체 수가 제한되어 있어 배정 단체 수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함
- 외국인 여행객(시민권자 포함)의 경우 유엔사에서 지정한 국제문화서비스클럽(www.tourdmz.com), 대한여행사(www.go2korea.co.kr), 중앙고속(www.jsatour.com), 판문점 트레블센터(www.koreadmztour.com), 코스모진 여행사(www.cosmojin.com)에서 외국인은 4일 전, 재외한국인은 2주 전에 신청 가능함
- 귀빈방문(VIP) 및 특별방문일 경우 신원보증은 생략하며, 주한 외국 공관원은 외교부 장관, 정부 초청·추천 외국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 19명 이하로 방문희망일 14일 전에 신청 가능함
- 판문점 방문은 브리핑 30분, 견학 60분으로 총 90분이 소요됨
- 견학 일정 :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검문 병사에게 단체명, 인솔자, 인원의 신원을 확인 후 통일로를 지나 판문점 주차장에 도착, 브리핑 청취 후 JSA 견학 버스에 탑승, 자유의 집(중감위 회담장, 팔각정), 공동식수, 도보 다리를 지나 주차장을 향함
- 판문점 방문일정 확정 통보 후 취소되는 경우 : 판문점 경내에서 남북회담 또는 기타 중요한 행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방문신청

서와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증대한 흠이 발견된 경우, 유엔사 측 사정(법정 공휴일, 휴무일, 또는 훈련일)으로 판문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임

-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지각 시 견학이 취소됨, 기타 주의 사항으로 찢어진 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반바지 및 노출이 심한 복장이 금지되고 음주 및 주류는 휴대 금지임

2) 통일부

- 통일부는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 설립됨

-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 교육·홍보, 개성공단 등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통일부는 남북회담 본부(<https://dialogue.unikorea.go.kr>)를 통해서 판문점 견학이 가능한데 대상은 대한민국 공무원, 학교 관계자(교사, 교직원, 학생), 통일교육원 교육생, 한국 정부 기관·단체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국내외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남북연락과)에 신청함. 문의 남북회담본부(남북연락과) 031-950-9222

- 견학 시 JSA 경비대대 입구 도착 후 개인별 신분증 확인 및 견학 버스로 환승, 판문점 JSA 경비대대 → 판문점 지역 현황 브리핑(벨린저 홀)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 기념 식수 → 도보다리 → JSA 경비대대로 돌아옴

- 견학 시간은 90분으로 JSA 경비대대 브리핑 30분, 견학 60분,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 견학자 주의 사항과 취소되는 경우는 국가정보원 사항과 동일함

- 정부는 2020년 1월 22일 제3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어 판문점 견학 운영을 위한 경비 16억5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함

- 지금까지 판문점 견학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경우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학생과 교사, 공무원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통일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견학 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할 계획임. 국민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고 견학 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임

-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방식 변경에 따라 실향민과 이산가족, 주한 외교사절단, 학생·교사 등을 상대로 2020년 3월부터 시범 견학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연기되었음

3) 국방부

-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외부의 침략과 내란에 대비하고 평상시는 군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유사시 군사력을 사용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주요 업무임

- 현재 군인(가족 포함)의 판문점 견학은 국방부를 통해 이루어졌음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UNC(유엔군 사령부) 관할지역으로 정부가 전권을 갖고 개선 방향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견학 T/O 확대, 견학 코스 보완은 유엔사 승인 및 협조가 전제해야 함
- 판문점 견학 기회 확대 및 견학프로그램 개선 등은 모두 국방부와 유엔사의 결정에 따르게 됨
- 국방부에서는 안보체험행사의 일환으로 국방문화체험인 ‘청소년 호국 수련 활동’을 실시하며 부대 견학, 병영체험, 행군/순례, 특별캠프 등이 있음
- 운영 시기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당해연도 2월까지, 단체(개인별 신청 불가)만 가능하며, 학교와 종교단체 등 일반단체에 소속된 초·중·고·대학생이 가능함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보훈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직속부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현장체험’과 ‘사진/유품 전시회’ 신청을 할 수 있음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 재판업무를 비롯한 군사법(軍司法)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군사법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군사 법정 견학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4)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는 DMZ 홈페이지(디엠지기, DMZIGI, <http://www.dnz.go.kr>)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음
- DMZ에 대해 분야별로 산재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DMZ 인근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까지 상세하게 전달하여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능함
- JSA에 대해서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북측과 남측의 건물과 장소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음

5)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or.kr>에 JSA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JSA 방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




상세정보			
• 문의 및 안내	국가정보원(안보상담센터) 111	• 홈페이지	https://www.nis.go.kr:4016/main.do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 이용시간	•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일 (1일 3회 운영) * 1회차 (09:45), 2회차 (13:15), 3회차 (15:15) 11월~3월은 3회차 미운영 / 토요일은 3회차만 운영
• 휴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표 1.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6) 경기관광공사

- 경기관광공사는 경기 관광 포털 사이트 <https://ggtour.or.kr>에서 테마별 관광 정보 중 하나로 JSA를 소개하고 있으나 내용이 매우 빈약한 편임

 **이용안내**

 지역	파주
 주소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여흥리
 홈페이지	https://tour.paju.go.kr/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곳이며, 서울에서 통일로를 따라 북으로 50km 떨어진 지점의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 군사분계선상에 설치되어 있다. 원래지명은 널문리였는데, 1951년 10월 정전회담이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중국어 표기를 위해서 板門店(판문점)으로 고쳐 쓰면서 지명으로 굳어졌다. 휴전협정 이후로는 공동경비구역(JSA)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남한과 북한 양쪽의 행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1953년부터 양측에서 자유롭게 통행하였으나, 1976년 판문점 도끼살인사건 이후로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경비하는 '자유의 집'은 여권을 소지한 외국 관광객은 견학이 가능하며, 관람을 원하는 내외국인은 방문자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유의사항 :
판문점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견학신청을 하거나 여행을 통해야 한다.
판문점 방문 및 견학 신청은 남부회담본부에서 할 수 있다. (<http://dialogue.unikorea.go.kr/>)
촬영허가구역 외에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있다.

표 2. 경기관광공사의 경기 관광 포털

3. 판문점 관련 국내외 이미지와 경향 분석

1) 국내외 언론분석

(1) 국내 언론

① 판문점 형성과 사건들

- [정전협정 66주년] 널문리 주막 앞 천막서 군사분계선 현 위치로... 판문점 첫 지점보다 동쪽으로 약 800m 옮겨 (국방일보 2019.11.23.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726/21/BBSMSTR_0000000)

10026/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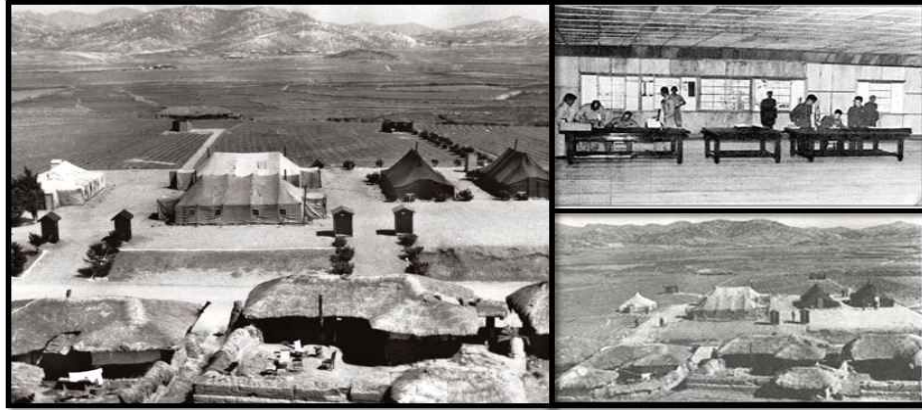


그림 6.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전협정 체결 장면.
국가기록원, 널문리, 통일부 공식블로그 사진 자료

- 남북미 정상, 판문점서 첫 회동... 정전협정·도끼만행사건, 역사로 본 판문점(천지일보 2019.06.30. <http://www.newscj.com>)

- 남북이 완전히 단절된 JSA,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중앙일보 2017.11.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794554)

- 故 장명기 상병과 북한 병사 오청성 (Newdaily 2019.11.2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11/29/2017112900050.html>)

② 4.27 남북정상회담 후 변화

- 5월 1일부터 판문점 남측지역 민간에 개방 (한국일보 2019.04.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91170353971?did=NA&dtype=&dtypecode=&prnewsid=>)

- 무기 내려놓은 남북 軍…JSA 평화 분위기 속 아쉬움도(아시아 경제 2019.05.0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1>)
- 판문점 JSA 견학 오늘부터 재개…도보다리 개방(Newsis 2019.05.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1_0000637846&cID=10304&pID=10300)
-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정책브리핑 2019.09.1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857&call_from=seoul_paper)
- 통일부,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등 교추협 의결(통일뉴스 2019.11.2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18>)
- 남북 평화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DMZ 평화의 길’(경기신문 2019.11.18. <http://www.kgnews.co.kr>)

③ 미국 대통령 트럼프 DMZ 방문 이후

- 돌고 돌아가는 트럼프… 북한 땅에서 다시 희망을 볼까?(경향신문 2019.06.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90600035&code=970100)
- 트럼프, 북한 땅 밟은 첫 현직 美 대통령 됐다(연합뉴스 2019.06.30. https://www.yna.co.kr/view/AKR20190630015100009?input=1195m_)

- DMZ서 美 대통령 대북 메시지 발신... 트럼프 최고 강령 (연합뉴스 2019.06.30.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9032700504?input=1195m>)

(2) 해외언론

- What kind of place is the Korean ‘truce village’ of panmunjom? 판문점의 한국 ‘트리스 빌리지’는 어떤 곳입니까? (Mainichi Japan July 1, 2019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190701/p2a/00m/0in/012000c>)
- DPRK, U.S. ‘actually’ end hostility, start peace era via Panmunjom summit: S Korean president 북한, ‘실제’ 적대 종식,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시대 시작 : 한국 대통령(Ecns 2019.07.02.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7/02/content_74944564.htm)
- DMZ, where Trump met Kim, is a vestige of Cold War 트럼프가 김을 만난 DMZ는 냉전의 흔적이다 (AP NEWS June 30, 2019 <https://apnews.com/a70c1c608e07478597aa1ffdfa900ea9>)
- Koreas to remove guns and guard posts from Panmunjom ‘truce town’ 판문점 ‘트리스 타운’에서 총을 제거하고 게시물을 지키는 한국인 (bbc 22 October 2018 <https://www.bbc.com/news/world-asia-45946924>)

(3) 관심의 집중

- 판문점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30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각 언론 매

체에서 다양한 각도로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데, 판문점의 형성과 그동안 일어난 사건이 다시 회자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관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남북분단, 평화 전환, 장소, 판문점, DMZ를 다룬 키워드는 전 세계 관심의 집중을 받음. 특히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해외 주요 일간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회담을 대서특필하며 지대한 관심을 나타냄



그림 7. 해외언론을 통하여 본 판문점 이미지

-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트타임스는 2018년 4월 28일 자 1면과 4~6면 등 4개 면을 할애해 판문점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빠짐없이 전함. 태국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1면과 4면, 8면에, 더 네이션은 1면 머리기

사와 9면을 남북정상회담 소식으로 장식. 인도네시아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남북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행진하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와 공동 기념 식수 직후 ‘도보다리’에서 긴 시간 단독 회동하는 두 정상 사진의 사진을 1면에 배치. 필리핀 일간 더 필리핀 스타는 ‘한국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가져온 냉면이 관계를 개선했다고 소개했고, 인콰이어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기사로 게재함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지상파 3사, 종편 4사, 보도 채널 2사에서 생중계했으며 남북정상회담 당일 오전 9시 30분 시청률은 34.6%를 기록함. 이날 시청률은 평일 동 시간대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았음. CNN은 연일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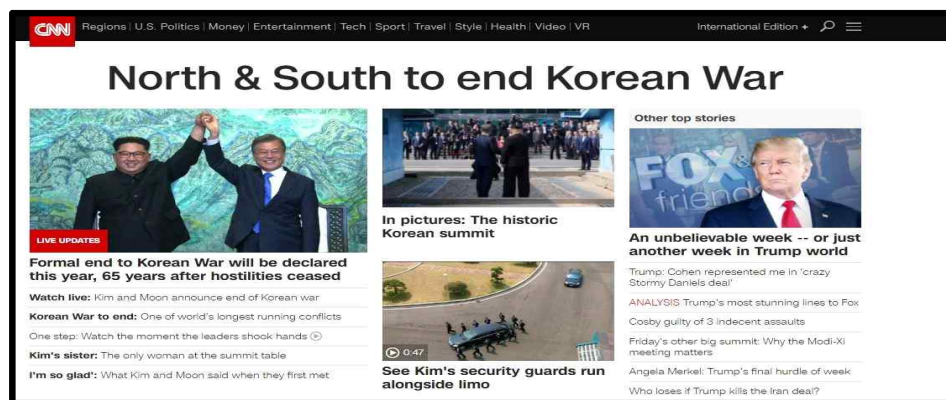


그림 8. 남북정상회담의 CNN 보도

- CNN이 뽑은 ‘올해 세계에서 벌어진 좋은 일’의 첫 순위에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종전 선언이 선정됨



그림 9. 전 세계 언론의 관심

- CNN 메인 홈페이지에 하노이 회담을 다룬 특별 세션의 기사가 중심이 되었음. 중국의 CCTV, 일본 NHK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요 뉴스로 방영함
- 2019년 2월 27일~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오전 10시 05분 시청률 31.2%를 기록함. 전국 시청률 23.6%보다 7.6% 포인트 상승함

2) 국내외 예비 방문객 이미지 조사

- 내국인 40명, 외국인 20명 등 총 60명을 대상으로 판문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음. 항목 수는 개인 정보를 파악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총 5개의 문항으로 대면조사 하였음
- 조사 항목은 4개의 서술형 문항과 1개의 선택형 문항임
 - ‘판문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 판문점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선택형)
 - ① 임진각 ② 남북정상회담의 도보다리 ③ 자유의 집
 - ④ 도라전망대 ⑤ 평화의 집 ⑥ 평화누리공원 ⑦ 제3땅굴

- 판문점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판문점에서 기념품을 산다면 무엇을 사고 싶은가?
- 판문점을 관광 자원화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국인 한정)

• 내국인과 외국인의 연령별, 성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고 외국인의 국적은 영국 3명, 부탄 2명, 네팔 1명, 인도 7명, 미국 1명, 일본 1명, 홍콩 2명, 프랑스 2명, 이탈리아 1명으로 다양했음

• 내국인

연령대	참여 비율(%)	성별	참여 비율(%)
20대	7.5	여성	37.5
30대	12.5		
40대	25.0		
50대	20.0	남성	62.5
60대	35.0		

• 외국인

연령대	참여 비율(%)	성별	참여 비율(%)
20대	15.0	여성	60.0
30대	30.0		
40대	35.0	남성	40.0
50대	10.0		
60대	10.0		

① ‘판문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전쟁 / 전쟁의 아픔 / 분단국가 / 평화 / 평화 통일 / JSA 영화 / 정상회담 / 38선 / 도끼만행사건 / 북한 / 철마는 달리고 싶다

외국인과 비교해 내국인의 답이 훨씬 다양했으며 영화<공동경비구역 JSA>이나 도끼만행사건 같은 이미지는 당시 세대가 겪었던 사건을 연결해 대답함. 20대는 잘 모르겠다는 답이 절대적.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으로 다녀온 적이 있지만, 너무 어릴 때 체험인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음. 여전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가 지배적임.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 필요해 보임. 좀 더 밝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들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판문점 관광 자원화의 방향으로 유추됨

② 판문점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은 무엇인가? (선택형)

• 내국인(단위 %)

남북정상회담의 도보다리(30.0) > 자유의 집(25.0) > 제3땅굴(20.0) > 평화의 집(10.0) > 임진각(7.5) > 평화누리공원(5.0) > 도라전망대(2.5)

가장 최근의 이슈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남북 정상들의 회담 당시 이동 경로와 함께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도보다리에 관심이 컸으며, 남북정상회담이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음

• 외국인(단위 %)

제3땅굴(25.0), 임진각(25.0) > 자유의 집(20.0) > 도라전망대
(10.0) > 남북정상회담의 도보다리(10.0) > 평화의 집(7.5) > 평
화누리공원(2.5)

내국인의 선택과 달리 기존 정보에 의존한 선택으로 읽힘

③ 판문점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북한 사람(병사)과 사진찍기
헌병 제복 입고 보초 서보기 및 기념촬영
북한 문화체험
군사분계선 넘어보기
남북정상회담 때의 회의장 및 도보다리 답사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미루나무 살펴보기
공동경비구역 전체 답사

북한과 관련된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외 다양한 의견
을 밝혔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비슷한 의견임

④ 판문점에서 기념품을 산다면 무엇을 구입하고 싶은가?

북한 상품(개성 쌀, 소주, 우표 등)
기념엽서
기념사진
티셔츠
자석
동전
모자

북한 상품에 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컸음. 북한 우표는 임진각 기념품 판매점에서도 볼 수 있는 상품이고 북한 술의 경우 강원도 고성외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볼 수 있음. 판문점이 남과 북을 이어 줄 수 있는 문화 교두보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해석됨

더불어 어떤 기념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인터뷰식 질문에 대한 주관식 답은 다음과 같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콜라보 필요
 여성 선호, 실용적인 물건 개발 필요
 추억 혹은 역사의 한 조각을 되돌 수 있는 물건
 10대 타겟의 전쟁, 전투 관련 물건
 친구에게 선물로 부담 없는 가격의 물건
 사라지지 않는 물건도 좋지만, 기억 공유도 좋음
 인상적인 먹을 것 선호.
 판문점 관련 영화, 소설, 사건 등을 패러디한 물건
 파주 지역특산품의 재발견 느낌의 물건
 외국 젊은 여행자 타겟의 기념화 물건
 분단의 상징물인 철조망을 예술가들의 손길을 거쳐 기념품 화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
 사회적 기여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념품

⑤ 판문점을 관광 자원화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내국인 한정)?

- 단순한 견학이나 탐방보다는 체험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막연한 경계심을 타파하기 위한 친근한 홍보가 필요
- 방문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함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하든 판문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치는 정전(停戰)상태라는 점. 대립과 반목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꾸준히 이어온 평화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세계적인 관심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해 보임

3) 공공기관 자료를 통한 경향 조사

(1)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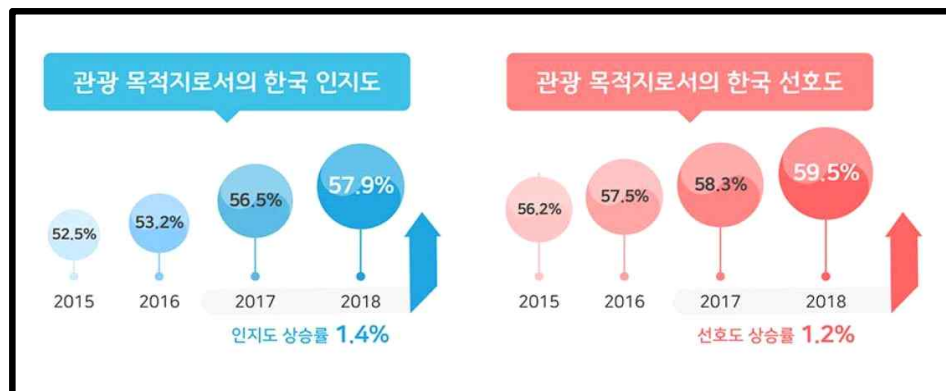


표 3.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와 선호도의 상승률

-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9년 집계한 2018년까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 상승률은 2015년 52.5%, 2016년 53.2%, 2017년 56.5%, 2018년 57.9%의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임.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선호도 역시 2015년 56.2%, 2016년 57.2%, 2017년 58.3%, 2018년 59.5%로 상승하고 있음. 2019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인지도 상승률은 1.4%, 선호도 상승률은 1.2%를 보임
- 2019년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과 DMZ를 프로모션을 하며 조사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I Know Korea!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나라별 인지도는 베트남이 가장 높은 82.1%이며 그다음 태국이 77.5%, 중국이 77.2%로 나타남. 이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홍콩, 대만,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일본이 그 뒤를 이었음

나라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홍콩	대만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일본
인지도	82.1	77.5	77.2	73.3	73.2	70.0	66.9	58.6	57.9	57.6	55.9	55.0	54.0

표 4.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나라별 인지도

• 동 조사에서 ‘I love Korea-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이 얼마나 매력 있을까?’를 묻는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나라별 선호도(%)는 인도네시아가 86.5%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이 84.8%로 그다음을 차지했으며 태국이 81.0%, 필리핀이 74.2%로 그 뒤를 이었음

나라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홍콩	대만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일본
선호도	84.8	81.0	64.5	86.5	74.2	71.5	64.7	53.8	70.6	64	66.2	61.0	28.3

표 5.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나라별 선호도

• 관광 목적지로서의 DMZ 인식조사 결과, DMZ 인지도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1.8%, ‘알고 있는 편이다’가 34.8%, ‘보통이다’ 16.2%, ‘모르는 편이다’ 18.5%, ‘전혀 모른다.’ 18.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DMZ 인지도는 46.6%를 보임

- DMZ 프로모션 감상 후 한국방문 의향은 ‘매우 방문하고 싶다.’ 21.5% ‘방문하고 싶은 편이다’ 28.7%로 한국방문 의향은 50.2%를 보였고, DMZ 프로모션 감상 후 DMZ 방문의향은 ‘매우 방문하고 싶다.’ 21.2% ‘방문하고 싶은 편이다’ 27.4%로 DMZ 방문의향 48.6%를 보였음. DMZ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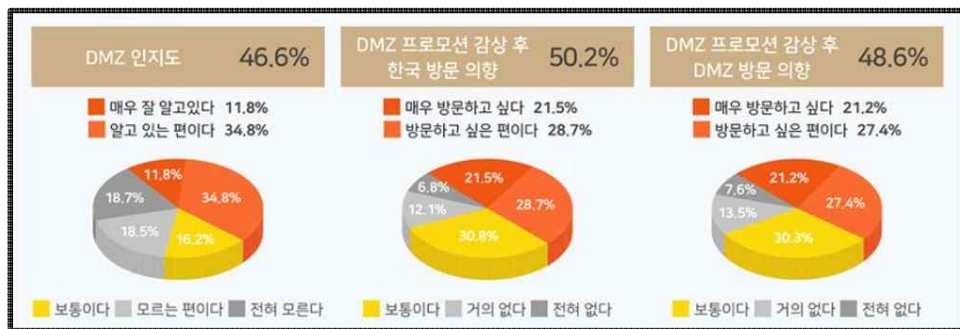


표 6. DMZ 인지도와 프로모션 후 한국·DMZ 방문의향

(2) 경기관광공사

- 경기관광공사의 ‘2018년 경기 관광실태 조사 보고서’는 2018년 1월~12월에 걸쳐 경기도를 방문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는 수려한 자연경관, 국내 여행지로 적합, 친절한 관광 종사자라는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 대비 높게 나타남
- 숙박, 쇼핑, 체험, 볼거리 등의 이미지는 작년 대비 상승했으나 다른 이미지는 낮은 상황임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전반적 만족도는 10대(3.98점)와 40대(3.95점)에서 높고, 방문객의 주거지 중 다른 지역 거주자의 만족도(3.92점)는 경기도

거주자(3.85점) 대비 높았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의 접근·이동 편리성 차원은 40대(4.02점), 50대 이상(4.01점)가, 정보이용 차원은 20대(4.07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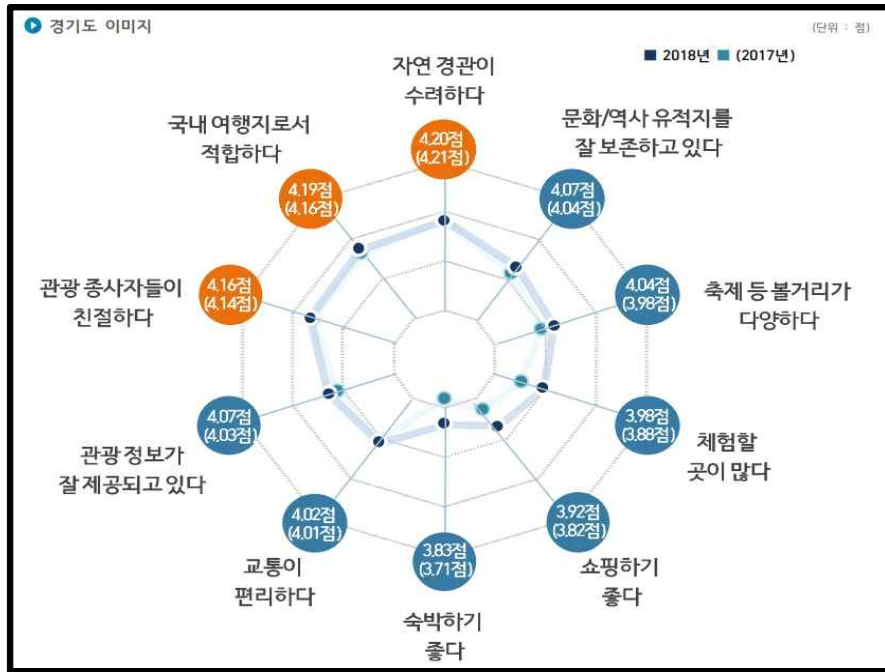


표 7. 경기관광공사 조사에 따른 경기도 이미지

구분	사례수	전반적 만족도	차원별 만족도				
			정보 이용	접근/이동 편리성	부대시설 적합성	체험프로그램	직원 친절성
전체	(716)	3.89	3.97	3.98	3.81	3.61	3.88
성별	남성 (356)	3.91	3.98	4.02	3.82	3.61	3.87
	여성 (360)	3.87	3.96	3.95	3.79	3.61	3.89
연령별	10대 (50)	3.98	3.96	3.92	3.80	3.64	3.96
	20대 (132)	3.89	4.07	3.93	3.77	3.64	3.92
	30대 (158)	3.84	3.90	3.96	3.79	3.54	3.83
	40대 (170)	3.95	3.94	4.02	3.86	3.65	3.88
	50대 이상 (206)	3.85	3.99	4.01	3.80	3.59	3.87
거주지	경기도 (332)	3.85	3.95	3.98	3.76	3.58	3.85
	타지역 (384)	3.92	3.99	3.98	3.85	3.63	3.91
여행 형태	개별여행 (631)	3.89	3.97	4.00	3.82	3.61	3.89
	단체/모임 여행 (81)	3.88	3.90	3.85	3.72	3.63	3.79

표 8. 임진각 평화누리 만족도 조사

(3) 국방부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을 통해 국방부에서 조사한 전국 안보 관광지 방문객 수를 파악할 수 있음.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전국 안보 관광지 대상지는 육군 13곳, 해군 8곳, 공군 2곳으로 총 23곳임
- 국방부 통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안보 관광지 방문객의 수를 집계함. 2012년까지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집계했고 2013년부터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은 물론 내국인을 학생과 일반인으로 상세 구분해 집계하고 있음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안보 관광지 전체 관광객 수는 2014년에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보임. 2014년 8월 DMZ 관광열차 운영 시작에 따른 상승세로 보이며 파주도 같은 양상을 보임.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전체 관광객의 30%를 차지함
- 전체적으로 전국 안보 관광지 중 파주 안보 관광지 방문이 1위를 차지함. 2순위는 고성 통일전망대, 3순위는 강화도 평화 전망대로 북한과 가까우며 볼거리가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의 안보 관광지 통계 중 파주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도라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허준 묘역. 당 지역의 2018년 내국인 방문자는 학생이 89,357명, 일반인이 322,167명이며 외국인 233,207명으로 전체 644,731명이 방문했음

관광지명		소계	내국인		외국인
			학생	일반인	
육군	도라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허준묘역	644,731	89,357	322,167	233,207
	평화전망대, 제2땅굴,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철원DMZ평화문화광장	185,089	9,989	174,927	173
	멸쇠전망대	11,188	4,811	6,041	336
	상승전망대	3,716	96	3,374	246
	승전전망대	7,854	1,055	6,573	226
	울지전망대	82,940	25,105	56,590	1,245
	칠성전망대	28,550	15,033	12,888	629
	승리전망대	19,120	9,345	9,745	30
	태종전망대	42,534	10,613	31,126	795
	고성 통일전망대	7,957	4,210	3,579	168
	제4땅굴	97,190	30,383	64,615	2,192
	백마고지전적지	45,890	7,555	38,102	233
	육군박물관	63,322	13,401	49,810	111
소계	1,240,081	220,953	779,537	239,591	
해군	애기봉전망대	평화공원 조성(2019년 12월 완공 예정)			
	감화도 평화전망대	360,509	8,259	349,913	2,337
	백령도전망대	7,445	797	6,625	23
	평택 안보공원	90,759	43,596	44,559	2,604
	천안함 기념관				
	연평도 포격전 전승기념관	14	14		
	포항역사관	19,291	9,104	8,557	1,630
	해군박물관	78,758	14,307	63,820	631
소계	556,776	76,077	473,474	7,225	
공군	철매역사관	4,075	2,501	1,573	1
	공군박물관	25,229	13,321	11,858	50
	소계	29,304	15,822	13,431	51
계		1,826,161	312,852	1,266,442	246,867

※ 자료 : 국방부, 2018년 12월 31일 기준

표 9. 관광 정보 지식시스템에 따른 2018년 국방부 자료

	소계	내국인		외국인
		학생	일반인	
2018년	644,731	89,357	322,167	233,207
2017년	526,992	99,744	227,320	199,928
2016년	580,952	61,489	231,624	287,839
2015년	584,946	66,336	216,502	302,108
2014년	1,556,095	65,348	640,582	850,165
2013년	794,959	62,153	230,104	502,702
2012년	847,669		314,377	533,292
2011년	572,012		339,506	232,506
2010년	535,858		365,023	170,835

표 10. 파주 안보 관광지의 연도별 방문자 수

(4) 경기 연구원

① 보고서 / DMZ의 재탄생 :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합의 상징으로

- 2020년 3월 발행된 보고서 ‘DMZ의 재탄생 :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합의 상징으로’는 DMZ 의미의 재구축 및 평화번영의 상징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용도임



표 11. DMZ 접경지역 방문 여부와 방문지(한국인)

- 한국인의 경우 : 500명의 응답자 중 DMZ 접경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음. 500명 중 DMZ 접경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33.8%(169명)임. 방문지를 살펴보면 통일전망대 방문비율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임진각,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도라전망대, 땅굴 등에 대한 방문빈도가 높음(n=500, %, 복수 응답)

- 외국인의 경우 : 한국 또는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에 DMZ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비율은 55.3%로 나타났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인의 방문비율이 75.8%로 중국인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음. 연령 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방문비율이 높고 50대의 방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남. 특히 독일인의 방문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젊은 층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외국인의 경우 DMZ 접경지역 방문만을 다루었으며 구체적 장소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나 한국인의 통계와 견주어 보았을 때 파주 지역 DMZ 접경 안보 관광지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큼



표 12. 국적별·성별·연령별 중국과 독일인의 DMZ 접경지역 방문 여부

- 기타 자료를 보면 중국인과 독일인의 응답자 중 DMZ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시기는 2015년, 2017년, 2018년이 각 11.8%로 높게 나타남. 대부분 5년 이내에 DMZ를 인지한 경우로 종합하면 46.5%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됨. 여기에서 DMZ 인지는 판문점을 포함하고 있음

② 보고서 / 경기도 DMZ 정책 로드맵

- 2020년 1월 발행한 경기 연구원의 ‘경기도 DMZ 정책 로드맵’은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DMZ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설정하는 자료임.

-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은 DMZ의 가치 중에서 생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판문점을 중심으로 DMZ에 관한 정부의 정책 움직임을 1935년의 휴전협정 후부터 살펴보면 안보보다는 평화적 활용제안이 많음

1953	휴전협정 조인(7.27)
1971	유엔사, DMZ 평화적 이용 제의(6.12)
1982	(손재식 국토통일위원장) 경의선 도로 연결, DMZ 내 공동 경기장 건설, 자연 생태계 공동학술조사, 군사시설 완전 철거, 설악산-금강산 자유 관광지역 공동설정, 군비 통제, 군사 책임자 간 직통전화 설치,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 자유 왕래, 남북 공동어획 구역 설정
1988	(노태우 대통령) DMZ 평화시 건설(이산가족면회소, 민족문화관, 남북연합기구) 제안
1991	남북한 공동 DMZ 평화적 이용(신뢰 조성방안) 협의
1994	(김영삼 대통령) DMZ 자연 공원화 제안, 선택 문제 해결 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제안 (김일성 주석) 북·미 회담에 의한 핵 문제 해결 강조, 북한 외교부 IAEA 탈퇴 선언
2000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무위원장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2007	경의선-경원선 복원 추진, 개성공단 조성, 개성·금강산 관광 실현, DMZ 내 대형 물류기지 추진
2007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10.4 정상선언 (노무현 대통령) DMZ 내 초소(GP) 및 중화기 철수 제안
201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2018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 4.27 판문점 공동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DMZ 평화지대화,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2019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6.30)

표 13. DMZ 관련 주요 평화적 활용제안

- 2019년 8월 경기 연구원이 PMI에 의뢰하여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DMZ 가치 요소 8개(생태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경제자원, 분단상징, 전쟁 상징, 평화상징, 남북통합 상징) 중 한국인은 생태자원 가치를 82.3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분단상징 77.57, 전쟁 상징 74.73 문화자원 74.40의 순으로 평가함

- 이에 비해 독일인들은 분단상징 73.87, 전쟁 상징을 70.22점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평화상징 61.78, 생태자원 56.67점으로 한국인과 인식의 차이를 보임

4) 국내외 여행 트렌드 조사

(1) 영향력 있는 매체의 여행 트렌드 분석

① 한국관광공사

- 2019년 12월 17일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분석한 2020년 국내 여행 트렌드를 6가지 키워드로 발표했으며 이는 ‘REFORM’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Regional Creator - 지역 관광명소를 발굴·소개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성장

Enjoy & Critique Food - 식사는 별점과 함께. 여행자 모두가 음식 비평가

Find My Trip - 초 개인화 시대, 세분화된 취향에 맞는 나만의 여행 찾기

Other Destinations - 봄비는 인기 여행지에서 쾌적한 숨은 여행지로

Redesign With Technology - ICT 진화로 여행의 디지털화 가속

Make Trips Nearby -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

② 포브스 Forbes

- 포브스는 1917년 창간된 미국의 출판 및 미디어 기업. 창업자는 B. C. 포브스(Bertie Charles Forbes, 1880~1954)로 경제 잡지 ‘포브스’지가 유명함. 포브스는 순위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 포브스가

예측한 차기 여행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움직이면서 여행한다.
- 복잡한 대도시는 NO! 제2의 지역으로
- 그린 트래블
- 지속 가능성의 여행

③ 스카이스캐너 Skyscanner

• 스카이스캐너(Skyscanner)는 세계의 저렴한 항공편과 호텔 예약, 렌터카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의 서비스 업체, 영국 에든버러에 본사를 두고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있음. 여행에 관한 다양한 통계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스카이스캐너가 예측하는 여행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 있는 여행
- 나를 위해 호젓한 곳에서 보내는 여행
- 식도락여행
- 개인의 성취와 경험에 집중하는 성장 여행

④ 인천 관광 진흥위원회

• 2019년 인천 관광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광역시 인천 관광 진흥 위원회의 보고에 따른 글로벌 관광 트렌드는 8가지로 요약됨. 이는 (주)한국 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 연구에 따름

- 복잡한 대도시보다 고즈넉한 소도시 여행을 선호

- 여행 일정을 여행객 각자가 기획하는 자유여행객이 증가함. 여행지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대세 SNS로 빠르게 부상한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여행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짐. 여행에서 얻는 경험이나 이미지들을 기록 공유하여 나만의 여행 포트폴리오를 남기는 것이 유행임
- 전 세계적으로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으로 인해 공유경제 개념 정착. 소비 양식이 소유(Possession)에서 소비(Consume)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음
- 소비(Consume) 형태는 경험으로 가치가 이동, 경험경제의 급성장을 의미함. 최근 외식과 여행 등 경험에 대한 소비가 제품에 대한 소비보다 네 배 가까이 빠르게 성장함
- 무자극 주의·저자극 주의를 포함하는 각종 콘텐츠, 제품, 서비스 등이 출시되고 있음
- 여행지, 숙박, 항공 티켓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떠나는 여행 증가. IT 기반의 여행 인프라 확대로 여행 과정 전반을 모바일로 해결함
- 소비자가 제품을 접하는 과정에서 사람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으로 발전함. 꺼끄러워하는 대면접촉을 피하고 싶음

(2) 여행 경향 전망

① 개별여행의 우세

2018년 경기도 여행: 내국인	2018년 경기도 여행: 외국인
<p>여행 형태</p> <p>① 개별여행 87.8%</p> <p>② 단체/모임여행 11.2%</p> <p>③ 여행사 패키지 0.3%</p>	<p>여행 형태</p> <p>① 개별여행 65.0%</p> <p>② 단체 관광 32.2%</p> <p>③ Air-tel 2.8%</p>

표 14. 경기관광공사 경기 관광실태 조사

- 2018년 경기관광공사의 경기 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별여행의 비중이 높은 편, 개인 취향을 반영하는 적극적 여행 소비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② 식도락의 즐거움

- 여행에 있어 음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단순한 배고픔의 욕구에서 벗어나 먹는 즐거움과 좋은 음식, 특별한 분위기 등을 즐기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공유의 즐거움, 정보교환까지 이루는 ‘음식 비평가’ 경향을 읽을 수 있음

③ 제2의 여행지로

- 인기 여행지보다는 다소 덜 변화한 여행지를 찾는 경향이 늘어남. 미국

잡지 포브스(FORBES)의 2020년 여행 트렌드에 언급되었듯 대도시의 인기 관광지와 비슷한 수준의 대체 여행지를 원하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 앞으로 더욱 뚜렷한 선호가 될 것

④ 친환경적 여행

- 물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며 지역 주민에 대한 고민과 배려까지 생각하는 경향으로 여행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

4. 판문점 및 주변 관광자원 현황

1) 판문점

- 서울 서북쪽 48km, 개성 동쪽 10km 지점에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리에 해당.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UN과 북한 측 공동경비구역으로 군사분계선(MDL) 상에 설치한 동서 800m, 남북 400m 장방형의 공간임
- 휴전을 관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1971년 9월 20일 열린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계기로 군사정전위원회의 회담 장소뿐 아니라 남·북한 간 접촉과 회담을 위한 장소 및 남북을 왕래하는 통과지점으로 활용되었음

-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과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이 있고, 남쪽에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북쪽에 ‘판문각’, ‘통일각’이 있음. 서쪽 사천(砂川)에 민족분단의 상징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지역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직선거리로 1.8m 떨어진 비무장지대 북쪽 구역에는 ‘기정동 마을’이 위치함

-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두 손을 맞잡고,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인식, 정부는 기존에 ‘단체’로만 관광이 가능했던 판문점을 개인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도 쉽게 방문하여 ‘안보견학’이 아닌 ‘평화체험’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개인’ 관광을 추진하고 있음

2) 제3땅굴

- 제3땅굴은 1974년 9월 5일 귀순한 북한의 김부성에 의해 땅굴 공사 철회를 근거로 1975년부터 문산 지역에 대해 시추작업을 하였으나 땅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다가 1978년 6월 10일 시추공 중 1개가 폭발함으로써 역갱도 굴착 공사를 실시, 1978년 10월 17일 적 갱도에 관통하여 판문점 남방 4km 지점에서 발견되었음

- 땅굴은 폭 2m, 높이 2m, 총길이는 1,635m에 달하고, 1시간당 3만 명의 병력이동이 가능한 규모, 그 위치가 서울에서 불과 52k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제2땅굴과 비슷하나 서울로 침투하는 데는 제1.2땅굴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km, 통일촌 민가에서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서울에서 승용차로 45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에 위치함

- DMZ 전시관 및 상영관이 위치하며, 도보 혹은 모노레일을 통해 내부 진입이 가능함

- 최근 파주시는 연간 60만 명이 방문하는 제3땅굴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역사를 배경으로 지역적 정서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역사공원 조성 용역에 착수했음



그림 10. 제3땅굴

3) 도라전망대

-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송악산 OP(Observation Post; 관측소)가 폐쇄된 후 1986년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안보관광지로 1987년 1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음

- 기존 도라전망대의 건물 총면적은 803.31m² 로 관람석(500석)·VIP 실·상황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원경 34대(관광객용:31개, 군부대전용:3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기존 도라전망대 시설이 노후되고 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2018년 10월 기존 전망대에서 북쪽으로 11m, 고도는 12m 옮겨 연면적 2,367m²,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이전하였음. 기존 도라전망대는

이제 관광객 출입금지로 군장병 교육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일반 관광객은 이전 신축한 도라전망대를 이용하여야 함. 신축 전망대에서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며 그밖에 송악산, 금암골(협동농장), 장단역, 북한선전 마을 기정동, 김일성 동상 등을 볼 수 있음. 실향민과 남북분단 현장을 보러 내외국인 관광객 60여만 명이 찾는 명소임

4) 캠프 그리브스

-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후 50여 년간 미2사단 506보병대대가 주둔해오다, 1997년 미군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 정부에 반환된 곳으로 장교 숙소, 생활관과 체육관 등 다양한 군 시설이 그대로 보존되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특성을 살려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 체험시설로 바뀜
- 남북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비무장지대,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내 최초의 유스호스텔로 미군 장교 숙소 한 동을 리모델링해 최대 2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층에 사무실과 소강당, 2~3층에 숙소, 4층에 실내 활동을 위한 대강당과 식당이 있음
-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보 OX 게임, 통일을 기원하며 미니 장승 또는 솟대 만들기, 특급전사 선발, 캠프 놀이마당, 도전 DMZ 골든벨 등 다양한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이 있음
- ‘K-드라마’의 열풍으로 국내외에서 흥행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촬영지로 큰 관심을 받음



그림 11. 캠프 그리브스

5) 대성동 마을

-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은 둔다’는 규정에 따라 1953년 8월 3일 북한의 기정동 마을과 함께 조성, 남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특수한 마을임
-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자유의 다리로부터 북으로 약 12.5km, 개성으로부터 남으로 약 11.5km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속함. 마을 북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판문점이 있고, 마을로부터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으며, 대성동 건너편에는 북한의 DMZ 민간인 거주지인 기정동 마을이 있음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유엔사령부의 통제 아래 있고 판문점과 다르게 일반인 관광은 불가능하며 주민들의 출입조차 통제됨. 외부인은 마을 주민의 초대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시간만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시 JSA 민정 중대의 경호를 받

아야 할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출입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통행이 금지됨



그림 12. 대성동마을 지도와 항공사진

6) 해마루촌

- 원래는 장단군 진동면 동파리였으나 남북분단 이후 파주군에 편입되었으며, 일부 영농을 목적으로 벼, 인삼 등의 농작물을 경작했으나 영농의 불편함과 실향민 1세대를 위한 입주 영농의 취지로 1998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6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 일명 동파리 수복 마을이라고도 불림
-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출입이 제한되어 사전에 마을과 협의를 거쳐야만 함

7) 통일촌

- 1972년 12월 이전에는 경기도 장단군이었지만 1972년 12월 이후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4개 면이 경기도 파주시로 편입

되었고 면적은 파주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며 쌀, 콩, 인삼 등 특용 작물을 재배함

- 자유로의 끝 통일대교를 지나 왼쪽으로 자리한 마을이자 파주 최전방 DMZ 안의 민통선 내 유일한 마을로 민간인 통제지역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

- 계절 체험으로 봄에는 장단콩 꼬마 장승제, 여름에는 농촌체험 축제, 가을에는 추수 행사, 겨울에는 저장 축제와 월별 체험으로 맷돌 돌리기, 절구 찜기, 콩물 비지 짜보고 만져보기, 두부 만들어 먹어보기, 전통장 맛보기와 안보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있음

- 경기도와 파주시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통일촌에 주민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브랜드 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음

8) 임진각 관광지

- 주요시설

- ① 임진각 : '임진강의 누각'이라는 뜻을 가진 건물로 1972년에 세워진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 대지 6,000평, 연건평 2,442㎡의 편의시설로 지하 1층에 임진각 기념품점, 지상 1층에 편의점 및 카페와 작은 갤러리, 2층에 한정식집과 기념품 판매점 등이 있고 3층에는 카페가 있으며, 옥상에는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 일대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음. 전망대 난간에는 쌍안경이 설치되어 있음

-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임진각 관광지 내에는 광활한 잔디 언덕(면적 약 99만㎡)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임진각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생명 촛불 파빌리온’, ‘통일기원 돌무지’, ‘글로벌 카페 안녕’, ‘음악의 언덕’과 같은 기부프로그램과 함께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행사가 연중 운영됨

- 임진각은 휴전선에서 7km 남쪽에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위치, 6.25 전쟁의 비극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 관광지임

- ’72년 실향민들을 위해 세워졌으며 ’91년 임진각 관광지로 지정되었음

- 망배단, 6.25 납북자 기념관, 자유의 다리가 소재하고 있으며, 3만 평의 평화누리공원이 조성되어있어 평화교육의 공간이면서도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연 3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② 망배단 : 해방 후 38선으로 나누어진 후 북한의 압제를 피해 남하한 실향민이 5백만 명으로 전쟁과 분단고착으로 고향을 잃은 이들이 고향 땅을 그리며 임진각에 와 임시제단을 설치하고 제를 올리는 곳. 가운데 망배탑과 제단, 향로가 있으며 그 뒤로 7개의 화강석은 이북 5도와 미수북 경기, 강원도를 상징함

③ 평화의 종 : 직접 타종을 원하는 경우 ‘임진각 관리사무소’, ‘관광안내소’에 문의

④ 장단역 증기기관차 : 6·25전쟁 당시인 1950년 12월 31일, 연합군 측의 군수물자와 식량을 수송하기 위해 개성역에서 25량을 달아 출발, 신의주로 향하던 기차.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한포 역에서 서울로 후퇴하게 되면서 북한군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한 연합군이 밤 10시경 장단 역에서 총격을 무차별적으로 가하면서 파괴된 증기기관차로 이후 장단역 터에서 50여 m 떨어진 지점 철로 옆에 붉게 녹슨 채 반세기 가량 방치되어 있다가 2004년 2월 6일에 등록문화재 제78호로 지정, 2007년 11월에 방염처리를 비롯한 복원 과정을 거친 후 남측 군사분계선에 있던 것을 가져와 임진각에서 전시하고 있음. 1020여 개의 총탄 자국과 휘어진 바퀴는 아픈 역사의 증거임

⑤ 철도 종단 점 : 통일 공원 쪽 도로 건너편, 평화공원 서쪽에 위치, 부산에서 출발하여 신의주를 향하던 경의선 철길이 전쟁으로 인해 끊긴 모습을 볼 수 있음. 38선으로 인해 남쪽의 기차역은 임진각에서 약 6km 아래에 있는 문산역이 임시종착역이 되었으며,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에 있었던 장단역은 폭격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짐

⑥ 자유의 다리 : 1953년 한국 전쟁포로 12,773명의 교환을 위해 가설한 다리. 당시 포로들은 차량으로 경의선 철로까지 온 후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넜다고 함. 국군포로가 자유를 택해 건너온 것을 기념하여 ‘자유의 다리’라 명명함

⑦ 평화누리공원 : 공원 입구에 생명 촛불 파빌리온이 있으며, 생명 길을 따라 주변에는 두루 나눔전통놀이 체험장, 캔들 숲, 유니세프 어린이 방이 위치. 생명 촛불 프로젝트, 통일기원 돌무지 등 세계의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프로그램이 진행됨. 기부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전달. 약 2만5천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잔디 언덕과 990m² 규모의 수

상 야외공연장 및 분장실·대기실을 갖추고 있는 어울터가 있음. 거인 모양의 조형물을 지나면 바람의 언덕에 3,000여 개의 바람개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꼽히고 있음. 어울못 위에는 수상 카페 ‘안녕’이 있어 다양한 차를 마셔볼 수 있음



그림 13.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⑧ 6·25전쟁 참전 기념비 : 한국전쟁 당시 목숨 걸고 싸웠던 파주시 참전 용사들, 파주 지역을 방어했던 1사단 백선엽 장군과 병사들, 해병대 1 전투단 등을 기려 2011년 6월 파주시에서 건립

⑨ 새천년의 장 : 2000년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분단 반세기 한을 민족 화합과 세계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건립. 과거를 뜻하는 하단부와 현재와 미래를 뜻하는 상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기둥은 50주년을 상징

⑩ DMZ 안보관광 : 임진각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여 DMZ 안보관광을

할 수 있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제3땅굴, 허준 선생 묘, 해마루촌, 통일촌 등이 포함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⑪ 근방에 자리한 평화누리 캠프장은 15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카라반이 갖춰진 종합 캠핑장이 조성되어있음

⑫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인 출입통제선 철책선을 건너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평화누리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과 연계한 파주 비무장 지대(DMZ)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민간지역인 임진각 탑승장에서 출발해 임진강을 건너 민통선 지역인 군내면 백연리 상부 정류장까지 전체 850m 길이를 운행하며 10분의 소요시간이 발생함

9) 파주 출판도시

- 1980년대 말 출판문화환경을 개선하여 21세기에 출판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염원했던 출판문화인들로 이루어진 출판문화공동체이자 국가문화산업단지. 중심로와 안쪽 길을 따라 자사 북카페나 책방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 구경하거나 이용할 수 있음. 평상시에는 업무지구로 조용하나, 매년 파주 어린이 책 잔치(봄), 파주 북소리 축제(가을) 행사가 열릴 때는 가족 단위를 위시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

- 지혜의 숲 : 8m 높이의 대형 서가에 꽂힌 약 13만 권의 기증받은 책들로 이루어진 공공서재. 3개의 공간으로 분리되는데 첫 번째 공간은 학자, 지식인, 연구소에서 기증한 도서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기증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곳, 세 번째 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의 로비이자 출판사, 유통사, 박물관, 미술관에서 기증한 도서를 읽을 수 있음

- **지지향** : 종이의 고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인 ‘지지향’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3동에 위치하여 트윈룸, 트리플 룸, 한실로 구성됨. 지상 1층에 숙소 리셉션과 지혜의 숲 3관이, 지상 4~5층에는 객실이 있음. 객실마다 책이 비치되어 있지만, TV, 일회용 칫솔 등 편의용품은 제공되지 않음. 박완서, 김훈, 함석헌 등 국내 작가의 전집 및 소장품으로 각각 꾸며진 ‘작가의 방’은 책을 통한 휴식과 함께 작가의 작품세계와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춰 ‘북캉스(book+vacance)’에 걸맞은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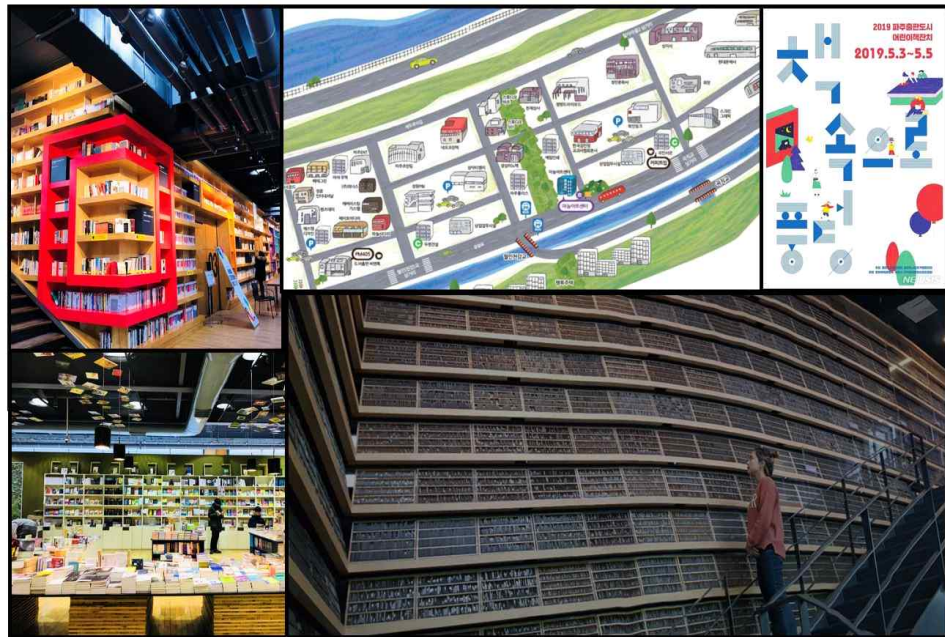


그림 14. 파주 출판도시

- **활판인쇄박물관** : 보성사/KBS 세트장, 봉진 인쇄, 가동활자 관(타자기관), 활자의 숲, 레터 프레스, 아트숍, 제일 활자, 문선조판실, 한지관, 외부 전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글, 한자, 영어, 독일어, 일어 활자 3천5백만자로 이루어진 세계최대 활자의 숲임. 금속활자 3500만여 자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기를 구경하거나 출판의 4대 요소인 제지술, 주조술, 문장

술, 인쇄술 체험뿐 아니라 종이 만들기, 글쓰기, 편집출판, 문선 인쇄, 책 제작까지 체험할 수 있음. 예능프로그램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촬영지로 알려짐

- 그 외 헌책방, 편의점, 은행, 카페,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최근에는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로맨스는 별책부록’, ‘뷰티인사이드’, ‘키스 먼저 할까요’ 의 촬영지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임

-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은 화동길 390으로 파주 출판단지 옆에 위치하여 네 동의 큰 건물로 이뤄져 있음. 부지가 넓어 쇼핑 동선은 길지만, 야외 나들이 삼아 돌아보기에 좋고 영화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영상자료원이 A동 왼쪽에 붙어 있고, 명필름 아트센터와도 가까움

10) 통일동산 관광특구

① 헤이리 예술마을

-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5만 평에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여 명의 예술인이 회원으로 참여함.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창작공간, 전시공간, 공연공간, 축제공간, 교육공간, 담론공간, 판매공간, 국제교류공간, 창작 주거공간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공간임. 마을 이름은 파주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따왔음

- 헤이리 예술마을 내에는 한국근현대사박물관, 한립토이뮤지엄, 토티이(Tin Toy)뮤지엄, 세계인형박물관, 북 뮤지엄, 토이 박물관, 헤이리 하늘

광장공원, 통일동산 노을 동산공원, 헤이리 주제광장, 통일동산 달맞이 동산공원 등이 있음

- 2019년 8월에는 헤이리 예술마을 노을공원 내 헤이리 노을 숲길이 조성됨. 약 1km 길이로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를 활용해 폭 2m 이상, 최대 경사도 8% 미만의 완만한 산책로가 조성됨. 정상에서 파주시 명소인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 통일동산, 체인지업 캠퍼스 등을 볼 수 있음

② 오두산 통일전망대

- 1992년 9월 8일 개관하였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오두산은 예로부터 서울과 개성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로 고려 말에 쌓은 산성이 아직도 남아있음

- 산 정상에 세워진 통일전망대는 지상 5층 지하 1층의 석조건물. 해발 140m의 높이에 자리 잡은 원형 전망실에서는 북쪽으로 개성시의 송악산(松嶽山:489m)이 보이고 북한 주민들이 농사짓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두고 온 조상들을 추모하는 망배단, 지름 2m 무게 6백kg의 거대한 통일기원 북, 조만식(曹晩植) 동상 등이 있음

- 2015년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통일 교육문화시설로 탈바꿈하며 어린이 체험관과 기획·상설전시관, 전망대, 카페 겸 전망 라운지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

③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 파주 장단콩을 이용하여 ‘1만 개의 향아리’에 직접 장을 담그고 체험하는 콩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로 경기도 주관 <2015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 일원에 전체 면적 4만8천94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생산 가공동, 판매관리동, 전시 외식동, 체험동, 문화동 등 5개 동 조성을 목표로 2021년 7월에 준공예정임

④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은 탄현면 필승로 200에 위치하여 3층 높이의 유럽풍 건물. 27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프로방스와 근접함

11) DMZ 평화의 길

- 파주 지역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 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과 6월 1일 철원 구간에 이은 ‘평화의 길’ 세 번째 개방으로 2019년 8월 10일 시작됨

- DMZ 평화의 길 파주는 전체 21km로 동선은 임진각~임진강변 생태 탐방로 도보 이동(1.4km)~도라전망대(6.5km)~통문(2.5km)~철거 감시초소(1.8km)~통문(1.8km)~임진각(7km) 구간으로 3시간가량 소요됨

-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1.4km 걸어서

통일대교 입구까지 이동한 후 버스에 탑승해 도라전망대, 철거 감시초소까지 이동하는 경로임

- 주 5일간(월, 목요일 휴무),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1회당 20명씩 운영



그림 15 파주 'DMZ 평화의 길' 노선도

• 노선에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가 있던 곳이 포함됨.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GP 11개를 시범 대상으로 삼아 1개는 보존하고 나머지 10개는 철거함. 지금은 과학화 첨단장비가 경계근무를 대신하고 있음. 노동당사, 협동농장 등 북한 자연마을인 금암골을 선명히 볼 수 있음

• 이번에 개방되는 철거 감시초소(GP)는 군사분계선과 불과 700m 거리로 다른 곳에 비해 가장 가까워서 북한을 볼 수 있음. 전쟁 당시의 피폭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옛 장단면사무소(등록문화재 제76호)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음

- 구 장단면 사무소는 6·25전쟁 전까지 장단지역 행정업무를 관할하던 곳으로 곳곳에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1층짜리 건물로 철원의 노동당사와 함께 6.25 전쟁의 아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임

- 노선 중 도라전망대는 서부전선 최북단에 위치, DMZ 내 남북한 유일 주민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을 볼 수 있으며 건너편으로 판문점도 볼 수 있음. 지금은 멈춰 있지만, 남북한 교류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경의선 철도도 볼 수 있음. 전망대 바로 옆에는 제3땅굴이 있음

- 도라전망대에서는 ‘경기 5악’으로 불리는 북한 개성시에 있는 송악산(해발 489m)을 볼 수 있음. 송악산은 개성시 방향에서 보면 손을 모은 채 누워있는 여인의 형상으로 보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이 바라다보이고, 서울 북한산과 고양 일산,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시가지 일대도 조망할 수 있음

- 참가 희망자는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 누리집 ‘두루누리(www.durunubi.kr)’, 행정안전부 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www.dmz.go.kr)’에 신청함.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

12) 주한 미군 반환 공여 구역

- 현재 관광자원은 아니지만, 미래의 잠재 관광자원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이 있음

- 정전 이후 파주에 대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면서 전통적 농촌사회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조가 변화했음. 문산에 휴전회담 당시 유엔군 대표단 본부가 있었으며 용주골 미군 휴양시설에는 미군방송 AFKN 송출기지,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음. 그중 선유리에 주둔하던 캠프 펠햄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RC #4'에서는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댄스홀, 카지노 등 미국 음식문화, 대중문화, 관광문화를 지역 주민들도 경험할 수 있었음. 1971년 파주읍의 11개 읍과 면에 모두 기지촌이 있었으며 등록된 관광업소 74곳 중 20곳이 용주골에서 운영되었음

- 1963년 닉슨 대통령의 괄목할만한 선언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1971년 문산 미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면서 파주의 기지촌이 쇠락하였고, 1980년대 파주의 미군기지는 절반으로 감소했음



표 15. 경기도 주한 미군 반환 공여 구역 개발 현황(자료: 경기연구원)

- 파주 미군기지 반환 및 폐쇄는 1991년 파평산 관제소 반환, 2004년 캠프 게리 오언, 캠프 그리브스, 캠프 자이언트, 캠프 기티오크(구 리버티 벨

기지/보나파스 동쪽 기지), 캠프 펠렘(휴전협정에 의한 중립국 감독 위원회 의 스위스, 스웨덴 국제 연합 평화유지군 기지, 구 리버티 벨 기지/보나파스 동쪽 기지) 반환, 같은 해 캠프 스탠턴과 캠프 에드워즈 폐쇄, 2006년 캠프 하우스 반환, 2007년 캠프 블록 반환으로 진행됨

-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개발 현황을 보면 동두천 6곳, 의정부 8곳, 화성 1곳, 하남 1곳이며 파주는 6곳으로 캠프 그리브스, 캠프 하우스, 캠프 자이언트, 캠프 스탠턴, 캠프 에드워즈, 캠프 게리 오언이 해당함
- 캠프 그리브스와 같은 맥락으로 다른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은 관광 자원화를 위한 잠재적 요소가 높음

5. 판문점 관광과 연계 관광 상품 분석

1) 유엔사 선정 4개 전담여행사 상품 분석

(1) 국제문화서비스클럽

㉔ 판문점 관광(외국인 일반 투어/VIP 투어)

시간	08:00~14:5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95,000원
코스	수속(여권과 복장 확인)→이동(자유로)/이동 간 DMZ 전문통역안내 사에 의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수반됨→ 통일대교 검문/검색 후 통과, JSA 경비부대 캠프 보나파스 도착→ JSA 슬라이드 브리핑→JSA 경내관광(유엔사령부 전방 기지-자유 의 집-본 회담장-남북정상회담 장소인 도보다리, 기념 식수 장소)→임진각 자유의 다리 관람 후 중식 장소로 이동→중식→서울로 이동/

	도착 후 해산
포함사항	왕복교통비, DMZ 전문가이드 비용, 중식비 등 일체 포함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5~7인 : 900,000원 8인~ : 900,000원 1인당 100,000원씩 추가
코스	출발 및 이동(원하는 장소에서 출발)→이동 중 DMZ 전문통역안내 사에 의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수반됨→ 통일대교 검문/검색 후 통과, JSA 경비부대 캠프 보니파스 도착→ JSA 슬라이드 브리핑→JSA 경내관광(유엔사령부 전방 기지-자유의 집-본 회담장-남북정상회담 장소인 도보다리, 기념 식수 장소)→임진각 자유의 다리 관람 후 중식 장소로 이동→중식(불고기 정식) →이동(자유로)/원하는 장소에서 해산
포함사항	차량, DMZ 전문가이드, 식사, 입장료 등 모든 비용 포함

㉞ DMZ 제3땅굴 투어(외국인 일반 투어)

시간	08:10~14:5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65,000원/어린이 48,000원
코스	프레지던트호텔 출발 3층 TOUR DMZ→임진각으로 이동(자유로)→ 임진각 자유의 다리 관광→모노레일 이용, 제3땅굴 내부 관광 & DMZ 영상관 및 전시관 관광→도라전망대 관광→도라산역→중식 장소로 이동→중식(불고기 정식)→서울로 이동(자유로)→호텔 Drop
포함사항	왕복교통비, DMZ 전문안내비용, 중식비, 일정상 입장료, 모노레일 이용료 등 일체 포함

㉟ DMZ 철책선 투어(외국인 일반 투어)

시간	07:50~15:0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70,000원/어린이 58,000원
코스	수속(프레지던트호텔 출발 3층 TOUR DMZ 데스크)→출발→임진각 자유의 다리→군 검문소 통과→무장공비 침투로(1.21 침투로)→송전 전망대(OP)에서 군인 브리핑 및 남방한계선 및 북한 관측소 조망→철책선 걷기→적군 묘지(북한군과 중공군 유해 안장)→점심 →서울로 출발/프레지던트 호텔 도착
포함사항	투어 비에는 차량비, 안내비, 식비, 입장료 포함

㊱ 제3땅굴 & 판문점(JSA)(외국인 동시 투어)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학생 단체 또는 일반인 단체에 한해 35명 이상 진행

비용	별도문의
코스	승전 OP→경순왕릉→1.21 침투로→적군묘지→마장 호수 출렁다리 →헤이리 마을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㉔ 내국인 단체관광(철책선 관광/제3땅굴 관광)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일반인(대학생 포함):48,000원/초, 중고등학생:45,000원(만18세까지)
코스	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임진각 자유의 다리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㉕ 그 밖의 DMZ투어(강화 평화전망대/통일전망대)

시간	08:10~14:5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성인:65,000원/어린이(12세까지):50,000원/만2세(24개월 이하):무료
코스	프레지던트 호텔 3층 TOUR DMZ 데스크 수속 후 출발→강화 평 화전망대→참전용사 기념공원→임진각으로 출발→임진각공원, 자 유의 다리, 아트스페이스 BEAT 131(군사시설 지하 벙커 전시관)→ 점심→서울로 출발→프레지던트 호텔
포함사항	왕복교통비, DMZ 전문 안내비, 중식비, 입장료

시간	07:50~14:5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성인:65,000원/어린이(12세까지):50,000원/만2세(24개월 이하):무료
코스	프레지던트 호텔 3층 TOUR DMZ 데스크 수속 후 출발→오두산 통일전망대→임진각으로 출발→임진각, 자유의 다리, 망배단→점심 →서울로 출발→용산 전쟁기념관→프레지던트 호텔
포함사항	왕복교통비, DMZ 전문 안내비, 중식비, 입장료

- 판문점, 제3땅굴, 철책선, 경순왕릉, 강화평화 전망대, 임진각 등 파주 및 강화 지역의 DMZ투어를 다양하게 분류한 상품이 마련됨. 특히 철책선 관광이나 서울의 용산 전쟁기념관 관광 등 다양하게 연계됨

(2) 대한여행사

㉖ 판문점 & DMZ 동시 투어

시간	08:00~16:30
최소인원	1명
비용	140,000원
코스	프레지던트호텔 10층 KTB TOUR 사무실 집합→프레지던트 호텔 출발→통일대교 검문소(민간인 통제구역)→보니파스 캠프/브리핑 JSA(공동경비구역관광)→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전망대초소, UN 회담장→통일대교 통과→점심(불고기 또는 비빔밥)→임진각공원, 자유의 다리,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제3터널 관광→서울로 출발/프레지던트 호텔 도착
포함사항	교통비, 가이드 안내비, 식대, 입장료

㉞ 판문점 관광

시간	08:50~14:30
최소인원	1명
비용	95,000원
코스	프레지던트호텔 10층 KTB TOUR 사무실 집합→프레지던트 호텔 출발→통일대교 검문소(민간인 통제구역)→보니파스 캠프/브리핑 JSA(공동경비구역관광)→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전망대초소, UN 회담장→통일대교 통과→점심(불고기 또는 비빔밥)→서울로 출발→전쟁박물관 정차(희망자 자유 관광 및 해산)→프레지던트 호텔 도착
포함사항	교통비, 가이드 안내비, 식대, 입장료

㉟ DMZ와 제3터널

시간	08:00~14:30
최소인원	1명
비용	65,000원
코스	프레지던트호텔 10층 KTB TOUR 사무실 집합→프레지던트 호텔 출발→자유로→임진각공원→자유의 다리→제3터널→도라전망대→망배단→점심(불고기 또는 비빔밥)→서울로 출발/프레지던트 호텔 도착
포함사항	교통비, 가이드 안내비, 식대, 입장료

㊱ DMZ & 프로방스 마을 관광

시간	8시간
최소인원	4명
비용	65,000원
코스	프레지던트호텔 10층 KTB TOUR 사무실 집합→홍대 지하철역 3번 출구 픽업 가능→임진각공원→자유의 다리→제3땅굴 견학→도라전망대→도라산역→프로방스 마을에서 점심(갈비 정식 또는 채

	소 비빔밥 떡갈비 한정식)→자유시간(유기농 빵, 생활용품, 패션, 신, 예술, 기념품관 등...)→서울로 출발/프레지던트 호텔 도착
포함사항	교통비, 가이드 안내비, 식대, 입장료

- DMZ투어를 핵심관광 4가지로 분류했고, DMZ와 프로방스 마을 관광 상품을 통해 무겁지 않고 가볍게 관광할 수 있는 상품도 제시함. 파주에서만 진행되는 DMZ 상품임

- 식단에 대한 소개가 상세하며 참가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편임

(3) 중앙고속

㉠ 제3땅굴 견학

시간	08:10~14:50
최소인원	1명
비용	65,000원
코스	프레지던트호텔 7층 중앙고속관광 집합→프레지던트 호텔 출발→임진각 매표소 도착→임진각 출발→제3땅굴 관람(엘리베이터 탑승)→도라전망대 관람→도라산역 관람→통일촌 관람(차창관람)→임진각에서 중식(불고기 정식)→프레지던트/롯데 호텔 도착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 판문점+땅굴 견학

시간	08:10~16:30
최소인원	1명
비용	140,000원
코스	프레지던트호텔 7층 중앙고속관광 집합→프레지던트 호텔 출발→통일대교 통과→UN 캠프 보니파스 도착→UN 안보 견학장에서 판문점 설명회→판문점 견학→통일대교 통과→임진각공원 도착→중식→DMZ, 제3땅굴 관람→도라전망대 관람→도라산역 관람→서울로 출발→프레지던트/롯데 호텔 도착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㉔ 월요 스페셜 제2땅굴 투어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5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프레지던트호텔 7층 중앙고속관광 집합→한탄강 관리사업소에서 출입 신청→한탄강 관리사업소 출발, 제2터널 도착→제2터널 견학→2터널 출발, 월정리역 도착→월정리역, 철원평화 전망대 견학→노동당사 견학→중식→서울로 출발→프레지던트/롯데 호텔 도착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㉕ DMZ 및 군부대 체험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100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각 호텔 출발→임진각 도착 및 행사→비무장지대 견학→군부대 중식/개방행사→장비/전시관/생활관 견학→군악 연주/특공무술시범/사진 촬영 진행→복귀(각 국가 및 호텔별)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㉖ 평화 역사 투어(강화도)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10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프레지던트 호텔 집합→출발→강화 평화전망대→6.25 참전 용사 기념공원→중식→전등사→서울로 출발→프레지던트 호텔 해산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㉗ 비무장 평화지대관광(남북 비무장 평화지대와 두타연 트레킹 투어/남북 비무장 평화지대와 파주 트레킹 투어/역사적인 한국전쟁의 접경지역 투어 /철원 비무장 평화지대 투어/DMZ 평화지대 및 힐링 피트니스 투어)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5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프레지던트 호텔 출발→임진각공원→DMZ 평화지대(제3터널, 도라 전망대, 도라산역)→중식(불고기)→서울 도착→힐링 체력단련 수업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5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 픽업→두타연 출입사무소→두타연 트레킹→중식(비빔밥)→비

포함사항	무장 평화지대(4터널, 을지전망대, 양구 전쟁박물관)→서울 기재되어있지 않음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5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 픽업→한탄강 관리사업소 출입 신청→비무장 평화지대(제2터널, 월정리역, 철원 평화전망대, 노동당사)→중식(불고기)→서울 드롭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5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 픽업→전쟁박물관→중식(불고기)→판문점(캠프 보니파스,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 자유의 집, 도끼만행사건 현장, 돌아오지 않는 다리)→서울 드롭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시간	기재되어있지 않음
최소인원	5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 픽업→감악산 트레킹→황포돛배→중식(불고기)→비무장 평화지대(제3터널, 도라전망대, 도라산역)→드롭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 파주 DMZ관광이 불가능한 월요일을 활용해 다른 지역의 DMZ 관광과 연계한 상품 및 비무장 평화지대와 트래킹, 힐링 피트니스라는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제시함

- ‘DMZ 및 군부대 체험’ 상품은 실제로 군부대 중식 및 생활관 개방 등을 통해 현실감을 높인 상품을 제시함

(4) 판문점 트래블러

① 탈북자와 함께 하는 프리미엄 판문점 투어

시간	08:30~16:30
----	-------------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100,000원
코스	수속 및 여권 체크(코리아나 호텔 사무동 빌딩 803호)→자유로 이동, 오두산 통일전망대 도착→통일관 관람 후 탈북자와의 특별한 시간(비디오 감상: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통일 주제의 영상 시청, 탈북자 강연, 북한 궁금증 질의응답, 필요하다면 소공연 병행:50명 이상)→임진각 도착 후 관광→중식 후 통일대교로 이동→통일대교에서 여권 체크 후 캠프 보니파스 도착→슬라이드 브리핑→공동경비구역으로 이동, JSA 경내 관광(자유의 집, 본 회담장)→서울 도착 후 코리아나 호텔 해산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㉑ JSA와 남침용 땅굴 동시(콤바인) 투어

시간	07:30~17:3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140,000원
코스	수속 및 여권 체크(코리아나 호텔 사무동 빌딩 803호)→자유로 이동, 임진각 도착→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관광(인원이 적으면 셔틀로 갈아타서 진행)→임진각 도착 후 관광→중식 후 통일대교로 이동→통일대교에서 여권 체크 후 캠프 보니파스 도착→슬라이드 브리핑→공동경비구역으로 이동, JSA 경내 관광(자유의 집, 본 회담장)→서울 도착 후 코리아나 호텔 해산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㉒ ONE KOREA Special tour

시간	07:40~16:00
최소인원	15명
비용	85,000원
코스	여권 수속(코리아나 호텔 8F PTC 투어 데스크)→자유로(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땅의 자유 갈망)를 경유, 임진각 도착 후 관광→임진각, 비무장지대 내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관광→중식(불고기 정식 또는 비빔밥 중 택1)→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탈북자와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비디오 상영:한반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통일, 탈북자 강연, 탈북자 소공연 : 50명 이상, 질의응답 및 전시실 관람)→서울 도착 후 코리아나 호텔 해산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㉓ ONE KOREA 백학/제1땅굴

시간	08:15~17:30
----	-------------

최소인원	15명
비용	85,000원
코스	수속 및 여권 체크(코리아나 호텔 사무동 빌딩 8층)→자유로, 백학면사무소 도착→백학면 사무소에서 (또는 지정기관 강당에서) 접경지역 설명 청취,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통일” 주제의 영상시청, 탈북자 약식강연 및 질의응답, 탈북 예술인 공연:50명 이상→중식(불고기 현지식)→현지 주민의 안내를 받아 최 접경지역 마을 주민 생활상 체험(인삼 캐기 등 인삼 투어 병행)→제1호 땅굴 방문(상승 OP) 및 군 장병에 의한 브리핑 청취/기념사진 촬영(비무장지대 내의 삼엄한 대치 상황과 최초로 발견된 제1땅굴 조망)→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릉” 방문→서울 이동 및 도착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 서울 근교 제3호 남침용 땅굴

시간	07:30~14:0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65,000원
코스	여권 수속(코리아나 호텔 8F PTC 투어 데스크)→임진각 도착 후 관광(자유로 경유)→제3땅굴 견학→도라전망대 견학→경의선 최북단 역 도라산역 관광→중식→서울 도착 및 해산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 탈북자로부터 북한 생활 및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어 관광 및 상품의 품질이 상승함
- 주민 생활상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삼 캐기 등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체험 가능한 상품을 제시함
- 50인 이상의 경우 원하면 탈북자 소공연을 준비해줌

2) 판문점 또는 DMZ 관련 10개 여행사 29개 상품 분석

(1) 코스모진

㉔ 새터민과 함께 하는 DMZ 오전 투어

시간	08:00~14:3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65,000원
코스	호텔→새터민 질의응답→임진각 통일대교→여권 및 신분증 검사→DMZ 영상관 및 전시관→제3터널→도라전망대→도라산역→자수정 혹은 인삼센터→명동 샌딩
포함사항	전문가이드, 새터민 코디네이터, 차량과 기사, 입장료, 픽업 서비스
픽업&샌딩	1. 서울 시내 사대문 기준으로 픽업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객이 투숙하는 호텔에서 픽업. 투어 종료 후 호텔로 샌딩 서비스를 원하면 1인당 20,000원의 서비스 요금이 발생. (서울 사대문 기준) 2. 교통 정체 시 픽업 및 샌딩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음. 3. 반일 단체 패키지 투어의 경우 명동에서 내려줄 수 있음. *당일 교통상황에 따라 종료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㉕ 오전 DMZ 풀 패키지 투어

시간	08:00~14:30/11:00~18:0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오전 55,000원/오후 66,000원
코스	호텔→임진각→통일대교→여권 및 신분증 검사→DMZ 영상관 및 전시관→제3터널→도라전망대→도라산역→자수정 혹은 인삼센터→명동 샌딩
포함사항	전문가이드, 차량과 기사, 입장료, 픽업&샌딩 서비스, 중식(돌솥비빔밥, 음료 불포함)
픽업&샌딩	1. 서울 시내 사대문 기준으로 픽업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객이 투숙하는 호텔에서 픽업. 투어 종료 후 호텔로 샌딩 서비스를 원하면 1인당 20,000원의 서비스 요금이 발생. (서울 사대문 기준) 2. 차량 정체 시 픽업 및 샌딩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음. 3. 반일 단체 패키지 투어의 경우 명동에서 하차 가능. *당일 교통상황에 따라 종료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㉖ DMZ 투어 오전/오후

시간	08:00~15:3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75,000원
코스	호텔→임진각→통일대교→여권 및 신분증 검사→DMZ 영상관 및 전시관→제3터널→도라전망대→도라산역→자수정 혹은 인삼센터→중식(비빔밥)→호텔
포함사항	전문가이드, 차량과 기사, 입장료, 픽업&샌딩 서비스, 중식(돌솥비빔밥, 음료 불포함)

픽업&샌딩	1. 서울 시내 사대문 기준으로 픽업 및 샌딩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객이 투숙하는 호텔에서 픽업 및 샌딩이 이루어짐. 2. 교통 정체 시 픽업 및 샌딩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음.
-------	--

㉔ DMZ+중식+경복궁 관광

시간	08:00~18:0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2명
비용	119,000원
코스	호텔→임진각→통일대교→여권 및 신분증 검사→DMZ 영상관 및 전시관→제3터널→도라전망대→도라산역→자수정 혹은 인삼센터→중식(비빔밥)→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인사동→호텔
포함사항	전문가이드, 차량과 기사, 입장료, 픽업&샌딩 서비스, 중식(돌솥비빔밥, 음료 불포함)
픽업&샌딩	1. 서울 시내 사대문 기준으로 픽업 및 샌딩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객이 투숙하는 호텔에서 픽업 및 샌딩. 2. 교통 정체 시 픽업 및 샌딩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음.

• 당일 혹은 오전/오후 타임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광할 수 있음. ‘새터민 질의응답’ 상품을 통해 현실적인 현장의 느낌을 체험할 수 있음. JSA 투어는 불포함

• 파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상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DMZ를 제외한 파주 내에 있는 관광지와 식당을 이용해야 함

(2) 동이 투어

㉕ DMZ 투어

시간	08:00~18:0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5명
비용	105,000원
코스	호텔 픽업→전쟁박물관→임진각→중식→통일대교 여권 및 신분증 검사→DMZ 영상관 및 전시관→제3터널→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마을 경유→인삼 전시장 및 자수정 센터→해산 명동/시청
포함사항	전문가이드, 차량(그랜드 스타렉스) 및 기사, 픽업 및 샌딩 서비스, 입장료, 중식

픽업&샌딩	투숙호텔에서 픽업하며, 샌딩은 명동 또는 시청으로 진행됨. (지정장소 외 호텔 등 별도의 샌딩 서비스는 10,000원의 추가 요금이 과금)
-------	--

⑥ JSA+DMZ 투어

시간	08:00~18:0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3명
비용	135,000원
코스	호텔 픽업→임진각→통일대교 여권 및 신분증 검사→제3터널→도라전망대→도라산역→중식→임진각→Camp Bonifas 신분증 검사→JVC(방문자센터)/안전규정 서약 및 브리핑→차량 이동(판문점/JSA)→군사 정전회의실→제3초소→도끼만행사건 현장→돌아오지 않는 다리→인삼 전시장 및 자수정 센터→해산 명동/시청
포함사항	전문가이드, 차량과 기사, 픽업 및 샌딩 서비스, 입장료, 중식(비빔밥 or 불고기)
픽업&샌딩	투숙호텔에서 픽업하며, 샌딩은 명동 또는 시청으로 진행됨. (지정장소 외 호텔 등 별도의 샌딩 서비스는 10,000원의 추가 요금 발생)

- DMZ투어 상품과 DMZ+JSA 상품으로 분류되어 구성되어 있음. 당일 상품으로만 구성

- 홈페이지에 'DMZ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한국전쟁과 남북 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3) WE MAKE H

④ DMZ & 판문점(JSA) 투어

시간	08:10~18:0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 픽업→임진각→통일대교→DMZ 영상관과 전시관→평화의 다

	리→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임진각→점심→캠프 보니파스→JSA 경내관광→서울 복귀
포함사항	투어 가이드 영어/중국어/일어(기타 언어 별도문의), 차량(기사, 주유비, 종합보험 등 포함), 입장료

- DMZ 관련 단일상품으로 게시되어있고, 별도 문의를 통해 행사 일정 조정 가능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에 따른 가이드가 있음
- 상품에 대한 소개 및 관광지 정보가 매우 부족. 한눈에 볼 수 없는 정보가 없고 별도 문의하여야만 금액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불편함

(4) 금천여행사

㉠ DMZ 투어(노 쇼핑)

시간	08:00~14:00/11:00~17:0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5명
비용	88,000
코스	시청역 부근 출발→임진각 & 자유의 다리→제3땅굴→DMZ 영상관과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명동/시청 도착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 고품격 DMZ투어

시간	08:30~15:30/10:00~17:00(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 출발(서울 소재)→임진각 & 자유의 다리→도라산역→제3땅굴 & DMZ 영상관과 전시관→도라전망대→통일촌→점심→호텔 도착(서울 소재) 호텔 출발(서울 소재)→점심 식사→임진각 & 자유의 다리→도라산역→제3땅굴→DMZ 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통일촌→호텔

	도착(서울 소재)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 매일 출발 DMZ 투어(최저가)

시간	08:00 출발/11:00 출발(월요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55,000/66,000
코스	시청역 부근 출발→임진각 & 자유의 다리→제3땅굴→DMZ 영상관과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쇼핑센터→명동/시청 도착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 쇼핑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품과 쇼핑이 포함되고 저렴한 상품 등 여행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JSA 투어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 포함사항 및 기타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음. 상품별 금액이나 포함/불포함 사항을 기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 당일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5) 플랜스

㉠ DMZ투어

시간	08:00~14:00/12:00~18:0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임진각→통일대교→신분확인→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임진각→호텔 종료
포함사항	영어/중국어/일어 가이드(기타 언어 별도문의), 차량, 입장료

㉞ DMZ+경복궁

시간	08:00~17:0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임진각→통일대교→신분확인→DMZ 영상관 및 전시관→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임진각→서울 이동→중식→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호텔 샌딩 및 투어 종료
포함사항	영어/중국어/일어 가이드(기타 언어 별도문의), 차량, 입장료, 중식

㉟ DMZ+MBC 월드

시간	08:00~17:0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기재되어있지 않음
코스	호텔→임진각→통일대교→신분확인→DMZ 영상관 및 전시관→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임진각→중식(강강술래)→MBC 월드 테마파크→홍대거리→호텔 샌딩 및 투어 종료
포함사항	영어/중국어/일어 가이드(기타 언어 별도문의), 차량, 입장료, 중식

- 코스 구성이 DMZ 상품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코스와 연계됨. JSA 투어는 불포함
- 다양한 언어의 가이드가 있음
- 최소인원과 비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므로 최소인원과 정확한 비용이 기재되어야 함

(6) 한국 투어 캠프

㉠ DMZ 투어

시간	08:00~14:00
최소인원	1명
비용	65,000원~
코스	서울 출발→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견학 후→제3땅굴(DMZ 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DMZ 토산품)→명동과

	시청 종료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투어 출발장소 안내 및 준비사항	1. 명동 롯데 호텔 출발 2. 미팅 장소:가이드 미팅 장소는 명동 롯데 호텔(로비)로 지정시간에 각자 집합/예약 시 확인 요망(당일 출발시각에 각자 집합 또는 서울 시내 호텔이면 픽업 가능/문의 요망) 3. 출발장소:명동 롯데 호텔(본관 1층 로비 집합)/08:00 정시출발

㉞ 판문점 투어

시간	08:50~14:30
최소인원	1명
비용	100,000원~
코스	서울 출발→검문소(본인 확인/여권 지참)→보니파스 캠프 도착(슬라이드 브리핑)→ DMZ 견학→판문점(JSA) 견학→서울 도착 14:30 (명동 롯데 호텔 하차)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투어 출발장소 안내 및 준비사항	1. 출발일시:매일(월요일 제외) 2. 미팅 장소:가이드 미팅 장소는 명동 롯데 호텔(로비)로 지정시간에 각자 집합/예약 시 확인 요망(당일 출발시각에 각자 집합 또는 서울 시내 호텔이면 픽업 가능/문의 요망) 3. 출발장소:명동 롯데 호텔(본관 1층 로비 집합)/08:00 정시출발

㉟ 병영체험 캠프 투어

시간	09:00~16:00
최소인원	1명
비용	40,000원~
코스	명동 롯데 호텔 출발→DMZ 견학 및 철책선 걷기→병영체험장→군부대 견학(변경 가능)→서바이벌 게임→명동 롯데 호텔 해산
포함사항	기재되어있지 않음
투어 출발장소 안내 및 준비사항	1. 출발일시:매일(월요일 제외) 2. 미팅 장소:가이드 미팅 장소는 명동 롯데 호텔(로비)로 지정시간에 각자 집합/예약 시 확인 요망(당일 출발시각에 각자 집합 또는 서울 시내 호텔이면 픽업 가능/문의 요망) 3. 출발장소:명동 롯데 호텔(본관 1층 로비 집합)/08:00 정시출발

- 서바이벌 게임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
- DMZ 상품, 판문점 상품, 체험 상품으로 분리되어 있음

(7) 리모 투어

㉠ JSA+DMZ combined Tour

시간	08:00~17:30(월요일, 국경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157,000원
코스	호텔→임진각→통일대교→JSA(캠프 보니파스에서 브리핑,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군사 정전기념관 회의실)→임진각공원→통일대교(여권 및 신분증 확인)→제3터널→DMZ 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경유) 인삼센터→명동
포함사항	관광 가이드, 차량 및 기사, 입장료, 픽업 & 샌딩 서비스, 주유비, 통행료, 주차요금, 여행자보험

㉡ DMZ & Palace Tour

시간	08:00~17:30(월요일, 국경일 제외)
최소인원	2명
비용	110,000원
코스	호텔→임진각공원→통일대교→제3터널→DMZ 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경유)→인삼센터→점심→경복궁(목요일에는 창덕궁)→명동
포함사항	관광안내자, 차량 및 기사, 입장료, 픽업 & 샌딩 서비스, 주유비, 통행료, 주차요금, 여행자 보험

㉢ DMZ 오후 투어

시간	11:00~17:30(월요일, 국경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65,000원
코스	호텔→임진각공원→통일대교(신분확인)→제3터널→DMZ 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경유)→인삼센터→명동
포함사항	관광 가이드, 차량 및 기사, 입장료, 픽업 & 샌딩 서비스, 주유비, 통행료, 주차요금, 여행자보험

㉣ DMZ 아침 투어 & 점심

시간	08:00~15:30(월요일, 국경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65,000원
코스	호텔→임진각공원→통일대교(신분확인)→제3터널→DMZ 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경유)→인삼센터→점심→명

	등
포함사항	관광 가이드, 차량 및 기사, 입장료, 픽업 & 샌딩 서비스, 주유비, 통행료, 주차요금, 여행자보험

㉔ DMZ 아침 투어

시간	08:00~15:30(월요일, 국경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65,000원
코스	호텔→임진각 평화누리공원→통일대교(신분확인)→제3터널→DMZ 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경유)→인삼센터→점심→명동 종료
포함사항	영어 가이드, 기사 및 관광 가이드, 도로 통행료·주차비, 차량 통행료 및 보험료 포함.

- 시간대별 상품들로 분류되어있지만, 당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8) 힐링 투어 라인

㉕ DMZ 안보여행 & 파주 출렁다리

시간	08:00~15:30(월요일, 국경일 제외)
최소인원	1명
비용	35,900원
코스	미팅→제3땅굴(모노레일/도보 관람)→도라전망대→도라산역→파주 프로방스 마을 & 자유 중식→마장 호수 출렁다리→서울 종료
포함사항	왕복 버스비, 기사 비, 가이드 비, 도로비, 봉사료, 차량 보험, 도라산역 승차장 입장권, DMZ 관광비용(제3땅굴 모노레일)

- DMZ 관광 코스를 최소화하고 인근의 관광지를 포함함. 당일 상품임
- DMZ투어 일정이 최소화되어 있어 여행객에게 DMZ투어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듦. 투어 시간을 늘리거나 안보관광에 의미 부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9) VIP TRAVEL

㉑ 비무장지대(DMZ TOUR) 반일 관광

시간	6시간 소요
최소인원	1~2명
비용	55,000원
코스	호텔→임진각→자유의 다리→제3땅굴→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 경유→시청 혹은 이태원 해산.
포함사항	가이드, 차량 및 입장료 포함

㉒ DMZ+판문점(JSA) 전일 관광

시간	9시간 소요
최소인원	1명
비용	140,000원
코스	호텔→임진각→자유의 다리→제3땅굴/영상관 및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 경유→중식→임진각→여권 체크→캠프 보니파스→슬라이드 브리핑 및 신원확인→공동경비구역 이동→ JSA(자유의 집, 본 회담장, 제3초소 등)→프레지던트 호텔 또는 코리아나 호텔 도착 후 개인 해산
포함사항	가이드, 차량, 중식 및 입장료 포함

㉓ Military Demarcation Line Tour

시간	6시간 소요
최소인원	1~2명
비용	55,000원
코스	호텔 픽업→임진각(망배단, 자유의 다리, 평화의 종, 독개다리, 지하 벙커 전시관)→오두산 통일전망대(북한 생명박물관)→전쟁박물관(한국전쟁 박물관)→시청/이태원
포함사항	가이드, 차량 및 입장료 포함

㉔ 판문점(JSA) 관광

시간	8시간 소요
최소인원	1명
비용	100,000원
코스	프레지던트 호텔 또는 코리아나 호텔 출발→임진각→중식→여권 체크→캠프 보니파스→슬라이드 브리핑 및 신원확인→공동경비구역 이동→JSA(자유의 집, 본 회담장, 제3초소 등)→프레지던트 호

	텔 또는 코리아나 호텔 도착(개인 해산)
포함사항	가이드, 차량, 중식 및 입장료 포함

- 다른 여행사의 기존 상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음
- 상품별로 일정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 여행객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10) Seoul City Tour

㉠ DMZ TOUR 1 - 제3땅굴 관광

시간	㉠08:00~14:30/㉡08:00~15:00/㉢11:00~18:00/㉣08:00~16:30
최소인원	㉠1/㉡1/㉢3/㉣1
비용	㉠46,000원/㉡55,000원/㉢55,000원/㉣65,000원
코스	㉠,㉢)호텔→임진각공원→자유의 다리→제3땅굴→DMZ 영상관과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 마을(차창관광)→인삼 전시장 또는 면세점→시청 해산 ㉡)상기 코스와 동일+중식 ㉣)호텔→상기 코스 동일→중식→인사동→호텔

㉡ DMZ TOUR 2 - 전일 DMZ 투어(오전 9시 출발, 노 쇼핑)

시간	09:00~17:00
최소인원	1명
비용	65,000원
코스	집합 장소→오두산 전망대→임진각공원→자유의 다리→제3땅굴→DMZ 영상관과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 마을(차창관광)→인삼 전시장 또는 면세점→시청 해산

㉢ DMZ TOUR 3 - 제3땅굴+판문점(JSA) 관광

시간	08:00~17:00
최소인원	1명
비용	160,000원
코스	호텔→임진각공원→자유의 다리→제3터널→DMZ 영상관과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 마을(차창관광)→중식→UN 캠프

	보니파스→평화의 집→자유의 집→판문점→군사 정전위원회회의장 →방문객용 전망대→돌아오지 않는 다리→도끼만행사건 장소→프레지던트 또는 코리아나 호텔
--	---

- 시간대별, 코스별, 상품별로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음
- 상세한 포함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3) 기존 상품 현황 분석

- 대부분 상품이 당일 혹은 파트 타임으로 구성됨. 파주의 숙박업소나 음식점 및 관광지를 방문하지 않아 관광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당일 혹은 시간제 상품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 이는 다시 당일과 파트 타임 상품을 짜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선호하는 여행객들에게 매력요소가 될 수 있고 외국인들에게 더 자세히 알고 싶고 호기심이 자극될 수 있는 관광 자원이지만, 자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임
-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역사에 관심 없어 단순히 서울 경기 관광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흥미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재미 요소’가 부족함
- DMZ 파주 안보관광 시 임진각에서 제3땅굴, 제3땅굴에서 도라전망대, 도라전망대에서 도라산역까지 차량으로 이동 시 탑승과 하차를 반복해 피로감이 높아지고, 관광 흐름이 끊김

- 앞서 나열된 관광 상품을 보면 파주의 이미지가 ‘안보관광’에 치우쳐져 있음. 주변에 다양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지만 특색있는 관광 상품으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파주의 관광 이미지가 분산됨

4) 파주시청 홈페이지 여행상품

㉠ [1박 2일] 평화의 길 여행

시간	09:30-다음날 15:4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51,500원
코스	합정역/문산역 출발→임진각 관광지→‘도라산 식당’으로 이동하여 중식→제3땅굴/DMZ 영상관과 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군내면 부녀회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숙박] 캠프 그리브스→VIEW티플 그리브스(건축 및 전시 투어)
	캠프 그리브스에서 조식→태양의 후에 체험→도라산 평화공원→통일촌 장단콩마을에서 중식→허준 묘→문산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과 저녁은 별도 부담)

㉡ [1박 2일] 감성 폭발 힐링 여행

시간	09:30-다음날 15:5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77,000원
코스	합정역/문산역 출발→임진각 황포돛배→‘두지리 매운탕’으로 이동하여 중식→쇠꼰마을→파주 이이 유적지→동화 힐링캠프에서 저녁→[숙박] 위즈호텔
	위즈호텔에서 조식→울곡수목원→두루뫼박물관→고구려목장→산머루농원→문산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과 저녁은 별도 부담)

© [1박 2일] 역사의 발자취 여행

시간	09:30-다음날 17:4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73,000원
코스	합정역/금촌역 출발→오두산 통일전망대→파주 맛고을→송영예의 바늘이야기→파주 장릉→로빈의 숲→'로빈의 숲'에서 석식→[숙박] 흥원연수원 흥원연수원에서 조식→파주삼릉→윤관장군 묘→용미리 마애이불입상→문산사거리에서 중식→반구정과 황희 선생 유적지→볼거리 나라→문산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과 저녁은 별도 부담)

④ [1박 2일] 예술의 향연! 파주 만나기 여행

시간	09:30-다음날 17:5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76,000원
코스	합정역/운정역 출발→마장 호수 흔들다리→보광사에서 중식→벽초지문화수목원→퍼스트 가든→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석식→[숙박] 시에나 호텔 시에나호텔에서 조식→치즈 클락→공릉관광지→프로방스/파주 맛고을에서 중식→오두산 통일전망대→우농 타조 공장→운정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과 저녁은 별도 부담)

© 우아한 힐링 여행

시간	18:30-다음날 17:3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64,000원
코스	합정역/금촌역 출발→헤이리 예술마을→프로방스→[숙박] 시에나 호텔 시에나호텔에서 조식→마장 호수와 흔들다리→보광사/토속음식 마을 도착→벽초지문화수목원→금촌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과 저녁은 별도 부담)

㉑ DMZ 별빛 여행

시간	18:30-다음날 17:3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73,000원
코스	합정역/운정역 출발→퍼스트 가든→[숙박] 위즈호텔 위즈호텔에서 조식→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에서 중식→허준 묘→해마루촌 동의보감 차 체험→운정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과 저녁은 별도 부담)

㉒ [월요일] 경기 유망관광 10선 여행

시간	09:30~17:3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17,000원
코스	합정역/운정역 출발→파주출판단지(나만의 책 만들기 체험)→더 브래드 36.5°에서 중식→벽초지문화수목원→마장 호수 흔들다리→운정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은 별도 부담)

㉓ [화요일] DMZ & 황포돛배

시간	09:30~17:4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15,000원
코스	합정역/문산역 출발→제3땅굴/DMZ 영상관 관람→'도라산 식당'으로 이동하여 중식→도라산역→도라전망대→임진강 황포돛배→문산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은 별도 부담)

㉔ [수요일] 젊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행

시간	09:30~17:0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27,000원
코스	합정역/문산역 출발→고구려목장→'수우원 농원'으로 이동하여 중식→DMZ 천년 꽃차→칠중성/적성향교 탐방→문산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은 별도 부담)

㉔ [목요일] 매력 힐링 여행

시간	09:30~18:3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23,000원
코스	합정역/금촌역 출발→소울원→파주 맛고을→'용궁갈국수'에서 중식 →마장 호수 흔들다리→꽃재 체험농원→퍼스트 가든→금촌역/합정 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은 별도 부 담)

① [금요일] 동물과의 교감 여행

시간	09:30~16:5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38,000원
코스	합정역/운정역 출발→송영예의 바늘이야기→프로방스/파주 맛고을 에서 중식→모산목장→우농 타조농장 도착→치즈 클락 도착→운정 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은 별도 부 담)

㉕ [토요일] 자연 속 청정여행

시간	09:30~17:1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28,000원
코스	합정역/문산역 출발→임진각 관광지→파주 이이 유적지→'농부네 두붓집'에서 중식→감악산 출렁다리→산머루 마을→산머루농원→ 문산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은 별도 부 담)

㉖ [일요일] 추억소환 파주여행

시간	09:30~16:50
최소인원	기재되어있지 않음
비용	36,000원
코스	합정역/금촌역 출발→헤이리 예술마을(근현대사박물관)→더 브래드 36.5°→볼거리 나라→프로방스 카페 정원→금촌역/합정역 도착
포함사항	체험비, 입장료, 숙박비와 조식, 관광버스 운임(단, 중식은 별도 부 담)

-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안내, 저렴한 요금이 포인트임
- 요일별로 분류, 숙박상품으로 분류되어있음
- 타 여행업체에서 관광하지 않는 파주의 다양한 관광지를 포함함

5) 여행상품 관련 개선방안

- DMZ 하면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전쟁 다음 세대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역사이자 관광지임. 외국인이나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재미’ 요소 첨부가 시급함
- 오락, 놀이, SNS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유입을 위해 임진각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축제’를 열고 이를 프로그램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파주 여행상품이 당일 혹은 파트타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숙박까지 이어지지 않음. 그에 따라 파주 숙박업소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이나 관심도가 낮고 활성화되지 않음

- DMZ 접경지역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북한 음식’을 메뉴에 넣어 주류와 함께 판매하면 파주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어나고 숙박과도 연결됨
- 문제점, 개선사항으로 숙소 확충방안이 절실히 필요함.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홈스테이’와 같은 ‘빌리지 투어리즘’을 추천함
- 여행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지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과 여건 조성이 필요함.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자원의 활성화 및 마케팅이 요구됨. 그에 따라 파주 주변의 숙박업, 요식업, 교통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음
- 파주에 조성되어있는 캠핑, 글램핑장을 활용하여 ‘파주 투어+캠핑/글램핑’ 패키지여행 상품 구성 가능함

Ⅲ. 판문점 및 인근 지역

관광 자원화

- ① 판문점 관광콘텐츠 개발
- ② 판문점 연계 여행상품 개발
- ③ 판문점 관광기념품 개발

Ⅲ. 판문점 및 인근 지역 관광 자원화

1

판문점 관광콘텐츠 개발

1. 판문점 장소별 콘텐츠 개발

- 판문점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30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세계인 모두가 간절히 기원하는 평화를 상징하고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지루하다고 느끼는 안보관광의 수준을 넘어서야 함
- 장소마다 스토리를 부각하고 가치에 재미를 더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현재 판문점 견학은 도착 후 브리핑 청취, 자유의 집(군사 정전위원회 회담장, 팔각정), 기념 식수, 도보다리과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위주로 진행됨

1) 통일대교의 상징화

- 통일대교는 서울과 평양을 최단 거리로 임진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임.

통일대교 개통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1001마리 소 떼를 몰고 방북, 얼어붙어 있던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음. 통일의 관문이자 소 떼 방북을 상징화해 판문점 관광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의 활용을 제안함

(1) 통일대교 입구에 한국적인 아치와 광장

- 평화의 관문에 맞는 상징적인 아치가 필요함. 한옥, 황소 등 한국과 평화 상징물을 키워드로 공모전을 개최,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음
- 판문점에 들어가기 전 광장을 조성해 만남의 장소, 버스킹(Busking)과 휴식, 식사가 가능하게 함
- 사례)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과 파리지 광장 :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 Gate)으로 베를린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하는 필수 명소.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으며 이름은 파리지 광장(독일어: Pariser Platz 파리지 플라츠)으로 광장 주변으로 대사관 등 건물과 유명인사들이 머무는 아들론 호텔(Hotel Adlon) 등이 있고 말이 끄는 마차와 친환경 전기 자전거인 벨로 택시(Velotaxi) 등 관광객들이 북적이게 하는 요인이 많음

(2) 광장에 판문점 박물관과 기념품 샵

- 광장이 조성되면 자연스레 관광객들이 체류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위해 판문점의 형성과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을 전시·안내하는 판문점 박물관을 설립, 판문점 관광을 하기 전에 사전 지식을 쌓도록 함

- 판문점 관련 기념품 판매점을 마련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수익을 높이며 관광객의 기억 강도를 올림



그림 16. 통일대교와 브란덴부르크 문, 파리지 광장

(3) 남북교류의 상징인 소 콘텐츠 활용

- 1998년 6월과 10월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떼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은 사건은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전 세계적인 시선을 끌었음. 정주영 소 떼 방북 사건은 분단 이후 민간차원의 합의를 거쳐 군사구역인 판문점을 통해 민간인이 북한에 들어간 첫 사례였음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7세 때 현재 북한지역인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의 고향 집에서 부친의 소 판 돈 70원을 몰래 들고 가출한 실향민으로 그의 나이 83세가 되던 1998년 소 떼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방북,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돼 그 빛을 값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산천을 찾아간다.”고 그 감회를 밝혔음



그림 17.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 떼 방북

- 당시 이 장면은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인 CNN에 생중계되었으며 외신들도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휴전선이 개방되었다고 보도하였음.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은 이를 가리켜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이라고 표현한 바 있음

-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매우 좋은 콘텐츠이므로 광장 한쪽에 소 떼 방북을 상징화하는 소 동상을 세우고 평화의 상징으로 삼음. 뉴욕 월 스트리트의 황소상은 주식의 강세를 의미하는 좋은 상징으로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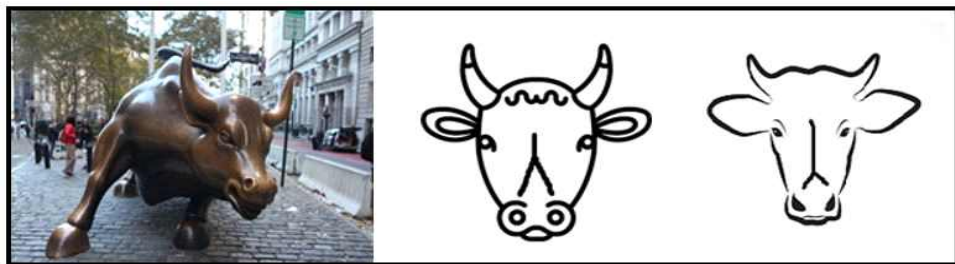


그림 18. 월스트리트의 황소상과 사람인을 넣은 소 얼굴 모형

- 통일대교 난간에 소 얼굴 모형 1001개를 설치, 현재 일자형의 다리 난간을 소 얼굴 모형 1001개로 장식함. 소 얼굴 모형 중앙에 사람인(人)을

넣어 평화와 화합·화해를 의미함

- 통일대교와 광장 주변에 한우 식당 배치. 한우는 파주와 문산 등 주변에서 생산한 한우를 사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기타 기념품으로 통일대교 아치모형, 황소상, 황소 얼굴 펜던트, 문구류 등이 가능함

2) 판문점 관람 코스(아날로그 버전)

(1) 판문점의 코스화

- 판문점을 빠짐없이 돌아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코스를 제시함
- 판문점 관광코스 : 자유의 집 광장 투어 시작 → 도보다리 → 평화의 나무 → T2-T3 군사분계선 → 군사정전위원회 본 회의실 → 72시간 다리 → 돌아오지 않는 다리(8.18 도끼만행사건) → 자유의 집 광장

(2) 프리포즈 코스를 특화

- 염원, 평화, 화합 등의 이미지를 살려 도보다리 - 평화의 나무 - T2-T3 군사분계선을 프리포즈 코스로 관리함
- 프리포즈 첫 번째 장소/도보다리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교를 겸한 산책 뒤 30여 분

간 단독회담을 진행했던 곳으로 ‘평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역사의 현장. 현재 방문객은 도보다리 일부를 걸어볼 수 있음. 도보다리가 평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으므로 프리포즈 첫 번째 장소로 이미지화함. 기념품 가게에서 꽃 판매 필요함



그림 19. 프리포즈 코스(도보다리 - 평화의 나무 - T2-T3 군사분계선)

- 프리포즈 두 번째 장소/ 평화의 나무 : 4.27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이 기념 식수를 하고 ‘평화와 번영을 심다’ 표지석을 세움. 한라산 흙과 백두산 흙을 덮고 대동강 물과 한강 물을 뿌렸음. 7개의 막사 오른쪽, 소떼 길에 위치. 평화의 나무를 한 바퀴 돌며 평화와 번영을 비는 나무. 포토존 필요

- T2-T3 군사분계선 : T2와 T3 사이에 있는 MDL(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첫 대면을 했고 서로 손을 잡고 넘나들었음. T2-T3 군사분계선과 자유의 집을 넣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함

(2) SNS의 세계적 인증샷 명소화

- T2와 T3의 벽, 군사분계선, 자유의 집, 판문각이 다 나오는 장소를 선택, 최적의 포토존(Photo Zone)에 스마트폰 삼각대와 거치대를 설치함. 액

스트라 없이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매시 정각에는 남쪽 자유의 집으로만, 30분대는 북쪽 판문각으로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함

- 사례) 덤보(DUMBO)는 ‘맨해튼 브리지 교각 아래(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라는 뜻으로 오래된 공장을 개조해 오픈한 호텔과 바, 실험정신이 강한 개성 있는 예술 갤러리, 유기농 제품만을 판매하는 유명 초콜릿 가게 등이 위치한 뉴욕의 인기명소.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Once Upon A Time In America>(세르지오 레오네, 1984)의 포스터처럼 빌딩 사이로 맨해튼 브리지가 보이는 곳이 포토샷 명소.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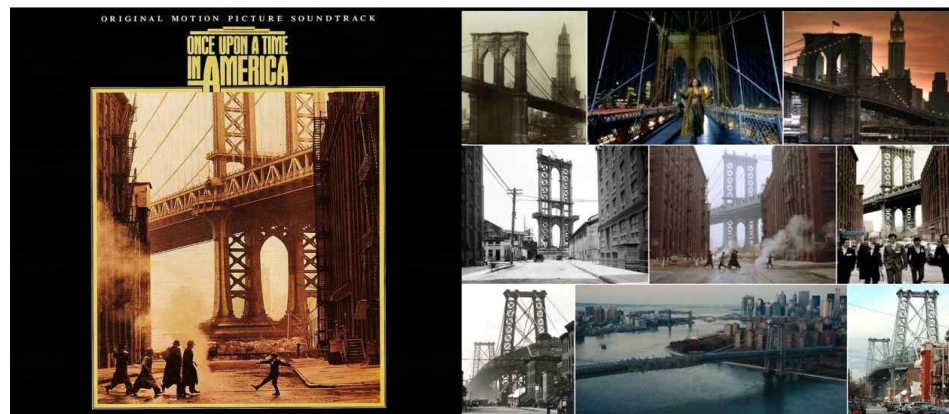


그림 20.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포스터와 뉴욕 포토샷 명소 덤보(DUMBO)

3) 판문점 관람 코스(디지털 버전)

(1) 판문점 역사성의 대상 눈 맞춤화

- 판문점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역사성, 장소성, 고유성, 진정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 이를 활용해야 함. 역사에 관심 적은 젊은 이와 한국 역사의 기본 지식이 없는 외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판문점의 역사성을 부각 시키기에 AR, VR 등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야 함. 이때 판문점이 역사적 사건으로 탄생한 공간인 만큼 시대적·역사적 콘텐츠를 잘 녹여내는 것이 필요함

연 도	장 소	내 용
1951. 07. 10.	개성 내봉장	휴전협정 시작
1951. 10. 25.	널문리 공밭 임시 천막	첫 회담 시작
1953. 07. 27.	T2 회담장	정전협정 체결, 첫 회담부터 총 765회 개최
1976. 08. 18.	돌아오지 않는 다리 (UN군 제3초소 인근)	도끼만행사건
1984. 11. 23.	자유의 집 정원(옛 연못)	소련 관광 안내원 마투조크가 귀순, 30분간 총격전.
1989. 08. 15.	판문각, T2-T3 사이	평양 출전 참가자 한국외대 임수경이 판문각 에서 15분 연설, 군사분계선 콘크리트 연석 넘음
1994. 06. 15.~18.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경유,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북핵 논의
1996. 12. 30.		강릉 무장공비 침투 유해 송환
1998. 06. 16. 1998. 10. 27.	회담장 우측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대의 트럭에 500마리(6월)+501마리(10월) 싣고 군사분 계선 넘음
2007. 10. 02.~04.		노무현 전 대통령 평양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2012. 03. 04.	판문각	김정일 사망 3개월 후 김정은이 판문각에서 쌍안경으로 남측지역 관찰
2017. 11. 13.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사이	북한군 하전사 오청성이 판문점을 넘어 귀순. 이국종 교수가 수술
2018. 04. 27.	돌아오지 않는 다리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으로 이동
	판문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이스캠프

	T2-T3 사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사분계선 통과
	자유의 집 앞 (판문점 광장)	의장대 사열.
	평화의 집	1층 서명, 2층 정상회담, 3층 만찬
	회의장 옆	공동 기념 식수(1953년생 소나무)
	도보다리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산책+담소

표 16. 판문점 관련 주요사건

(2) 판문점 역사 체험의 디지털화·미래화

-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있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젊은 세대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임. 해마다 늘어나는 AR, VR 시장의 판문점 적용으로 판문점이 고루한 역사적 장소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함



표 17. 글로벌 가상·증강현실 시장 전망

- 증강현실(AR)은 현실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고 가상현실(VR)은 현실이 아닌 100%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술로 특수 제작된 고글 모양의 헤드셋을 써야 가상현실(VR)을 경험할 수 있음.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 정보를 결합해 두 세계를 융합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장점을 따온 차세대 기술임

- MR(혼합현실)은 일명 하이브리드 현실이라 불리며, 실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혼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복수의 사용자가 거리에 상관없이 가상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 환경 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임.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찌감치 자사의 홀로렌즈가 AR와 VR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홀로렌즈와 커넥터를 통해 원격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홀로포테이션(holoportation = Hololens + Transportation)이 대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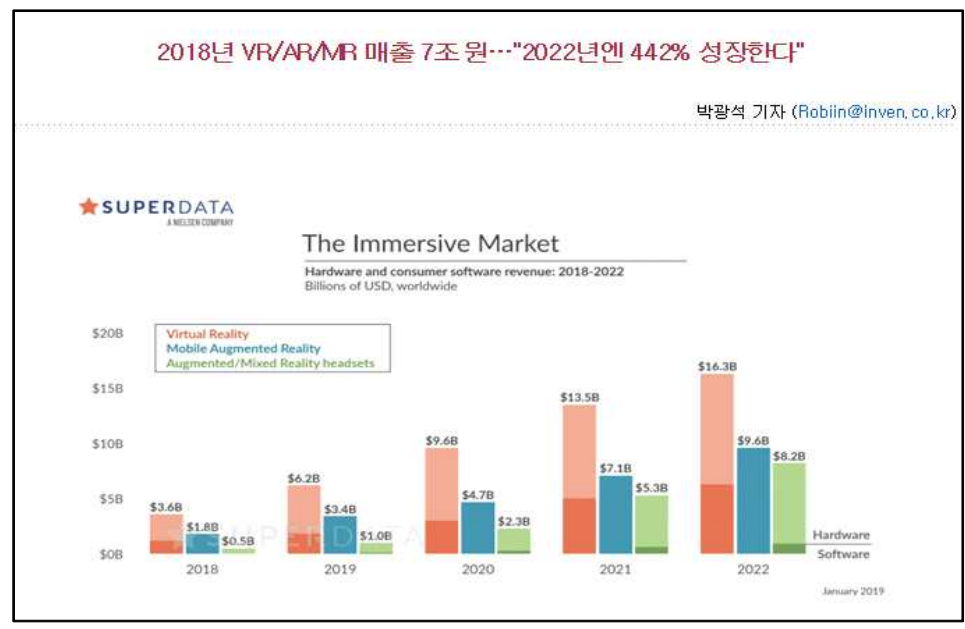


표 18. VR, AR, MR 시장 전망

- 북미 시장조사업체 슈퍼데이터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의 AR/VR/MR 시장 매출은 약 66억 달러(한화 약 7조 원)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매출을 모두 더한 수치임. 분야별로 VR 시장이 36억 달러(한화 약 4조 원), AR/MR 시장이 약 23억 달러(한화 약 2조 5,700억 원)로 집계, 오는 2022년도에 VR 산업이 163억 달러, AR/MR 산업은 96억 달러, 82억 달러로 각각 4배 이상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그림 21. 판문점의 디지털 콘텐츠화

(3) 2018 남북정상회담 코스화

- 판문점의 장소는 모두 세계적 이슈를 품고 있고 글로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으로 AR, VR, MR의 접목이 가능하며 매우 필요한 콘텐츠임.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나 별도의 동선을 만들 필요가 있음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거나 도보다리 대화에 방문객이 자신을 이입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되어보는 것, T2 회담장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공간에서 사인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콘텐츠 개발은 경쟁력이 높음

• 판문점의 디지털 통합 관람코스 : 돌아오지 않는 다리 → 판문점 도착 → 평화의 집 2층 → 평화의 집 앞 광장 → 자유의 집 정면 왼쪽 → 자유의 집 정원 → 군사 정전회담장 T2 → T2-T3 군사분계선 → 판문각 → 소 떼 길 → 기념 식수 → 도보다리

	장소	사건	활용 콘텐츠
1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도끼만행사건	AR 혹은 앱을 통해 당시 상황 재생
2	판문점 도착	정전협정, 남북정상회담 등	기억 박물관(인터뷰 동영상 재생, 관련 물품 전시, DMZ 관련 동화책, 소설 등 전시 판매, 기념품 판매)
3	평화의 집 2층	2018 정상회담	MR로 회담장과 자리 배치 재현, 기념촬영 가능
4	평화의 집 앞 광장	4.27 정상회담 당시 의장대 사열	-AR로 의장대 사열 증강현실 구현 -미디어 파사드로 정상회담 시의 공연 연출
5	자유 의 집 정면 왼쪽	오청성 귀순	AR로 증강현실 구현
6	자유 의 집 정원	소련 관광 안내원 마투조크가 귀순, 총격전	AR로 증강현실 구현
7	군사 정전회담장 T2		MR로 정전협정 당시 공간으로 돌아가 보기, 유엔군 되어 보기
8	T2-T3 군사분계선	JSA 영화, 정상회담, 임수경, 지미 카터 등 다양	VR로 관련 인물 되어보기
9	판문각		김정은 쌍안경 장면 재현
10	소 떼 길	정주영 회장 소 떼 방북	AR로 증강현실 구현
11	기념 식수	2018 정상회담	VR로 문재인, 김정은 되어 보기
12	도보다리	2018 정상회담	VR로 문재인, 김정은 되어 보기

표 19. 판문점의 콘텐츠 활용

• 문재인 대통령 코스 : 돌아오지 않는 다리-평화의 집-자유의 집 앞 광장-군사 정전회담장 T2 T3 사이의 군사분계선-자유의 집 앞 광장-평화의

집-기념 식수-도보다리-평화의 집-저녁 만찬

- 김정은 국무위원장 코스 : 통일각-판문각-군사 정전회담장 T2 T3 사이의 군사분계선 통과-자유의 집 앞 광장-평화의 집-판문각(휴식)-기념 식수-도보다리-평화의 집-저녁 만찬

-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있었고 저녁 만찬이 있었음. 2018 남북정상 회담 만찬 메뉴를 보면 문어 냉채, 감자전, 민어 해삼 편수, 달고기구이(생선), 한우 부위별 구이, 평양 옥류관 랭면, 비빔밥, 썩국, 가자미식해, 도미 찜과 메기찜, 망고 무스, 송이 꿀차, 한라봉편, 두견주, 문배술 등이 상에 올랐음. 이는 ‘한반도 밥상’이라는 음식 메뉴로 콘텐츠화가 가능함. 특히 한우 부위별 구이는 정주영 회장이 소 떼를 몰고 올라가 유명해진 충남 서산 목장의 한우를 사용한 것으로 스토리텔링 상품이 될 수 있음

- 자유의 집 앞에서 정상회담 후 환송 공연이 있었으니 자유의 집을 무대로 판문점의 역사를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가 적당함



그림 22. 남북정상회담 환송 행사 당시 판문점 미디어 파사드

4) 판문점 코스화의 바닥 유도선

- 아날로그 동선과 디지털 동선에 바닥 유도선을 설치, 방문객들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해당 장소 앞에 포토존 혹은 AR 활성화 등 안내를 첨부함. 동선은 주제별로 색을 달리하며 관련 지도를 제작, 방문객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최대한 높임

- 사례) 보스턴의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 보스턴 국립 역사공원의 일부로 보스턴 코먼((Boston Common)에서 찰스타운의 벙커힐 기념탑(Bunker Hill Monument)까지의 4km 내에 16개 유명 역사유적지를 하나의 길로 연결했음. 바닥에 붉은색 보도블록을 깔거나 붉은색 라인을 그려 동선을 유도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보스턴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가 되었음



그림 23.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의 바닥 유도선

5) 사진 촬영 명소 설치

- 핸드폰을 들고 여행하는 세대에게 SNS와 인스타그램(Instagram)은 떨 수 없는 존재임. 이는 다양한 여행 앱을 사용하는 디지털 여행 시대의 보편적인 경향임
- 여행 앱은 여행 전 탐색에서부터 예약, 이동과 탐험, 여행 후 추억 공유 등 여행경험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되며 여행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음
- 여행 앱 중에서는 여행 사진을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 주고 자동으로 여행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며 여행 인플루언서의 동선을 알려주거나 인생샷 명소를 알려주는 기능이 제시·선호됨
- 여행에서 얻는 경험이나 이미지를 기록·공유하여 나만의 여행 포트폴리오를 남길 수 있음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여행자의 SNS 여행 사진은 여행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한 사람, 앞으로 방문할 사람에게 여행 정보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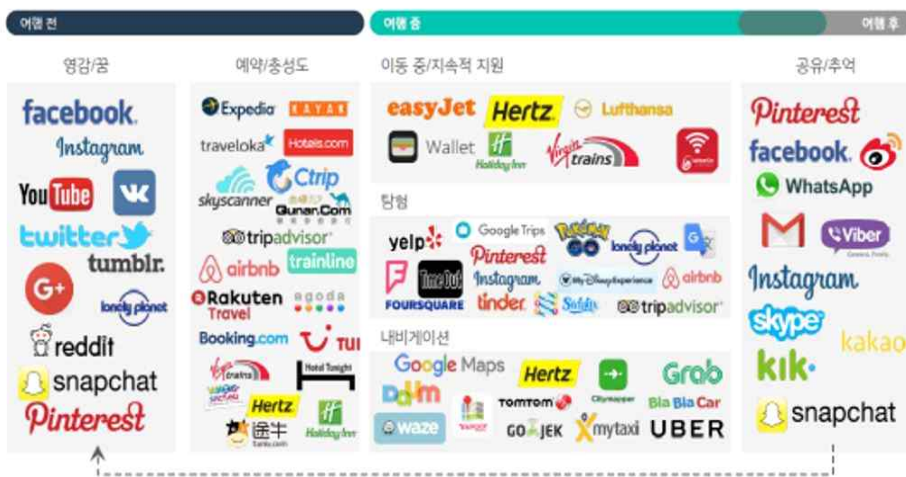


표 20. 여행자의 여행 사진이 다른 이의 여행 욕구에 반영되는 디지털 여행 메커니즘
(출처 App Annie Intelligence)

- 판문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문점 의미가 담기도록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사진 촬영 명소를 제공, 만족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높임



그림 24.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포토 포인트 이미지

- 역사의 주인공과 찰칵! 포토 프레임 : 포토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도록 함. 단순한 사각 틀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역사의 주인공이 내 인생에서는 나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들이 보조 출연자가 되도록 함
- 정상회담 포토 프레임 : 남북이 서로 대화하는 느낌이 들도록 구성함. 화해 의자 형식의 표현도 좋음
- 역사 캘린더 : 지난 판문점의 역사적인 순간을 역사 캘린더로 만들고 소원을 적을 수 있도록 함

- 판문점 거리 이정표 : 판문점에서 각 도시로 가는 이정표와 거리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 평양, 서울, 스위스, 스웨덴(중립국감독위원회) 등 판문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맞는 장소로 설정

6) 판문점 관련 명칭 아이디어 공모전

- 판문점의 캐릭터, 로고, 기억 박물관 등 판문점에 관한 아이템은 대 국민 공모전을 통해 실시함.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수상자들 스펙에 도움을 주고 주인의식을 고취함. 홍보의 일환이자 공모전을 통한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음

2. 판문점 고유 서체개발

1) 서체개발의 필요성

- 판문점의 역사적 배경 중 핵심적 기간은 1950년~1953년, 특히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 사령관 및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인 ‘정전협정’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음
- 1950년대 판문점과 주변에서 사용되던 글씨를 집자해 판문점 분위기를 품은 서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당시 사용하던 글씨는 ‘군사분계선’ ‘휴전 조인’ ‘정전협정’ 등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음



그림 25. 정전협정 당시의 글자

- 판문점 역사를 담아 개발한 글씨는 ‘판문점 체’ 혹은 ‘널문리 체’로 명명을 추천함
- 서체 개발은 판문점만의 고유성, 진정성, 매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기념품, 이정표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음
- 판문점 서체개발은 높아가는 한글 위상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G마켓과 글로벌 샵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글 관련 상품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국 871%, 네덜란드와 미얀마 500% 등의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임
- 한류 스타가 쓴 손글씨를 보고 한글을 배우는 한류스타와 한글 융합 교육 서비스인 단비(Danbi)가 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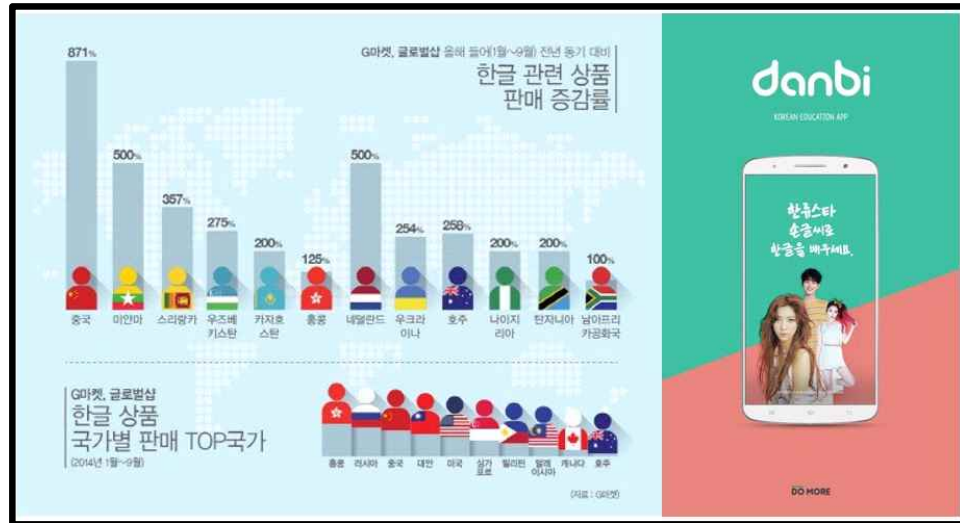


표 21. 한글 관련 상품 증감률과 한류 스타를 통해 배우는 한글 앱 단비

- 인도네시아 반둥 사부가에서 한국문화산업교류 재단 두모어가 ‘손끝에 닿는 한글’이라는 주제로 한글 쓰기 대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음



그림 26. 인도네시아의 한글 쓰기 대회 참가자들

2) 서체개발의 활용

- BTS의 팬클럽인 아미(ARMY) 등 K-POP 팬을 대상으로 판문점 관광과 결합한 ‘한글, 판문점 체를 만나다’ 등 한글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을 유도함

- 프로그램에는 판문점 체로 만든 기념품 제공, 조선어학회 회원인 한글학자 정태진 가옥(금촌동 소재) 방문, 파주 출판단지 활판박물관 체험을 포함, 활판박물관에는 집자를 할 수 있는 활판이 있고 글씨 찍기, 책 만들기 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조합해 활자를 구매할 수 있음



그림 27. 파주 출판단지 활판박물관의 한글 관련 콘텐츠

- 개발된 서체를 이용해 지도, 팸플릿, 손수건, 냉장고 자석, 가방 제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함



그림 28. 서체개발 사례-시흥시의 동네 봄



그림 29. 서체개발 사례-583 양조장



그림 30. 판문점 체를 이용한 타투 용품

3) 서체개발 과정

- 현재 파주 관내에 서체 개발업체 A 사가 있으며 서체개발을 위한 ‘글꼴 한 별’은 한글 2,780자, 로마자 96자, 기호활자 126자를 기본으로 함. A 사의 경우 판문점용 전용 글꼴 한 별 개발에 1년 소요, 견적은 69,000,000 원(부가세 별도)임. 원하는 글자 수 만큼만 개발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서체개발은 ① 글자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수집 ② 집자 작업(수집한 글자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③ 보완, 수정 ④ 완성의 단계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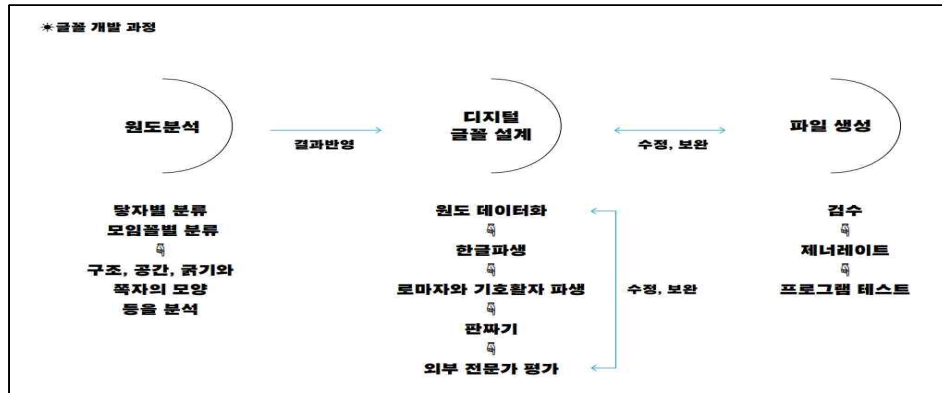


표 22. A 사의 서체개발 과정

3. World Peace Artist Project

1) World Peace Artist 개요

- 사업명 : I'm a World Peace Artist. too!
- 설립목적 : 관광객들이 판문점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세계평화 작가로의 입문을 유도
- 콘셉트 : 전 세계에서 온 세계평화 작가들의 기부 그림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기부금 마련
- 운영 주체 : 사회적 기업 World Peace Artist Cooperation(세계평화작가 협회)

- 운영방식 : 유료 프로그램, on~off line 참여

2) WPA 참여 방법 및 운영 방안

- 판문점을 방문한 관광객 중 세계평화작가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안내데스크에서 등록하면 그림을 그리는 도구와 공간을 제공함. 등록비는 개인의 경우 10달러에 추가 기부금 정도로 예상함. 가족 혹은 단체 등록비는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며 자세한 비용은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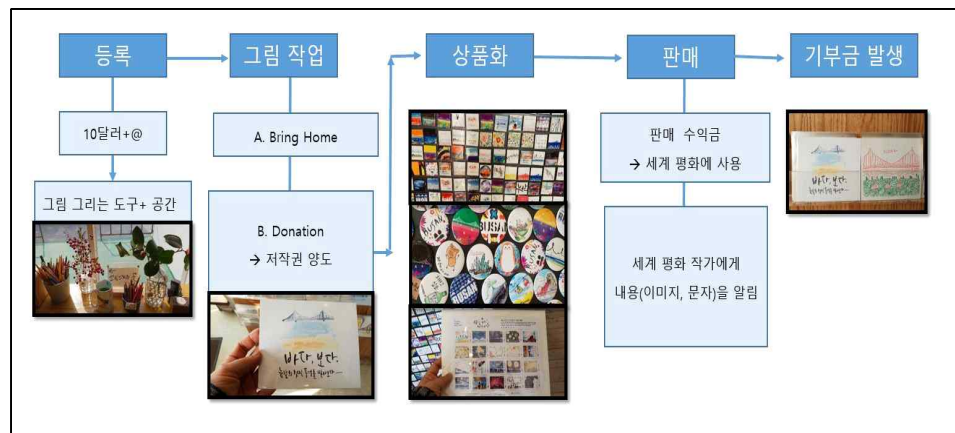


표 23. World Peace Artist의 운영 프로세스

- DMZ와 세계평화 기원을 주제로 우편엽서 크기의 그림(기본 사이즈)을 완성하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함. ㉠ 그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감. ㉡ 저작권 양도와 함께 그림을 WPAC(World Peace Artist Cooperation)에 기부함.

- 기부와 동시에 World Peace Artist로 등록되며 간단한 메시지 입력이 가능함. 예) 이스라엘의 7살 이스마엘. “철조망이 다섯 줄 위에 음표가 있

는 악보로 변하면 좋겠어요.”

- 기부받은 그림은 예술가들의 손길을 거쳐 배지, 우편엽서, 기념우표, 냉장고 마그네틱, 티셔츠, 머그잔 등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함. 이때 저작권 표시를 하고 상품에 따라 작가의 코멘트를 넣음. 예) 티셔츠의 경우 앞에 그림을 넣고 뒤에 작가의 코멘트를 넣음

- 상품이 판매되면 상품 판매로 인한 기부금이 발생함. 관련 내용과 이미지가 홈페이지 업로드와 더불어 세계평화 작가에게 전달됨. 예) “당신의 작품으로 인해 세계평화를 위한 기부금 OO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발생한 비용은 WPAC 운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사용됨

- 작가가 원하면 세계평화 작가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활동 내역을 발급하고 이는 해당 작가의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기부받은 작품은 사진첩, 전시회, 달력, 다이어리, 핸드폰 배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이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함

- 울타리 마케팅 : 세계평화와 관련 있는 이미지의 인물(엔젤리나 졸리 등)을 WPA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홍보 대사로 활용함. 한국을 방문하는 유명 인사들은 모두 판문점을 방문해 그림 기부하는 것을 코소화함. 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되고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가 되게 함

- WPA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작가와 작품, 훈훈한 이야기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함

- WPA 설립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성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짐

3) WPA 프로그램 기대효과

- 판문점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30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전 세계 77억 인구가 간절히 기원하는 평화를 상징하고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하는 세계평화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음
- 판문점 방문객들에게 개인 혹은 가족, 단체의 개념으로 세계평화에 참여하고 이바지할 기회를 마련함. 이를 통해 세계평화의 허브로서 그 존재감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음. 나아가 자신의 마음과 기부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음

4. 대성동 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

1) 대성동 마을의 특수성

- 대성동 마을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마을로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으며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기도 함

-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이 각 1곳씩 민간 거주 마을을 두기로 합의하면서 북한 쪽에 기정동 평화의 마을과 함께 생겨났음
- 대성동의 위치와 생성 이유, 운영방식 등은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는 매우 특수한 형태로 방문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함
-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유엔사령부의 통제 아래에 있음. 판문점과 다르게 일반인 관광이 불가능하며 주민들까지 통제되는 곳임. 외부인은 마을 주민의 초대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해진 시간만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시 JSA 민정 중대의 경호를 받아야 함



표 24. 대성동 자유의 마을 여건

- DMZ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쌀농사 이외에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움. 6차산업 형식을 빌리고 접경지역, 북한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2) 이북음식체험 마을로의 특화

• 대성동 자유의 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북음식 체험 마을’의 콘셉트가 바람직함. 북한과 경계에 있는 마을로 실버세대에게는 향수를, 2030 세대에게는 역사 체험과 호기심 자극으로 어필 가능함

• 대성동 자유의 마을 방문 동선 : 마을 입구 → 방공호 → 대성초등학교 → 공회당 → 마을창고 → 전시주택 → 태성과 팔각정 → 마을회관(이북음식 체험공간) → 국기 게양대

마을 입구	- 옛 성황당 터 - 성황당 나무가 있던 자리 - 마을의 진입을 고함
민방공 긴급 대피소(방공호)	- 대성동 마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안보교육
대성동 초등학교	- 미래 통일의 주역이 교육받는 곳
공회당	- 1959년 분단 직후의 상황과 마을의 역사 전시 - 분단 이전 대성동 마을의 역사 살피기 - 분단 이후 유엔군이 관할하던 치외법권 지역의 역사 알기 - 대성동 주민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회고
1972년 마을창고	- 쌀농사를 짓는 마을의 현주소 인식 - 새마을 주택 조성과 대성동 마을의 개발 - 새마을 운동과 조국 근대화 사업 결과물 보기
1980년대 전시주택	- 최북단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삶 엿보기
태성과 팔각정	- 북한에 가장 근접한 시설 - 북한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 마을의 지명 유래가 된 삼국시대 토성인 ‘태성’ 관람 - 바로 앞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 관찰
마을회관	- 마을회관 옥상에서 대성동 마을 한 번에 둘러보기 - 개성의 송악산 체험하기 - 이북음식 체험

국기 게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느끼기 - 분단의 현실 인식하기 - 평화와 자유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기
--------	--

표 25. 대성동 마을의 방문 동선과 의미

- 마을 방문 동선을 따라가며 마을의 지명 유래 등 역사를 알게 됨
- 군사분계선 가장 가까이 팔각정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 축조됐는지는 확실치 않은 옛 토성이 있음. 마을 이름은 처음에 ‘토성(土城)’이었으나 ‘태성(台城)’이라고 불리다가 유엔군이 ‘대성’으로 발음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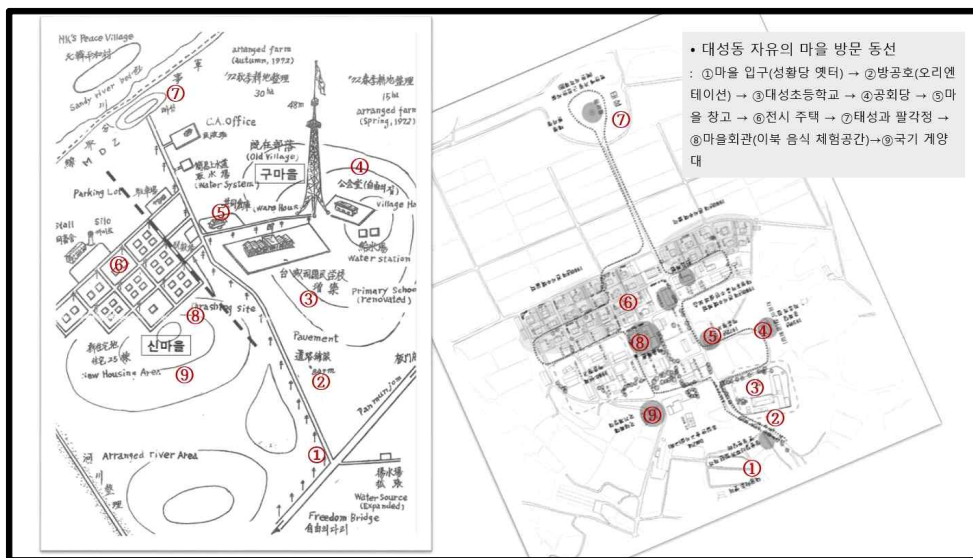


그림 31. 대성동의 마을 지도와 볼거리

- 마을 입구에 있는 방공호는 안보교육 및 마을 관광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적합함.



그림 32. 대성동 민방공 긴급 대피소(방공호)

- 마을회관에서 이복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이복음식 체험 특화 마을로 지정해 상설 프로그램화함

3) 대성동 이복음식 체험 특화 마을 운영 방안

- 운영 주체 : 대성동 마을 부녀회
- 운영 간격 : 주 1~2회
- 메뉴 : 계절별 메뉴 준비
- 비용 : 추후 결정
- 예약 : 예약제

- 운영 방법 : 기존 시티 투어 코스 중 운영이 잘되지 않는 노선을 활용
- 준비 : 음식 스토리텔링 필요, 음식 만드는 방법 등 일러스트로 매칭한 감성 팸플릿 제작

강아지 떡	버들강아지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떡
이북식 만두	고무신 만큼 크게 만든다는 특별한 만두
생치 만두	눈발을 헤쳐 잡은 꿩으로 만드는 꿩만두
부추 만두	여성에게 좋은 부추로 속을 넣은 건강식 만두
침뿌리 식혜 침뿌리 떡	어려운 시절 먹던 자연산 침뿌리로 만든 웰빙 음식
콩고기 밥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콩고기 밥
오리 국수	오리고기를 얹은 오리 국수
감자국수	뜨끈하게 또는 시원하게 먹는 감자국수
대갈범벅	끓은 팔을 푹 삶아 밑에 깔고 밀가루로 수제비를 떠서 켜켜이 놓고 찌는 떡
이북식 장떡	다양한 재료를 넣은 추억의 음식
분지(산초) 고추 찌개	보양식품 산초로 만든 특별한 음식
이북식 빙 떡	고구마 녹말로 만든 산초 음식
감자 투생이	감자 건더기에 녹말가루를 섞어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어 찐 떡
이북식 추어탕	여름 특별 보양식
호박김치	남한에서는 보기 드문 이북식 김치
이북식 호박죽과 팔죽	겨울에 먹는 특별한 죽

표 26. 흥미로운 이북음식 콘텐츠



그림 33. 교동도 대룡 시장의 강아지 떡

- 음식체험 시 마을 주민 중 어르신이 전문가로 배석,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방문자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인간적인 교감의 시간이 필요함

1. 임진강+철책선의 Peace Road 특화 구간

1) Peace Road 특화 구간의 필요성

- 파주는 자연경관은 물론 분단의 흔적과 통일을 향한 남북한 노력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곳. 판문점과 DMZ가 있는 접경지역으로 분단의 상징인 철책선을 따라 걷는 행사가 종종 있음
- 현재 평화누리 길에는 철책선 걷기가 포함되어있음. 그 구간은 1코스인 염하강 철책 길과 조강 철책 길로 인천광역시 강화도 구간이고 3코스인 한강 철책 길은 경기도 김포시의 구간임
- 파주시 구간 평화 누리길은 6코스 출판도시길, 7코스 반구정 길, 9코스 울곡길로 4개의 코스가 있음
- 도보 길은 특성상 걷는 것이 목적이라 길이가 길고 영역이 방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편의시설 미비로 재미가 없거나 걷기 마니아가 아니면 포기해 버림. 이러한 특성으로 걷기 길이 오히려 비활성화됨. 따라서 특정 구간을 특화해 활성화하고 리마인드 해줄 필요가 있음
-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는 임진각 통문에서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지나 울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9.1km의 구간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됨.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던 군 순찰로를 2016년에 개방하면서 도보 여행길로

관광 자원화한 대표적인 좋은 사례임. 민간인을 통제하던 순찰로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임진강을 따라 걷는 생태 탐방로 구간을 일반인에게도 허락, 하루에 한 번 10시에 개방됨

2) Peace Road 개요

- 콘셉트 : 임진강 생태 탐방로 중 임진강과 철책선을 함께 보며 걷고 생각하고 쉴 수 있는 특화 구간
- 구간 : 출발지는 파평면 울곡리 107-17 → 도착지는 화석정(파평면 울곡리) 약 2km
- 대상 : 가족, 연인, 소모임, 30~40명 내외의 단체
- 행사 : 걷기, 엽서 쓰기, 그림 그리기 등
- 편의시설 : 출발지 카페(강변 살자/화장실, 주차 공간, 음료 등)

도착지(화석정/화장실, 매점, 문화해설사, 정자 등)

- 확인사항 : 군부대 협조가 필요함

3) Peace Road의 현황

- 파평면 울곡리 107-17부터 화석정까지의 구간을 Peace Road로 특화함. 울곡리 107-17에는 '강변 살자'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어 주차 공간과 화

장실 등 사용 가능 편의시설이 있고 30~40명 수용의 카페시설이 있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동료를 기다릴 수 있고 오리엔테이션 또한
가능함. 기타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좋음



그림 34. peace road 특화 구간

- 이곳에서부터 화석정까지는 2km 남짓으로 부담 없는 거리임. 임진강과 철책선이 바로 붙어 있고 개인, 가족, 관광버스 1대 규모의 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기에 적당함. 카페주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그림 그리기, 엽서 쓰기 등의 행사 진행도 가능함
- 다만 화석정까지의 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흠이며 일부 구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지역임
- 마무리 장소인 화석정은 임진나루 위쪽으로 울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고 시를 지었던 곳임. 화석정에는 울곡 이이가 8세 때 화석정에 올라 지은 시가 걸려있음

- 화석정은 어린 자녀와 함께 걷는 가족 혹은 소모임 peace road 걷기 후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함. 화석정에는 관광해설사와 매점,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있고 식당(화석정 가든, 파주시 파평면 화석정로 148-53, 031-952-1818)이 가까이 있어 식사도 가능함. 이 길은 ‘경기 옛길’의 일부 구간이기도 함



그림 35. peace road 특화 구간의 시설과 현황

2. 야간관광 상품 개발

1) 운영방식

- 기간 : 별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계절
- 예약 : 경복궁처럼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

- 시간 : 오후 6시~9시, 매주 월요일 휴무
- 금액 : 일반 5,000원 / 이 티켓으로 전망대 카페에서 음료나 간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6. 밤하늘 관찰에 좋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2) 유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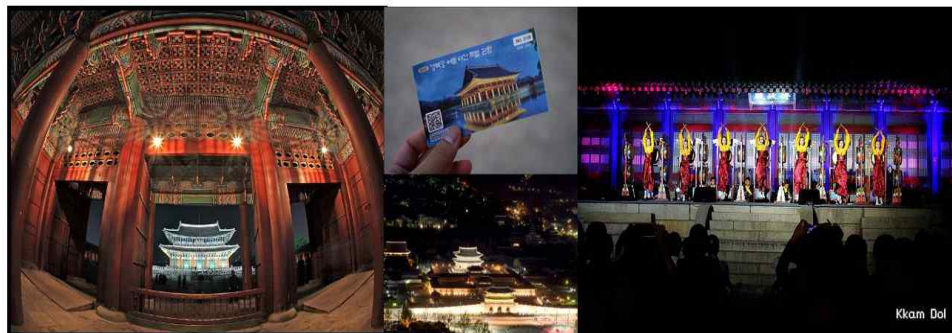


그림 37. 경복궁 야간개장

- 경복궁은 4월 말-11월 초까지 매달 특정일 기간 한정으로 야간개장을 시행, 시간은 오후 7시 ~ 9:30으로 화요일 휴관. 금액은 일반 3,000원으로 한복 착용자는 무료(인터넷 예매 필수). 현장 판매는 만 65세 이상, 외

국민만 가능(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 창구 이용 시 신분증 필수, 무인 발매기 이용 시 휴대전화 번호 입력. 경복궁 내에서는 각자 동선을 짜서 이용, 8시에 공연

3) 야간관광 활용안

- 연인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을 만들어 줌. 전망대 위 카페에 음식 부분을 강화해 저녁시간에 간단한 먹거리와 맥주를 판매
- 파주는 지리적 위치상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낮에는 헤이리나 출판단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당일 코스로 개발 가능함. 예) 파주 출판단지(활판박물관)-헤이리-오두산 통일전망대 야간개장
- 2019년 국내 야간관광 100선에 서울 ‘덕수궁 돌담길’과 부산 ‘달맞이언덕 문탠로드’, 대구 ‘김광석다시그리기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울산 ‘시티투어 생태탐방’, 화성 ‘행궁 야간개장, 영월 ‘별마로천문대’, 여수 ‘해상 케이בל’, 통영 ‘밤바다 야경 투어’, 제주 ‘라이트 아트 페스타’ 등이 선정되었음. 오두산 전망대의 야간관광코스도 합류하게 될 수 있길 바람
- 오두산 전망대는 공기가 좋고, 야간에 주변 불빛이 많지 않아 별을 보기에 적합한 지리적 위치임. 이러한 장점을 살려 경복궁, 덕수궁처럼 야간개장에 공연을 더해 파주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기획해 볼 만하다고 평가됨

3. 판문점 연계 관광 상품 개발

1) 내국인 대상

- 경기 관광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은 국내 여행 선정 시 관광지에 대한 중요성이 큼
- 선호하는 국내 여행 유형을 보면 자연 관광지의 비중과 더불어 테마·안보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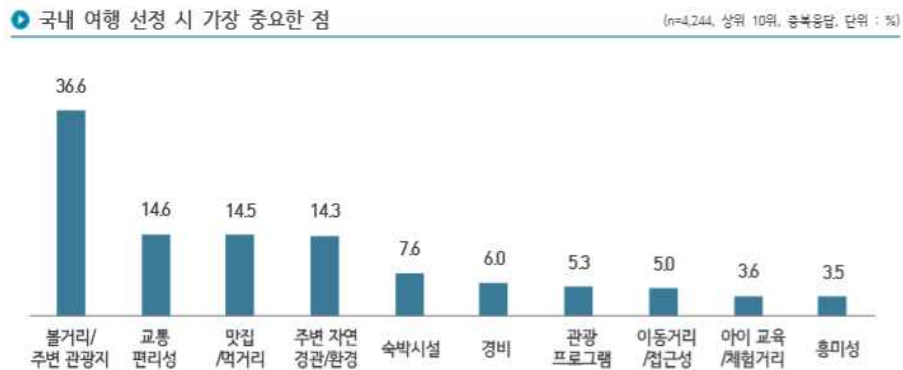


표 27. 국내 여행 선정 시 중요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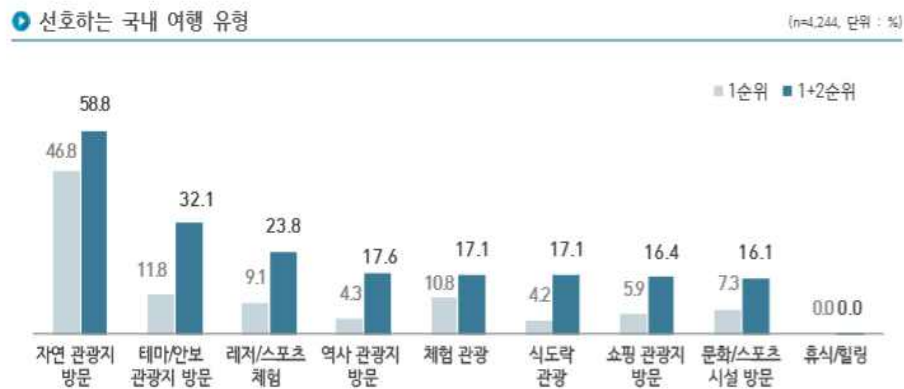


표 28. 국내 여행 유형의 선호도

① 당일 여행

- 판문점을 포함 주변 관광지의 범위를 살펴보면 주제와 거리에 따라 권역을 나눌 수 있음
- 내국인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판문점(JSA) 관광은 당일 여행의 가능성이 큼. 이 경우 판문점 관광과 점심 혹은 저녁 식사 정도의 일정을 넘어서기는 힘들
- 판문점 관광은 앞서 제시된 동선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인 관광이 될 가능성이 큼. 판문점에서 분단과 이념, 평화 메시지를 담은 코스를 견학하고 기념품을 구매함
- 식사는 판문점 지역의 특산물을 상품화한 식단으로 구성.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 요리를 추천
- 판문점 권역으로 캠프 그리브스를 들 수 있는데 숙박 장소로 추천할 만 하지만, 당일 여행이라면 선택 관광 또는 견학 코스로 넣을 수 있음

날자	구분	장소	내용	핵심 콘텐츠
제1일	오전	판문점	자유의 집, 평화의 집, 군사분계선, 도보다리, 기념 식수 등	분단, 이념, 평화
	점심	두부 요리점		장단콩 요리
	오후	제3땅굴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기억, 미래, 연결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초콜릿 만들기, 바람개비 언덕 등	

표 29. 판문점 연계 당일 여행

② 1박 2일 일정

- 판문점을 1박 2일로 방문한다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방문객일 가능성이 큼. 이 경우 판문점까지의 이동시간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할 수 있음. 첫날 오전과 둘째 날 오후를 이동시간으로 모두 빼는 원거리와 이동시간이 짧아 관광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근거리로 분류 가능함
- 판문점 권역은 판문점 견학과 더불어 이념, 분단, 평화 이미지를 보조할 수 있는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그리고 임진각과 평화누리공원, 캠프 그리브스 등을 판문점 권역으로 묶을 수 있음
- 숙박은 캠프 그리브스를 사용. 캠프 그리브스는 일반 숙소가 아니라 미군 숙소였으며 내무반 형태임을 주지시킴. 여럿이 한방을 쓰는 형태라 불편함보다는 흥미로움을 부각함. 저녁 시간이 무료할 수 있으므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공연 기획이 필요함. 1950년대 분위기의 노래를 섞은 통기타 공연, JSA 영화 감상 등을 추천함

날자	구분	장소	내용	핵심 콘텐츠
제1일	오전	이동		
		제3땅굴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기억, 미래, 연결
	점심 식사	두부 요리점		장단콩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 평화의 집, 군사분계선, 도보다리, 기념 식수 등	분단, 이념, 평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초콜릿 만들기, 바람개비 언덕 등	
	저녁 식사	캠프 그리브스	통기타 연주 & 바비큐 파티	한국 전통 음악의 재발견 (기억 속 노래)
	숙박	캠프	숙박	미군 부대 숙소

		그리브스		
제2일	오전	대성동마을	OOO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 먹는 이복식 OO	진정성, 시간성
	점심 식사	헤이리	다양한 취향 반영하여 자유 점심	
	오후	파주출판단지	활자의 숲(활자인쇄박물관), 출판사, 중고책방, 응칠교	한글, 정체성
		이동		

표 30. 판문점 연계 1박 2일 여행(근거리 거주)

- 영역을 구분해보면 판문점이 중심 공간이고 같은 주제를 가진 공간으로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이 있고 임진각과 평화누리공원도 포함 시킬 수 있음

- 주제는 다르지만,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 출판단지는 판문점 동선에 위치하며 다소 무거울 수 있는 판문점 관광의 이미지를 중화시켜 줌

③ 2박 3일 일정

날자	구분	장소	내용	핵심 콘텐츠
제1일	오전	이동		
	점심 식사	두부 요리점		장단콩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 평화의 집, 군사분계선, 도보다리, 기념 식수 등	분단, 이념, 평화
	저녁 식사	캠핑 그리브스	통기타 공연 & 바비큐 파티	기억 속 노래

	숙박	캠핑 그리브스	숙박	미군 부대 숙소
제2일	오전	제3땅굴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기억, 미래, 연결
		임진각 평화 누리 공원	초콜릿 만들기, 바람개비 언덕 등	
	점심 식사	대성동마을	OOO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 먹는 이 복식 OO	진정성, 시간성
	오후	이동		

표 31. 판문점 연계 1박 2일 여행(원거리 거주)

- 2박 3일의 일정이라면 판문점 권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도 방문 가능
- 인문학적 접근의 코스 첨부가 필요함. 파주의 인물로 울곡 이이와 황희 정승을 들 수 있음. 모두 뛰어난 학자이니 ‘인물 인문학’이라는 타이틀로 세팅할 수 있음



그림 38. 황희 정승과 반구정

- 황희 정승 관련 장소는 반구정. 18년 동안 영의정으로 지내며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진 후 87살에 은퇴해 반구정에서 갈매기와 벗하며 지내다 3년 만에 눈을 감았음. 반구정 위치는 파주시 문산읍 반구정로85번길 3



그림 39. 울곡 이이와 자운서원, 가족묘

- 울곡 이이 관련 장소는 자운서원으로 1650년(효종 원년) 자운(紫雲)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아 울곡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울곡 이이 유적지가 있으며 울곡 이이와 신사임당 등 부모의 묘소가 있음. 위치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 숙박이 두 번 가능하기에 1박은 캠프 그리브스를 이용하고 다른 1박은 파주 출판단지 내의 지지향을 추천. 캠프 그리브스가 나무반 형태의 단체 숙박이라면 지지향은 고즈넉한 사생활 보장이 가능함. 출판단지의 특성에 맞게 객실은 박완서 방, 김홍신 방, 함석헌의 방 등 ‘작가의 방’이 있으며 객실 내에는 TV가 없고 책이 비치되어 있음

날자	구분	장소	내용	핵심 콘텐츠
제1일	오전	이동		
	점심 식사	두부 요리점		장단콩
	오후	판문점	기억 박물관	분단, 이념, 평화
			도보길	
	저녁 식사	캠프 그리브스	해금 4중주 & 바비큐 파티	한국 전통 음악의 재 발견 (기억 속 노래)
숙박	캠프 그리브스	숙박	미군 부대 숙소	
제2일	오전	제3땅굴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기억, 미래, 연결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초콜릿 만들기, 바람개비 언덕 등		
	점심 식사	대성동마을	OOO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 먹는 이복식 OO	진정성, 시간성	
	오후	헤이리	다양한 취향 반영하여 자유시간		
		파주출판단지	활자의 숲(활자인쇄박물관), 출판사, 중고책방, 응칠교	한글, 정체성	
	저녁 식사	지혜의 숲	5m 벽면 책장, 조형물, 이탈리아식당 다이닝노을	북콘서트 & 저녁식사	
	숙박	지지향	박완서/김홍신/함석헌의 방 등	TV 無 / 책 有	
제3일	오전	자운서원	울곡 묘, 신사임당 묘 등 가족묘, 전시관	울곡 이이	인물 인문학
		반구정	정자, 임진강 하류 전경	황희 정승	
	점심 식사	장어구이	반구정 근처		
	이동				

표 32. 판문점과 인근 주변의 2박 3일 일정



그림 40. 판문점과 주변 관광지의 위치, 특성

④ 파주 권역 여행 일정

- 판문점을 포함하지 않고 파주를 관광하는 코스 제시
- 09:00-13:00 감악산 & 출렁다리→13:00~14:00 점심→14:00~15:00 황포돛배→15:00~17:00 울곡수목원→17:00~19:00 파주 맛고을에서 저녁→19:00~20:00 퍼스트 가든
- 09:00-10:00 보광사→10:00~11:00 벽초지 수목원→11:00~12:00 파주 삼릉→12:30~13:30 점심→13:30~16:00 파주출판단지→16:00~17:00 헤이리 예술마을→17:00~18:00 헤이리 노을 숲길→18:00~19:00 저녁→19:00~20:00 프로방스 마을(야경)

2) 외국인 대상

① 당일 여행

- 상품명 :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의 한이 서려 있는 그곳 DMZ 당일 여행!

- 일정 :

08:00~09:00 서울에서 파주로 이동

09:00~13:00 임진각 → DMZ 영상관 및 전시관 → 제3터널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대교 → 판문점 브리핑 → 판문점 → 자유의 집 → 군사정전회의실 → 제3초소 → 돌아오지 않는 다리

13:00~ 14:00 점심

14:00~ 17:00 한국근현대사박물관 → 헤이리 마을

17:00~ 18:00 파주에서 서울로 이동

차량 & 가이드	1	350,000
점심	8	96,000
입장료 (제3땅굴, 한국근현대사박물관)	8	97,600+56,000=153,600
		① 총 543,600
		②/8 = 67,950
		③+15% = 78,150 (1인)

② 1박 2일 여행

- 상품명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대를 이해할 수 있는 1박 2일 여행!

- 일정

제1일

09:00~13:00 청와대 사랑채 → N서울타워 → 인사동 → 북촌한옥마을
 13:00~14:00 점심
 14:00~17:00 명동 → 조계사
 18:00~19:00 저녁
 19:00~21:00 창덕궁 달빛 기행
 21:00~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

제2일

08:00~09:00 서울에서 파주로 이동
 09:00~13:00 임진각 → DMZ 영상관 및 전시관 → 제3터널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대교 → 판문점 브리핑 → 판문점 → 자유의 집 → 군사 정전회의실 → 제3초소 → 돌아오지 않는 다리
 13:00~ 14:00 점심
 14:00~ 17:00 한국근현대사박물관 → 헤이리 마을
 17:00~ 19:00 파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

차량 & 가이드	2	700,000
호텔	4	400,000(520,000)
점심	16	192,000
저녁	8	160,000
입장료(N서울타워, 창덕궁 달빛 기행, 제3땅굴, 한국근현대사박물관)	8	88,000+240,000+97,600+56,000 = 481,600
		① 총 1,933,600
		②/8 = 241,700
		③+15% =278,000

③ 2박 3일 여행

- 상품명 : 한국의 꼭 가봐야 할 관광지를 선별한 2박 3일 알짜 여행!
- 일정

제1일

09:00~13:00 청와대 사랑채 → N서울타워 → 인사동 → 북촌한옥마을
 13:00~14:00 점심
 14:00~18:00 명동 → 조계사 (도보 여행)
 18:00~19:00 저녁
 19:00~20:00 창덕궁 달빛 기행
 20:00~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

제2일

09:00~11:00 서울에서 가평으로 이동
 11:00~12:30 남이섬
 13:00~14:00 점심
 14:00~14:30 차량 이동

14:30~15:30 뷔띠프랑스 관광
 15:30~16:10 차량 이동
 16:10~18:00 아침 고요 수목원
 18:00~19:00 저녁
 19:00~20:00 서울 호텔로 이동

제3일

08:00~09:00 서울에서 파주로 이동
 09:00~13:00 임진각 → DMZ 영상관 및 전시관 → 제3터널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대교 → 판문점 브리핑 → 판문점 → 자유의 집 → 군사 정전회의실 → 제3초소 → 돌아오지 않는 다리
 13:00~14:00 점심
 14:00~17:00 한국근현대사박물관 → 헤이리 마을
 17:00~19:00 파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

차량 & 가이드	3	1,050,000
호텔	8	800,000(1,040,000)
점심	24	288,000
저녁	16	320,000
입장료(N서울타워, 창덕궁 달빛 기행, 제3땅굴, 한국근현대사박물관,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뷔띠프랑스)	8	88,000+240,000+97,600+56,000+104,000+76,000+80,000 = 741,600
		① 총 3,199,600
		②/8 = 399,950
		③+15% = 460,000

- 원가 산정 내역 : 투어 진행 최소인원을 8명으로 하고 3성급 호텔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임. 4성급 호텔로 변경 시, 2인 1실 기준 객실마다 3만원씩 추가됨

고정비용(1일 기준)		
차량 & 가이드	350,000	
점심	12,000	
저녁	20,000	
호텔	3성급	100,000
	4성급	130,000
입장료		
제3땅굴	12,200	
N서울타워	11,000	
창덕궁 달빛 기행	30,000	
남이섬	13,000	
아침고요수목원	9,500	
한국근현대사박물관	7,000	
쁘띠프랑스	10,000	

④ 파주 권역 여행 일정

- 판문점을 반드시 가지 않아도 파주 권역을 돌아보는 외국인 대상의 여행 일정이 필요함

- 09:00-10:30 마장 호수 & 출렁다리→11:00~13:00 벽초지 수목원→13:00~14:00 점심→14:00~16:00 파주출판단지→16:30~18:00 헤이리 예술마을(한국근현대사박물관 등)→18:00~19:00 저녁→19:00~20:00 프로방스 마을(야경)

- 10:00~11:00 황포돛배→11:30~13:30 임진각공원→13:30~14:30 점심→14:30~16:00 제3땅굴→16:00~18:00 꽃재 체험 농원(물들이기)→18:00~19:00 저녁→19:00~20:00 퍼스트 가든

⑤ 외국인들이 판문점과 함께 가보고 싶어 하는 명소

◎ 서울 시내 명소

• 청와대 사랑채 : 청와대 및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관광홍보관으로 1층은 한국 관광전시관, 기념품점, 쉼터, 2층은 청와대 관, 국민소통체험관으로 구성. 한국의 음식, 옷, 문화유산, 한류 등 다양한 매력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음

• N서울타워 : 남산이 새롭다(new) 의 뜻을 지닌 알파벳 N을 합성한 이름으로 한국 최초 타워 형태의 관광명소. 높이 236.7m의 타워는 해발 243m인 남산의 높이까지 계산하면 실제 높이 480m로 동양 최고의 타워이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인사동 :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거리로 골동품 상점, 화랑, 표구방, 필방, 전통공예품 상점 등이 집중되어 있고, 전통찻집·전통주점·전통음식점의 변성과 더불어 현대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공간임

• 북촌한옥마을 : 경복궁과 창덕궁, 금원(비원) 사이 북악산 기슭에 있는 한옥 보존지구로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으로 북촌이라고 함. 북촌은 고관대작들과 왕족, 사대부들이 모여서 거주해온 고급 살림 집터로 한옥은 총 2,297동의 건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1,408동이 한옥이고 나머지는 일반 건물임. 북촌 거리에는 북촌 양반 생활문화전시관과 북촌 한옥촌 상징조형물을 설치되어 있고, 옛 선조의 생활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가회동 전통마을 축제가 열림

- 명동 : 원래는 '명례방'이라 불리었고, 조선 시대에는 '남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주로 평범한 선비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였음. 일제 강점기 일본인 거주지가 들어서면서 상업지구로 변모되어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쇼핑의 명소가 되었음. 거대 쇼핑 도시를 연상케 하는 공간으로 각종 브랜드매장, 백화점, 보세가게 등이 밀집되어 있음. 유행의 메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조계사 :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총본산으로 대중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대승 불교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임. 암울한 일제 치하 시대를 극복해 낸 민족자존의 공간이고,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민족과 함께한 역사의 현장이며, 국제 문화도시 서울의 도심인 종로 한가운데에 있는 유일한 전통 사찰로서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임

◎ 서울 시내 선호 체험공간

- 창덕궁 달빛 기행 :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주변 지형과 어우러져 가장 한국적인 궁궐인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대표적 고품격 문화행사임. 은은한 달빛 아래 청사초롱으로 길을 밝히며 창덕궁 곳곳에서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후원을 거닐며 밤이 주는 고궁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음

◎ 서울 근교 외국인 선호 장소

- 남이섬 : 남이섬이라는 지명은 남이섬 북쪽 언덕 돌무더기에 남이 장군이 묻혔다는 민간전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 초기에는 종합 휴양지로 개발하면서 행락객이 늘다 가는 유원지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문화 예술과 자연생태가 살아 있는 청정 여행지로 변신. 2002년 방영한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한류열풍의 주

요 관광지로 부상하였음

- 뷔띠프랑스 : 지중해 연안 마을 같기도 하고 호명산의 산세와 함께 알프스 전원마을 같기도 한 뷔띠프랑스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꽃, 별, 어린 왕자, 프랑스 문화마을, 꽃들의 향연,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

- 아침고요수목원 : 축령산 자연을 배경으로 한국의 미를 듬뿍 담은 정원을 원예학적으로 조화시켜 설계한 원예수목원.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실제 한반도지형 모양으로 조성한 하경 정원(Sunken Garden)과 더불어 백두산 식물 300여 종을 포함한 5,000여 종의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음

3) 동반자별 추천 여행상품

(1) 어린 자녀동반 여행 동선(고구려목장, 공릉관광지)

- 09:00~12:00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평화랜드→12:30~13:30 중식→14:00~16:00 제3땅굴 & DMZ 상영관→16:30~18:00 울곡수목원→18:00~19:00 저녁 식사→19:00~20:30 퍼스트 가든

- 09:00~11:30 우농 타조농장→11:30~12:30 점심 식사→13:00~15:00 파주출판단지→15:30~18:00 헤이리 예술마을(아이존 게임박물관 등)→18:00~19:00 저녁 식사

- 09:00~11:00 모산 목장→11:30~12:30 점심 식사→13:00~15:30 하니랜드→16:00~18:00 꽃재 체험농원(물들이기)→18:00~19:00 저녁 식사→19:30~21:00 벽초지 수목원(야경)

(2) 학생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판문점 견학 상품)

- 10:00~12:00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자유의 종, 독개다리, 지하 벙커, 평화 곤돌라)→12:00~13:00 점심 식사→13:00~15:00 도라산역 & 도라전망대→15:00~17:00 제3땅굴→17:00~18:00 캠프 그리브스로 이동→18:00~19:00 저녁 식사
- 09:00~13:00 JSA(캠프 보니파스에서 브리핑,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군사 정전기념관 회의실)→13:00~14:00 점심 식사 →14:00~17:00 서바이벌 체험→17:00~18:00 휴식→18:00~19:00 저녁 식사
- 09:00~13:00 감악산 트레킹 & 출렁다리→13:00~14:00 점심→14:00~15:00 해마루촌 동의보감 차 체험→ 15:00~16:00 헤이리 예술마을(한국근현대사박물관)→16:00~18:00 통일동산 & 오두산 통일전망대)→18:00~19:00 저녁

(3) 인문학적 접근의 프로그램

- 10:00~11:00 황포돛배→11:00~13:00 해마루촌(동의보감 차 체험)→13:00~14:00 점심 식사→14:00~16:00 울곡수목원→ 16:00~17:00 파주 이이 유적→17:00~18:00 반구정→19:00~20:00 저녁 식사
- 09:00~10:00 보광사→10:00~12:00 꽃재 체험농원→12:00~13:00 점심 식사→13:00~14:30 파주 삼릉→15:00~16:30 파주출판단지→17:00~18:00 헤이리 마을(한국근현대사박물관)→18:00~19:00 저녁 식사

(4) 연인들을 위한 프리포즈 여행 동선

- 09:00~10:30 마장 호수 & 출렁다리→10:30~11:30 레드 브릿지(카페 & 브런치)→12:00~14:00 벽초지 수목원→ 14:30~15:30 파주 맛고을에서 점심 식사→16:00~17:00 반구정→17:00~18:00 임진각 평화랜드→ 18:00~19:00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야경)→19:30~20:30 저녁 식사
- 09:00~11:00 우농 타조농장→11:30~12:30 헤이리 마을 이동 & 점심 식사→12:30~14:00 헤이리 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14:00~16:00 프로방스 마을 & 카페→16:00~18:00 파주출판단지→ 18:00~19:00 저녁 식사→19:30~21:00 퍼스트 가든

(5) 중년 여성 친구들과 우정 여행

- 09:00~10:30 마장 호수 & 출렁다리→10:30~12:00 벽초지문화수목원 →12:00~13:00 점심 식사→13:30~15:30 꽃재 체험농원→15:30~16:30 파주삼릉→17:00~18:00 조인폴리아 →18:00~19:00 저녁 식사
- 09:00~11:00 파주출판단지→11:00~12:30 오두산 통일전망대→ 13:00~14:00 프로방스 마을로 이동 & 점심 식사→14:00~15:00 프로방스 마을 관람→15:00~16:00 헤이리 노을 숲길→16:00~17:00 헤이리 예술마을(한국근현대사박물관)→17:00~18:00 카페, 소울원→18:00~19:00 저녁 식사
- 09:00~10:00 황포돛배 선착장 카페→10:00~11:00 황포돛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11:00~13:00 울곡수목원→13:00~14:00 점심 식사→ 14:30~15:30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평화 곤돌라→15:30~16:30 독개다

리 & 지하 벙커→17:00~19:00 파주 맛고을에서 저녁 식사→19:00~20:00 퍼스트 가든

(6) 중년 남성 친구들과 우정 여행

• 09:00~13:00 파주 감악산 & 출렁다리→13:00~14:00 점심 식사→14:00~15:00 임진강 황포돛배→15:30~17:00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관광 & 카페 & 평화 곤돌라→17:00~18:00 반구정→18:30~19:30 저녁 식사

• 09:00~10:30 마장 호수 & 출렁다리→10:30~12:00 보광사→12:00~13:00 점심 식사→13:30~15:00 파주삼릉→15:30~18:00 파주 출판단지→18:00~19:00 저녁 식사

• 09:00~11:00 오두산 통일전망대→11:00~12:00 파주 통일동산→12:30~13:30 헤이리 마을에서 점심 식사→13:30~14:30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14:30~16:30 헤이리 예술마을(근현대사 역사박물관, 타임 앤 블레이드 박물관)→17:00~18:00 카페 소울원→18:00~19:00 저녁 식사

(7) 어르신들을 위한 북한 음식 여행

• 두만강 찹쌀순대 : 경기 파주시 가나무로 143, 116호, 117호(금릉동, 메트로프라자), 031-944-8948:만두 녹말 수제비 전골, 녹말 해물전, 북한식 순대, 인조 고기, 온면, 평양냉면

• 평양면옥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515/031-826-4231 :냉면

**(8) 젊은이들을 위한 전쟁 체험 여행(전투식량+캠프 그리브스 숙박
+JSA+서바이벌 게임 등)**

• 09:00~12:00 DMZ 투어(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전망대)→12:00~13:00 점심 식사→13:00~18:00 JSA(캠프 보니파스에서 브리핑,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군사 정전기념관 회의실)→18:00~19:00 캠프 그리브스 저녁 식사 & 숙박

• 09:00~13:00 감악산 등산 & 출렁다리→13:00~14:00 점심 식사→14:00~15:00 군부대 견학→15:00~18:00 서바이벌 체험
18:00~19:00 군부대 석식 체험

**(9) 미식 여행(장단콩, 초콜릿 만들기, 더티 트렁크, 소울원, 해마루촌
동의보감 차 체험, DMZ 천년 꽃차)**

• 09:00~12:00 파주 출판단지→12:00~13:00 점심 식사<타샤의 정원>→13:00~14:00 카페 <더티 트렁크>→14:00~16:00 오두산 통일전망대 & 통일동산→16:00~18:00 헤이리 숲길 & 헤이리 예술마을→18:00~19:00 저녁 식사 <사랑채 밥상>→19:00~20:00 카페<소울원>

• 10:00~11:00 황토 돛배→11:00~13:00 해마루촌 동의보감 차 체험→13:00~14:00 점심 식사 <콩스콩스 두부>→14:00~16:00 통일촌 장단콩 마을(두부 만들어 먹어보기, 전통 장, 콩물 비지 체험 등)→16:30~18:00 카페 <소울원> →18:00~19:00 파주 맛고을에서 저녁

5. 테마 여행상품 제안

1) K-CULTURE TOUR

-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orea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 K-pop, K-food 등을 연상시키는 문화 여행
- 동선 : 정태진 기념관 → 활자인쇄 박물관 → 지혜의 숲 & 지지향 → 근현대사박물관 → 산머루농원(산머루 와인 만들기 체험) or 헤이리 시네마
- 헤이리 시네마는 예술영화, 인디 영화 위주로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 겸 카페.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3-119 <http://hcine.kr>
- 근현대사박물관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공간. 위치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85 <http://www.kmhm.or.kr/>

2) TASTY LOCAL

㉠ 양조장 투어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주 양조장 역량 강화 상담(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 내용은 양조기술·품질개선, 위생·품질인증,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임
- 여행의 중요 요인으로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파주는 산머루(현재 산머루농원은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음)나 역사 깊은 명술 감홍로, 지역특산물로 만든 막걸리 등 지

역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양조장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해야 함

- 매년 진행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이미 혜택을 받은 양조장들의 사업만족도(2018년 기준 4.31/5점 만점)와 컨설팅 만족도(2018년 기준 4.18/5점 만점)가 높음. 선정된 양조장의 방문객 증가율은 전년 대비 평균 182%(2018년 기준), 매출액은 32%(2018년 기준) 증가 (농림축산 식품부 <http://www.mafra.go.k>) (더솔닷컴 <https://thesool.com>)

㉞ 전통시장 활성화

- 옛 공릉장으로 불리던 봉일천 시장과 금촌 통일시장, 문산 자유시장 등 여러 개의 상설 및 오일장이 있음.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큰 콘텐츠임

- 파주 방문을 증대 및 홍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구축이 가능함

1. 기존 관광기념품의 현황 분석

1) On-line 기념품 판매

- 파주는 많은 종류의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처와 연결되며 구매도 가능함
-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 시 많은 제품을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용이 불편함.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로 묶어 편리성,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파주시 홈페이지에 음식/숙박/쇼핑 정보 안내에 지역특산품 72개(현재 판매 종료된 물품 1개 포함)가 소개되어 있음. 지역특산품이라 하면 그 지역의 특별히 생산되는 물품인데 관광기념품과 혼재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쉬움
- 관광기념품에 2018년 파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제품 총 7개가 함께 안내되어 있음. 이 코너에 일반 기념품을 옮겨 소개하고 공모전 수상작은 그 우수성을 표시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구매처에서 오프라인 구입처도 공유해 오프라인 판매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함

2) Off-line 기념품 판매

(1) 임진각

- 현재 파주의 임진각은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그림 41. 임진각에서 판매 중인 기념들

- 판매 물품을 보면 청국장 분말, 감악산 머루주, DMZ 와인, DMZ 콩엿, 배다리 막걸리, 장단콩 국간장, 추억의 건빵, DMZ 초콜릿, 장단콩 초콜릿, DMZ 맥주 등임

- 임진각 기념품 판매점에 들어서면 제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인 느낌이 들고 동선이 불편함. 장소의 특성과 방문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제품을 비치, 편히 둘러 볼 수 있게 공간의 쾌적성을 고려해야 함

- 관광지의 관광기념품이라 하면 누구나 생각되는 수건, 냉장고 자석 등 지금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개발이 시급함

- 임진각 시설 및 만족도를 보면 임진각 기념품 판매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전반적인 만족도가 4.13이며 가장 낮은 만족도가 부대시설인 3.92인데 기념품 판매점은 3.93으로 후위 2번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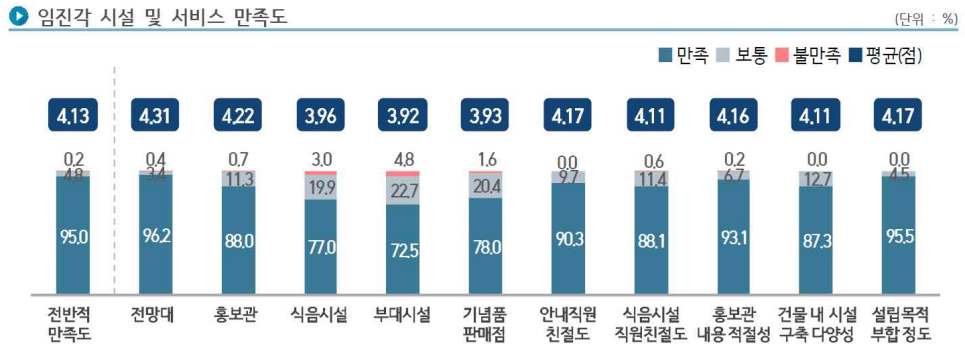


표 33. 임진각 기념품 판매에 대한 만족도

(2) 도라전망대 기념품 샵

- 도라전망대 기념품 샵은 물건은 많으나, 판매에 이어지기 힘들게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음



그림 42. 도라전망대에서 판매중인 기념품

- 이곳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은 앞치마와 반팔티라고 함
- 기타 여군 배낭과 아미용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음

2. 추천 관광기념품 사례

1) 한국관광공사 공모 아이템

- 훈민정음 토스트 스탬퍼 : 입선한 생활소품. 훈민정음을 토스트 스탬퍼에 새겨 일상에서도 쉽게 한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



그림 43. 한국관광공사 공모기념품(훈민정음 토스트 스탬퍼)

- 사물놀이 USB : 입선한 생활소품.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팽과리, 장구, 북, 징 모양으로 USB를 만들었음. “사물놀이의 흥으로 세계를 연결한다.”라는 콘셉트로 심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음
- 경북궁 단청 연필 : 대상을 받은 연필 세트. 한국 전통 궁궐을 연필 세트 상자와 연필 겉면에 재현했음. 연필을 사용할 때마다 한국 전통 단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음



그림 44. 한국관광공사 공모기념품(경복궁 단청 연필)

- 한복을 입은 스니커즈 : 은상을 받은 패션 소품. 스니커즈에 한국 한복을 입혔음. 발목은 저고리의 깃, 신발 끈은 저고리 고름처럼 묶는 형태로 디자인했음



그림 45. 한국관광공사 공모기념품(왼쪽 한복 입은 스니커즈, 오른쪽 단청 타투 스티커)

- 단청 타투 스티커 : 패션 소품 부문에서 은상 수상. 한국 전통 단청을 타투에 접목해 제작한 타투 스티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한국 단청의 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제주 돌 빵 : 금상을 받은 식품. 제주도를 상징하는 현무암을 모티브로, 대표 농산물인 산간 녹차, 꽃자왈 감귤, 우도 땅콩을 사용함. 빵 표면은 현무암처럼 거칠지만, 내부는 부드러움



그림 46. 한국 관광공사 공모기념품(제주돌빵)

- 코리아 얼음 틀 : 생활소품 부문 동상 수상. 한국을 대표하는 남산타워, 무궁화, 얼굴무늬 수막새 등 세 가지 틀로 디자인. 얼음 이외에도 초콜릿, 석고 방향제 등을 만들 수 있음

- 펀트 한글 베이직 : 문구류 부문에서 금상 수상. 한글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에 맞춰 제작한 한글 학습 모형. 한글을 평면 및 입체로 표현하며 자음과 모음을 재밌게 배울 수 있음

- 기타 쇼핑백에 한국 전통 문양 새기기 등이 있음

2) 독일 암펠만 Ampelmann

- Ampel(신호등) + mann(사람)이 합쳐져 Ampelmann(신호등 사람)이라

는 단어로 탄생. '신호등 아저씨'라는 뜻의 암펠만은 증절모를 쓴 사람의 모습을 한 신호등 속 캐릭터

- 암펠만의 탄생 계기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 1950년대 동독의 교통 심리학자 칼 페글라우(Karl Peglau)는 짧고 굵은 사람의 형태에 모자를 씌운 암펠만을 디자인했고 이는 여러 사람의 호감을 샀. 신호를 건너기 전 재미있는 모양으로 신호등에 눈길이 가기 때문에 암펠만의 상용화 이후 어린이와 노약자의 교통사고율이 40% 감소

- 동독에서만 사용하던 신호등이었기에 통일 후 철거될 위기에 처함. 구동독 사람들이 '암펠만 살리기 운동'을 진행, 암펠만이 보존될 수 있었고 분단의 갈등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아 평화를 상징하며 생명을 이어온 캐릭터가 됨

- 암펠만은 독일 베를린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신호등 모양 캐릭터로 브랜드화되어 패션의류, 잡화, 아동 제품, 생활용품을 판매함

- 암펠만은 여자, 남자의 형태가 모두 존재

- 암펠만 굵즈를 파는 기념품점이 별도로 존재. 베를린 시내에 6개 지점이 있으며 일부 지점은 카페도 운영. 그중 운터 덴 린덴(Unter den Linden)에 위치한 암펠만 샵은 가장 규모가 큰 매장으로 알려져 있음

- 독일을 찾은 여행객에게 기념품으로 구매하기 좋은 물건이 많음. 가방에서부터 옷, 머그잔, 귀걸이, 목걸이, 소주잔, 파스타, 주방용품까지 다양함

- 매장 내에는 포토존이 마련돼있어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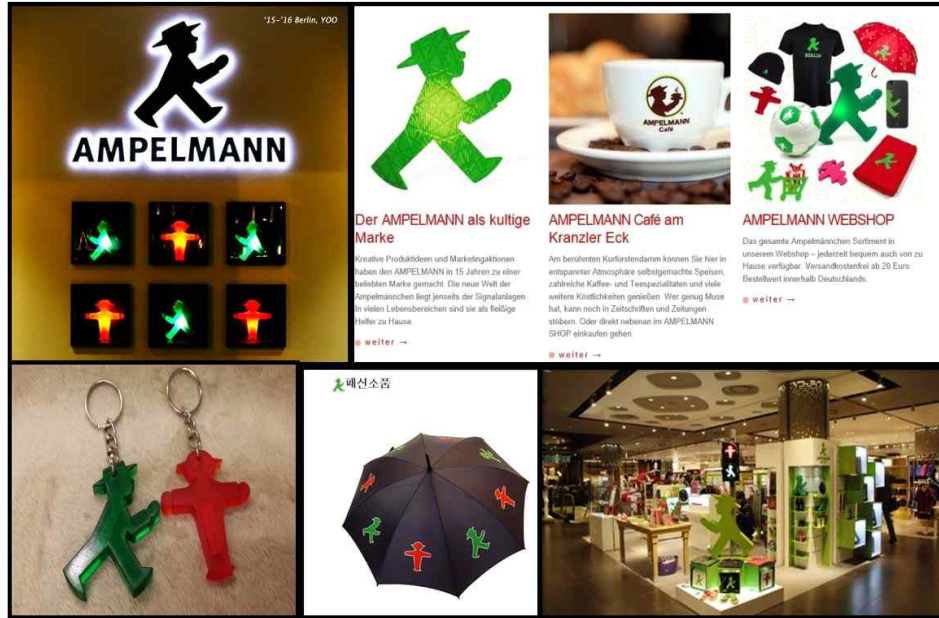


그림 47. 독일의 암펠만 굿즈

3) 스타벅스 Starbucks 굿즈

- 스타벅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커피전문점임. 2018년 기준 전 세계 70여 개국에 2만9300개의 매장이 있으며 미국에 1만3930개, 중국 4000개, 한국 1378개의 매장이 있고 직원 수는 20만 명에 달함

-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지만 굿즈(Goods)의 판매도 상당함. 처음에는 커피 관련 굿즈만 판매했지만 이후 다양한 굿즈를 판매함

- 스타벅스는 한정판, 매장별 아이템, 이벤트 굿즈의 전략을 사용함. 모두 희소성을 높여 소장용 굿즈로의 가치를 높임

- 스타벅스 굳즈에는 물건뿐 아니라 충전용 카드도 포함됨. 스타벅스 카드는 상품권처럼 1만 원부터 충전해서 선물용으로 사용됨.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음



그림 48.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스타벅스 카드

- 스타벅스는 매장에 따라 판매를 한정함. 이대 매장 판매 굳즈는 다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없음. 이대 매장용 굳즈를 위해 공모전을 하고 이를 실제 출시하기도 함

- 벚꽃 시즌에는 벚꽃 카드를 출시하는 등 시기적절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희소성과 가치를 부여함. 이러한 전략으로 스타벅스 카드를 수집하는 마니아층이 형성됨



그림 49. 벚꽃 카드, 이대 매장 공모전 카드, 카드 수집 마니아

-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매장이 있으며 굳즈에는 각 지역과 문화를 담음. 한국의 경우 K-heritage, 서울의 경우 서울 타워, 이대의 경우 배꽃과 여대생의 이미지를 충족시키는 굳즈 세트를 만들어 판매함



그림 50. 이화여대 매장, 한국 이미지 등 특화된 스타벅스 굿즈

3. 판문점 관련 관광기념품 개발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방향

- 독일의 암펠만 굿즈의 경우, 이야기 콘텐츠가 독일과 분단, 평화 등의 이미지를 담고 있음. 이처럼 분단과 평화,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 소재를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기념품을 만들어야 함. 이야기 소재 등 스토리 발굴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의 스토리 아카이빙에서 다시 다룸
- 기념품 개발 시 기념품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 욕구는 디자인과 정비례함. 세련되고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함
- 기념품의 크기는 소형화를 지향함. 여행 중인 방문객은 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크기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 크더라도 잘 접히거나 보관이 용이한 것을 선호함
- 여성의 경우 기념품의 모양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선호함

- 기념품의 경우 여행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함이므로 물건 형태로 집에 보관하며 기억되는 것도 좋지만 독특한 먹거리(초콜릿) 등 함께 먹거나 사용하는 등 공유기억으로 남는 것도 원함. 소비 양식이 소유(Possession)에서 소비(Consume)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경험소비로 가치가 이동하고 있음. 소유가 아닌 기억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관광기념품은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고급스럽고 모던한 디자인이어야 함



그림 51. 포르투갈 리스본 안내 센터와 포르투갈 포르투의 기념품 진열

- 판매 장소는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진열방식에 신경 써야 함
- 제품은 정갈하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며, 한눈에 종류와 구성이 파악되도록 진열돼야 구매 욕구가 생김
- 소량으로 예쁘게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시키고 방문객 수가

적은 10대나 어린 아동들을 위한 디자인 문구, 지역 아티스트와 협업한 아트 워크(ArtWork) 등 제품 다양화에 신경을 써야함

- 지역 특산품의 상품화 필요. 파주에는 유명세를 이어오는 품질 좋은 특산품이 있으며 장단콩, 개성 인삼, 쌀, 각종 채소와 과일 등 그 종류도 다양함. 잘 알려진 원재료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품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 옛이야기가 풍부한 상품을 찾아 개발, 발전시켜야 함

-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업 사이클링(Up-cycling) 등 가치에 중심을 둔 기념품 판매로 방향을 잡아야 함

2) 판문점 관련 기념품 제안

(1) 전투식량 K레이션

- 판문점은 전투식량과 잘 어울리는 장소로 CJ나 더 본 코리아(theborn) 등과 제휴하여 내용과 포장을 판문점과 어울리게 개발, 판문점에서 판매함

- 전투식량은 메인 메뉴와 사이드 메뉴, 물에 타 먹는 음료, 소스, 소금, 후추, 쿠키 등 자잘한 것들을 뜯어 먹는 재미가 특별함. 유튜버들에게 인기 있는 언박싱(unboxing)의 흥미가 최상인 제품임

- 메뉴는 한국적인 산채 비빔밥, 불고기 덮밥 등 한식부터 시작해 카레, 스테이크 등 세계 각국 음식으로 확대해 나감



그림 52. 전투식량과 인스타 인증샷

□ PLUS ONE : 전투식량 레스토랑

- 전투식량과 어울리는 인테리어의 전용공간(레스토랑)을 마련해 구매할 제품을 먹을 수 있게 함. ‘판문점에서 먹는 전투식량’은 화제성이 높은 콘텐츠로 별도의 홍보 없이 SNS에서 자발적 홍보를 이끌 수 있음
- 언박싱(unboxing)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 물을 부어 발열시키고 발열품은 손난로 등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겨울철 인기상품이 될 것이며 이는 SNS 동영상 업로드 영상으로 유희, 퍼 나르기도 즐거운 아이템임
- 나아가 한국 군대에서 인기 있는 ‘군대리아’, ‘군도날드’ 등을 시도함
-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는 추억을, 군대와 무관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흥미로운 먹거리로 ‘써브웨이 꿀조합’처럼 군대리아를 조합해 먹는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게 함

- 군대 체험 TV 프로그램이 인기 있듯 군대 음식 먹는 식당도 장소성, 매력성이 좋은 아이템



그림 53. 판문점에서 먹는 전투식량

(2) 판문점 씨앗 엽서(Up-cycling Handmade Pot Paper)

- 관광지에서 가면 어디서나 엽서를 판매함. 대부분 관광명소나 경치 사진을 넣은 형태임. 조금 더 기발하고 의미 있는 엽서가 필요함
- 씨앗 엽서는 엽서 사이에 씨앗이 들어있어 실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음
- 씨앗 엽서에 물을 뿌리고 약간 잠기듯이 두면 씨앗이 자라남. 컵이나 화분에 옮겨 심고 키우면 됨



그림 54. 씨앗 엽서

- 사무실에서 쇄절기로 잘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파쇄 종이를 한지제작방식과 씨앗 수경재배 기술로 되살린 폐종이 Upcycling 친환경 문화 수공예품임
- 분단되고 갈라진 남북 대치의 현실에서 미래를 향해 싹을 틔우는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음.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판문점의 미래적 이미지를 대변하는 아이템
- 지구 환경을 걱정하며 가치에 중심을 두는 친환경 제품이며,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 제품임
-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버려진 물건을 단순히 다시 쓰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의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버려진 제품들에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더하여 실용성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말함.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자리

매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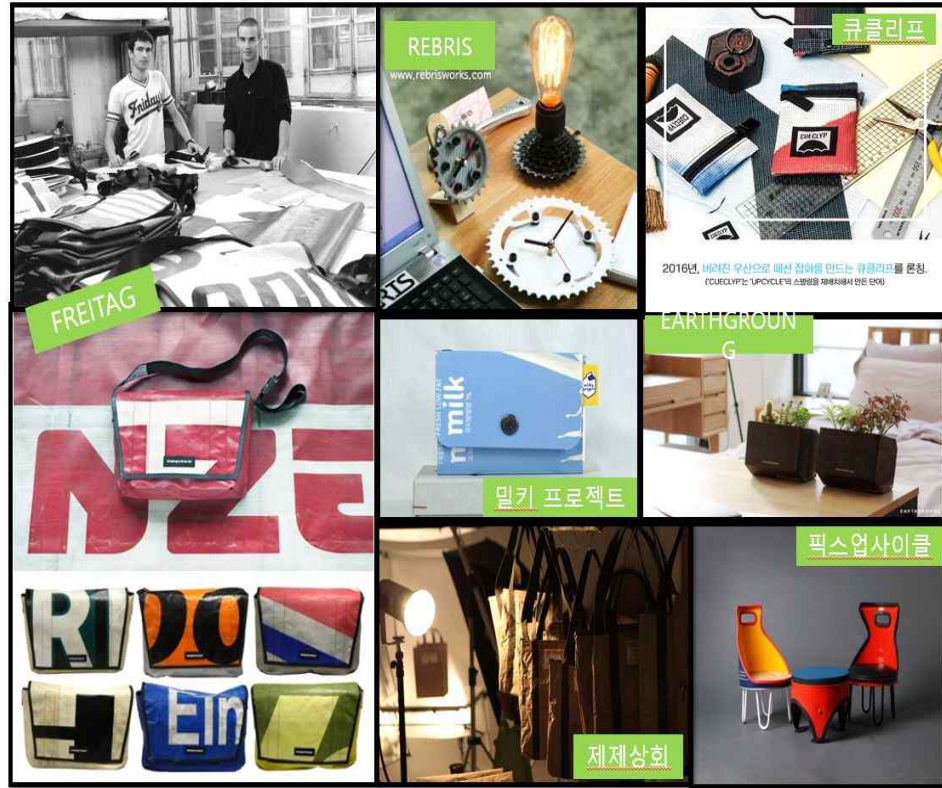


그림 55. 업사이클링 브랜드와 제품

- 기념품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념품을 파느냐?’는 가치가 더 높아지는 추세이니 판문점의 기념품 샵은 대한민국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파는 곳으로 특화가 필요함. 분단된 나라, 이념 대립, 수많은 희생자, 눈물 등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역사적 공간에 이를 품으며 격을 올리는 업사이클링 기념품은 평화로 나아가는 판문점의 위상에 걸맞고, 자본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이미지와 어울림

- 구매자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구매한다는 희소성과 자신의 소비가 친환경 행위가 되는 소비의 즐거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쓰

레기 무방출)를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존감 상승 등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됨

브랜드	재료	업사이클링 제품	나라
프라이탁(FREITAG)	낡은 트럭용 방수포	핸드백, 백 팩, 메신저 백, 지갑	독일
Garbags	방수포	가방 등 생활용품	포르투갈
터치포굿(touch4good)	버려지는 현수막	재활용 에코백	대한민국
얼킨(UL:KIN)	버려지는 캔버스, 졸업작품	가방	대한민국
리글라스(Recycle+Glass)	버려진 유리병	물병, 화병, 맥주컵	대한민국
픽스업사이클	오일 드럼통	인더스트리얼 가구	대한민국
REBRIS	폐자전거	액세서리, 생활용품	대한민국
밀키 프로젝트	버려지는 우유 팩	손지갑	대한민국
파이어마커스	폐소방호스나 방화복	소방가방	대한민국
레코드(Re:code)	입던 옷	리폼으로 재탄생	대한민국
Jack	페이퍼폰	팔찌	대한민국
패롬(PARROM)	옥외광고용 원단	업사이클링 가방	대한민국
EARTHGROUND	커피 찌꺼기	컵 받침, 시계, 화분	대한민국
누각(Nukak)	광고 현수막, 카이트 서핑 돛, 페타이어 튜브	카드 지갑	대한민국
제제 상회	사진관에서 버려지는 인화지 봉투	토틸백, 쇼트 백, 필통	대한민국
큐클리프	폐우산	지갑	대한민국

표 34. 대표적인 업 사이클링 브랜드

(3) 판문점 달디 쿠키 Panmunjeom Cookie

- 김정일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유관순 얼굴 모양, 캠프 그리브스, 판문점 JSA 등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쿠키를 제작 판매함
- 선물용과 함께 쿠키를 나누어 먹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는 기억 공유 기능을 함
- 선주문을 받아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글자를 넣어 쿠키를 만들어 줄 수 있음. 수제이므로 주문 수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
- ‘판문점 T2~T3 만들기’ 혹은 ‘판문각 만들기’ 등 쿠키 클래스도 가능



그림 56. 다양한 문구와 문양을 넣는 판문점 쿠키

(4) 판문점 선글라스 케이스 키링

-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Joint Security Area)(박찬욱, 2000)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수혁 병장 역을 맡은 이병헌이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 촬영을 막는 장면은 판문점 이미지를 대변하는 신으로 유명



그림 57.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연관되는 선글라스 케이스 키링

- 여행자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며 판문점을 찾는 관광객들도 선글라스 착용자가 대부분
- 판문점 선글라스 케이스 키링은 고리가 부착되어 가방에 옮겨 달수 있음. 키링은 열쇠고리처럼 가방에 달아 장식용으로 쓰는 것을 말함
- 판문점 선글라스 케이스 키링은 가방 안 물건으로부터 선글라스를 보호할 수 있고 급할 때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장식용으로 좋음
- 붉은색과 푸른색 원을 양쪽에 넣거나 태극무늬를 넣는 등 판문점에 맞게 디자인이 필요
- 판매 가격 8,500원~10,000원 예상

(5) 한 입 초코파이 Mini Chocopie

-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Joint Security Area)에 나온 초코파이를 상품화
- 영화 속 송강호가 초코파이를 한입에 넣는 장면이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 초코파이가 커서 한입에 들어가지 않음.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해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를 판매



그림 58. 크기를 작게 만든 판문점 한 입 초코파이

- 초코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
-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던 북한군 병사 오청성 역시 “초코파이 꼭 먹고 싶습네다”로 유명

3) 파주 관련 기념품

(1) 한 끼 쌀 Rice Pack

- 대성동 등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쌀, 파주의 특산물인 콩, 잡곡을 이용해 한 끼 정도의 밥을 할 수 있도록 작게 포장해서 판매
- 가족의 소형화, 1인 가정의 증가 등 쌀 소비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택배 등 배달 시스템의 발전으로 대량구매가 감소하고 있음
- 한 끼 쌀, 콩, 잡곡 3종 SET 형식. 가벼운 마음으로 선물할 수 있도록 소포장의 방식에 신경을 써야 함.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미지화가 중요



그림 59.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한 끼 쌀

(2) 남북통일 술 세트 Korean unification liquor set

- 인간의 역사는 술의 역사로 기쁜 날, 슬픈 날, 속상한 날 등 초대와 모임, 만남에는 술이 동반되었고 손님 초대, 선물 등에 술이 빠지지 않았음
- 북한 술, 남한 술, 막걸리 등을 세트로 만듦. 북한 술과 남한 술을 함께 포장해 남북이 하나 됨을 이미지화하며, 술잔을 함께 구성하면 더욱 효과적임



그림 60. 남한 술과 북한 술을 묶어서 파는 술 세트

IV. 판문점 및 파주시 관광 중장기 발전 방안

IV. 판문점 및 파주시 관광 중장기 발전 방안

1. 판문점·파주 여행 스토리텔러 양성

1) 여행 스토리텔러의 필요성

- 파주 및 판문점 방문객에게 파주 및 판문점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의 접근이 필요. 정보전달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다른 차원의 접근 시도가 요구됨
- 인간은 인류의 시초부터 이야기를 통해 교류하고 기억하고 자기 생각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호모 나랜스(Homo Narrance 이야기하는 인간)임. 사회가 디지털화되는 만큼 아날로그 감성의 욕구가 증가하기에 파주 및 판문점 방문객에게 스토리텔링의 방식 접근이 필요함
-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는 지역 자원 콘텐츠화 전략은 두 가지로 ㉠ type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지역 이야기의 콘텐츠화 ㉡ type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이야기의 콘텐츠화가 있음
- 지역 주민의 입을 통해 그들의 삶과 스토리를 전하기에 방문객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길 수 있는 ㉡ type이 필요함. 문화유산 해설사와는 다른 형태와 전달 방식이며 업그레이드된 형태임
- ㉡ type이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이 직접 이야기 전달에 한계가 있음.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

- 파주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아 전문작가들이 인물, 사건, 배경의 기승전결 구조를 만들도록 지도함 → 현장을 답사해 사진과 드로잉(drawing), 캘리그래피(Calligraphy)로 보충해 문화 콘텐츠화하며 이를 책으로 출간, 다양한 부가 콘텐츠 발생을 유도함 → 이야기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차후 현장에서 여행 스토리텔러로서 역할을 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스토리텔러는 해당 현장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파주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안내 도서관 등 기관에서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함

2) 판문점 및 파주 지역 여행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 대상 : 판문점 및 DMZ 관련 이야기 콘텐츠에 관심 있는 파주 시민과 그 가족 또는 관련 인물
- 인원 : 25명 내외(5명 1조로 구성)
- 운영 주체 : 파주 안내 도서관 예) 파주 중앙 도서관
- 투입인력 : 총괄 여행작가 1인, 조별 전담 여행작가 5인, 캘리그래피 작가 1인, 드로잉 작가 1인.

강의	과정	내 용	과 제
제1강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강사소개	
제2강	1차 과정	1차 이야기 자료 모음 (조별 진행)	과제 - A4 한 장 분량의 이야기 (관련 인물 인터뷰-동영상& 녹취, 관련 물건 수집 등)
제3강		조별 정리 / 선별	
제4강		현장 방문, 사진 촬영, 드로잉, 캘리 작업	A4 한 장 분량으로 정리
제5강		스토리텔러 되어보기	
제6강	2차 과정	2차 이야기 자료 모음(조별 진행)	과제 - A4 한 장 분량의 이야기 (관련 인물 인터뷰-동영상& 녹취, 관련 물건 수집 등)
제7강		조별 정리 / 선별	
제8강		현장 방문, 사진 촬영, 드로잉, 캘리 작업	A4 한 장 분량으로 정리
제9강		스토리텔러 되어보기	
제10 강	편집	편집 위원 선정/이야기 다듬기 / 책자 의 구성 / 사진 보강 / 그림보강 / 드 로잉 & 캘리 삽입	
제11 강	후속 과정	① 편집본 회람 및 강평 - 편집 종료 ② 동화책/소설/연극/드라마/기억 박물관 전시 등 아이디어 토론 & 정리 ③ 관련 기념품과 추가 아이디어 토론 & 정리	
제12 강		① 스토리텔러 우수 3건 발표 ② 관련 사진, 그림, 캘리, 드로잉 전 시 ③ 출판기념 및 종강	

표 35. 파주 및 판문점 여행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 유사사례)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는 만 56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 기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

주는 사업. 이야기 구연에 관한 실기, 생활예절 등 인성교육 지도자로서 60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래 동화나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무릎 교육’을 표방하고 있음. 홈페이지 <http://www.koreastudy.or.kr>



그림 61. 국학진흥원의 이야기 할머니

2. 파주시 관광 홈페이지 개선

1) 관광 홈페이지 현황

- 파주시 거주 이외의 외부인이 판문점을 방문키 위해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함. 많은 관광객은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 파주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tour.paju.go.kr>)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북서부권의 관광을 선도하는 파주시는 역사, 자연, 문화, 안보 등 다방면의 관광요소가 충족되는 곳. 주 산업은 농, 축산업으로 콩, 인삼, 쌀, 땅콩, 참깨, 한우 등 다양한 관련 특산물이 있으며 식품 가공, 제지, 섬유 등의 제조업과 더불어 출판단지과 쇼핑몰이 있어 문화적, 오락적 요소까지 풍부하다는 느낌을 줌

- 파주시 홈페이지에 소개된 관광지 분류 : 파주시 관광 홈페이지는 관광 명소뿐 아니라 축제/전시/공연, 음식/숙박/쇼핑, 수목원, 관광 안내, 이야기 파주 총 6개의 내용으로 이용자가 살펴볼 수 있음

테 마 별		지 역 별		코 스 별	
역사유적	53	문산권	180	당일 코스	14
문화예술	48	적성·파평권	51	1박 2일 코스	13
휴양	14	탄현·교하권	136	가족 코스	3
안보	15	조리·광탄권	53	문화유산기행	1
체험	29			시티 투어	15
레포트	31				
자연명소	22				

표 36. 파주시의 관광지 분류

- 이 중 안보, 평화적인 측면에서 접하게 되는 판문점과 관련 관광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콘텐츠임

2) 관광 홈페이지의 개선 제안

- 정확한 정보전달 및 최신 정보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테마별 관광 정보를 보면 체험형 중 <TV 속 파주>의 경우, 석인 정태

진 선생 기념관이 소개된 영상이 있음. 단순한 정보전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험형'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임

- 코스별 안내의 경우 <가족 코스>를 <2박 3일 코스>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내용상 일반 여행객에게도 유용한 프로그램인데 이를 <가족 코스>로 한정 짓는 것은 좋지 않음. 좀 더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적절한 대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세심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

- 현재 파주시 관광 정보에 있어 위치 표시가 전혀 없음. 테마별, 지역별 관광지를 안내하면서 각각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지도를 통해 곧바로 파악되어야 함. 현재 인천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관광 정보의 접근이 쉬울 뿐 아니라 위치 파악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관광지역에 대한 이해가 쉬움

- 음식/숙박/쇼핑 정보 안내에서 <경기 으뜸 맛집>의 경우, 경기도 전체에 해당하는 정보가 섞여 있음. 경기도 으뜸 맛집으로 150곳이 소개되어 있고 그중 파주는 9곳이 포함되어있음. 파주에 대한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일일이 검색어를 넣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파주에 관한 정보를 우선하여 배치하고 나머지는 간단순으로 실어 가독성 및 전달력이 필요함

- 음식/숙박/쇼핑 정보 안내에서 <테마별 음식점>의 경우, 음식점과 카페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음. 최근 여행에서 카페와 빵집 투어는 강력한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음식/숙박/쇼핑 정보 안내에서 테마형 숙소를 추가하여 소개. 파주만의 색을 실은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이나 특별한 숙박 체험이 가능한 유스호스텔 <DMZ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은 여행자의 호기심과 방문 욕구를

블러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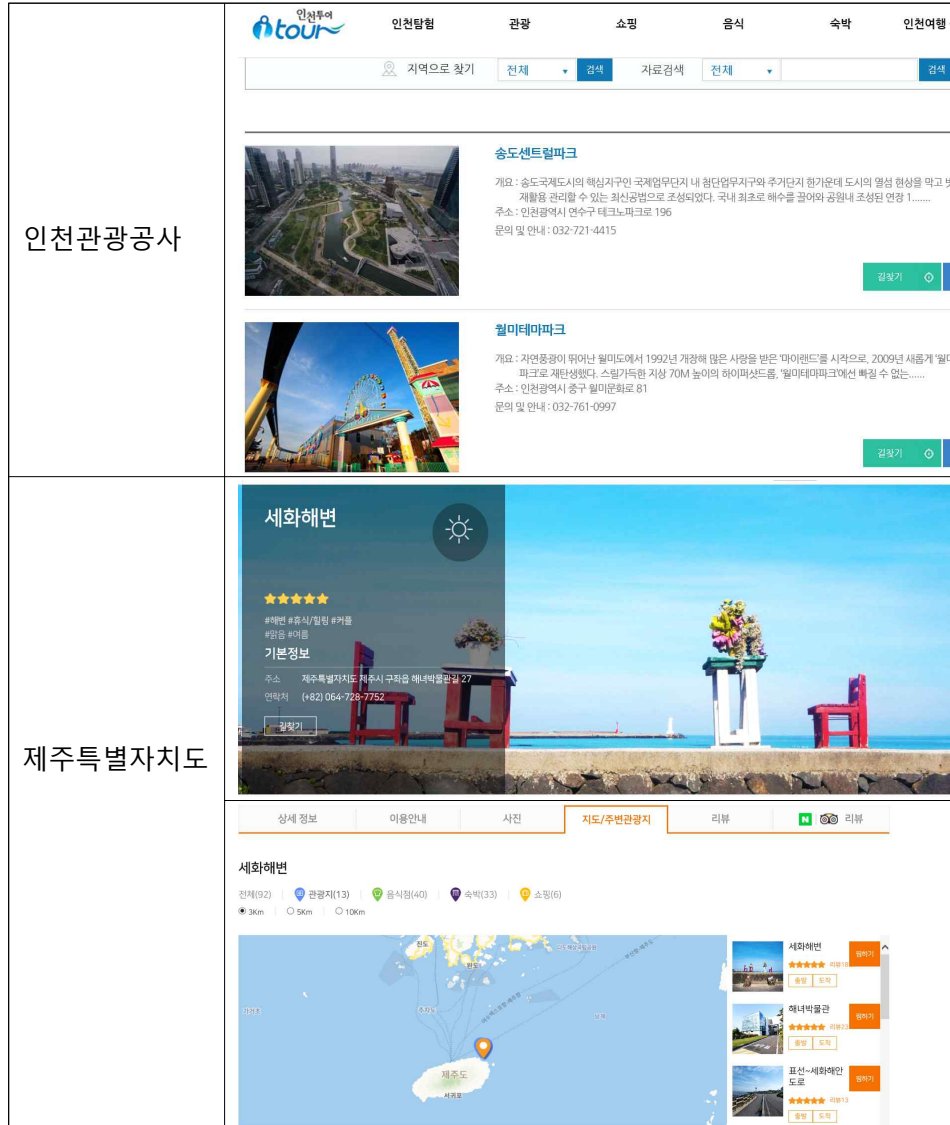


표 37. 인천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 정보 기능

- 팝업 창으로 나만의 여행코스 설계 기능 추가. 다양하고 정확한 관광 정보를 참고하여 각자 혹은 가족만의 특별한 코스를 설계하는 재미는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을 증대할 것이며 더불어 파주에 대한 앎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

3. 판문점 관광 파주시로 일원화 추진

1)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 현황

-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일반 국민 대상 견학 확대 및 자유 왕래 실현에 대비
- 2019년 10월 1일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판문점 견학 중단. 이후 코로나19 발발로 견학 중단 지속 중.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을 고려, 방역 보강 조치 하에 판문점 견학 재개 추진 예정.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 협의, 철저한 방역 조치 강구, 인원 규모·횟수·대상별 소규모 재개 후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적 확대
- 판문점 견학 코스 : 판문점 견학 안내소(임진각 도착, 견학안내소 접수 및 안내) → 통일대교(발열 검사 및 신원확인) → JSA 안보 견학관(버스 환승 및 교육) → 판문점 자유의 집 → 군정위 회의실(T2) → 기념 식수 → 도보다리 → 故 장명기 상병 추모비 → JSA 안보 견학관(버스 환승) → 복귀(임진각 판문점 견학안내소), 약 80분 소요 예정
- 남북회담 본부 전방사무소 구관을 리모델링해 ‘견학 지원센터’ 설치. 지원인력 14명(통역 2명, 안내·해설사 4명, 상담원 3명, 운전 4명, 위생 1명) 채용 및 평화 해설사 교육. 경기 관광공사 임진각 DMZ 생태관광센터를 임차하여 ‘안내소’ 설치 완료. 견학 버스 4대, 승합차 2대 임차 및 구매 완료. 견학 신청·접수 및 업무 관리 기능 탑재한 홈페이지 (www.panmuntour.go.kr) 개설 마무리단계, 견학 재개에 맞추어 서비스 개시 예정 등 판문점 견학 인프라구축 마무리 단계임

- 유엔사 군정위와 신청 기간 단축, 연령 이하, 견학 인원 확대 등 절차 간소화 문제 협의 중

2) 판문점 견학 등 평화관광 운영 일원화 필요

-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와 더불어 통일부에서 판문점 홈페이지 구축 완료. 곧 서비스 예정
- 판문점 견학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등을 판문점 관할 행정기관인 파주시로 일원화 필요
- 파주시는 현재 1사업소(관광사업소)에서 DMZ 관광, 생태관광, 감악산 관리, 마장 호수 등 전담조직 4개 팀을 설치, 50여 명이 근무. 임진각 관광지 300만 명, DMZ 연계 안보관광 60만 명, 임진각 생태 탐방로·평화누리길·DMZ 평화의 길 7만 명 등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및 민통선 내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 판문점의 통일부 운영보다는 전담인력과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 파주시로 일원화하면 인력, 물적 효율성과 더불어 ‘평화관광’의 연계성이 높아짐
- 파주시 운영의 장점을 꼽으면, 판문점 견학과 DMZ 관광 창구 일원화로 관광객 편의성 제고, 민통선 내 출입통제 등으로 판문점 견학 불가 시 대체코스 운영으로 돌발 상황 대응 가능. DMZ 연계 셔틀버스 통합운영 등을 통해 사업 시 효율적 집행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가 높음
- 파주시는 17년간 평화관광 운영 경험이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 파주시가 관리 중인 제3땅굴 등 평화 관광자원 연계가 용이하며 다양한 상품 개발 또한 가능함

- 판문점 견학은 평화·화해·협력의 평화관광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자 정책실현으로 관할 기관 운영이 적합함

4. 판문점과 주변 유사 지역 답사 학술 연구

- 판문점은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상황에 의해 생긴 특수한 지역임. 따라서 판문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장소를 답사해 견줄 필요가 있음.

1) 독일 그뤼네스밴트 Grünes Band

- 그뤼네스밴트(독일어: Grünes Band)는 동독과 서독의 경계가 되던 곳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을 말함. 그뤼네스밴트는 독일어로 ‘녹색 띠’라는 의미인데 영어권에서는 단어 그대로 번역하여 그린벨트(영어: Green Belt))로 불림
- 수십 년간 독일의 과거 국경 지역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 독일 분단 역사의 산물로, 분단선이 그어져 있었기에 수십 년간 자연은 방해받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음
- 길이 1,398m 너비 50~200m 면적은 1만7,666ha(인접 지역 22만 3,211ha), 행정기관은 9개 연방주, 38개군, 2개 광역시가 해당함
- 6개 지역(10~185km²)을 지역 특성에 따라 7년부터 20년 동안

445~3,400만 유로까지 지원하며 대규모 보전 프로젝트를 진행함

- 한때 동과 서로 나누던 870마일의 장벽과 감시 타워가 있던 이 구역에 분트의 프로젝트가 1989년 시작됨. 독일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 중 하나인 분트(영어: BUND, 독일어: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는 성금을 모아 그뤼네스반트 보존지역 중 사유지를 매입함. 오늘날 이곳은 억압의 기념물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탈피해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자연보호구역이 되었음

- 그뤼네스반트가 생태의 보고로 희망의 땅이 되는 데에는 (환경) 시민단체의 힘이 컸으며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BUND)는 철의 장막을 ‘생태 축’으로 보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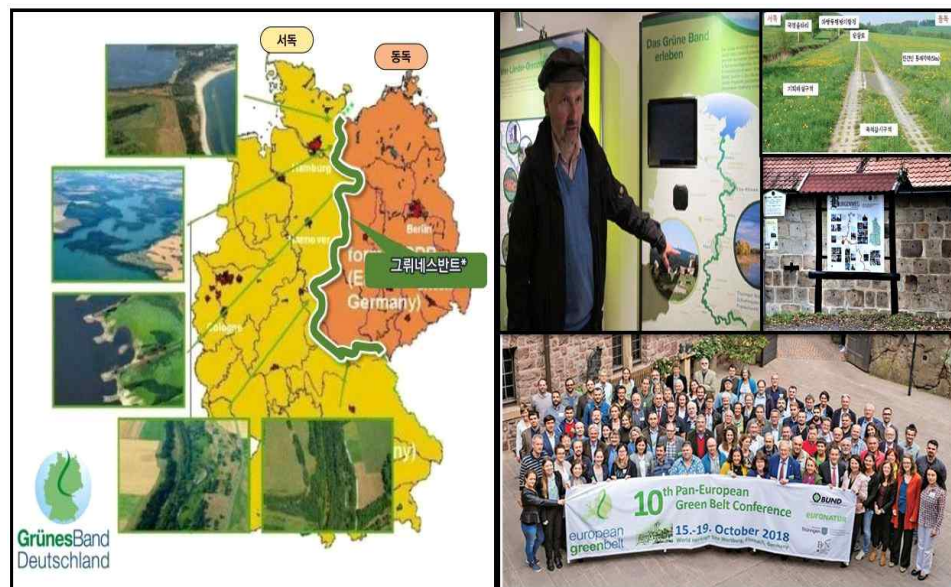


그림 62. 비무장지대(DMZ)에서 생명의 띠가 된 그뤼네스반트

- 폭 50~200m에 불과해 남북이 각각 2km인 DMZ보다 좁지만, 정찰로, 감시탑 등 냉전 시대의 역사 유물을 보존해 박물관 등 관광자원으로 사용

중이며 산책길과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있음

- 그뤼네스반트 내의 여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특징과 가치를 제대로 살려 그뤼네스반트가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줌

- 전 세계 10여 곳의 DMZ 중 독일의 ‘그뤼네스반트’가 한국 DMZ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음

2) 베를린 체크 포인트 찰리 Checkpoint Charlie)

- 체크 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는 냉전 당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분단하던 베를린 장벽의 가장 유명한 검문소로 연합군에서 지칭했던 지명임

-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연합군과 외국인, 외교관, 여행객들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관문

-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으며 체크 포인트 찰리는 동독과 서독의 분단을 나타내는 냉전의 상징이 되었고, 1961년도의 베를린 위기 때 미국과 소련의 탱크 대치가 이 장소에서 발생했음

- 가장 눈에 잘 띄는 베를린 장벽의 검문소로서, 체크 포인트 찰리는 종종 스파이 영화나 책에 등장함. 연합군 관계자, 방문객을 위한 카페 아들러("독수리 카페")는 검문소 오른쪽에 있어 무언가를 먹고 마시면서 동독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였음

-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에 개방되었고 체크 포인트 찰리가 1990년 6월 22일에 제거되었음. 체크 포인트 찰리는 달렘(Dahlem)에 위치한 연합군 박물관에 전시, 이전의 장벽과 국경의 모습은 자갈로 이루어진 선으로 거리에 표시됨. 국경 횡단을 표시했던 검문소의 복사본이 체크 포인트 찰리가 한때 있었던 곳에 나중에 지어졌음



그림 63. 체크 포인트 찰리의 현재 모습과 실제 모습

- 현재 체크 포인트 찰리는 원본이 아닌 재현 본이라 진정성과 고유성이 떨어짐. 판문점과 주변 콘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보전의 중요성을 각인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가짜 모형이 주는 실망감을 무겁게 보아야 함

3) 베를린·유럽 슈톨퍼슈타인

- 독일어로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은 Stolpern(걸려서 비틀비틀 넘어지다) + stein(돌)의 합성어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란 뜻을 담고 있음. ‘걸림돌’로 풀이하여 발에 걸리는 돌처럼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 1992년부터 조각가 군터 뎀니히(Gunter Deming)가 슈톨퍼슈타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됨



그림 64. 독일의 걸림돌 프로젝트 슈톨퍼슈타인

- 과거 나치에 의해 사라진 사람들의 최종 주거지 혹은 최종 일터 앞에 10×10cm의 황동도금판을 설치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예술작품임. 보행자들이 걷는 길 위에 빛나는 네모난 금속판 보도 포장석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육면체의 형태임

- 1992년에 첫 슈톨퍼슈타인을 제작, 가로세로 10cm의 동판에는 이름, 생년월일, 추방, 사망 날짜가 적혀있음. 현재 베를린에서만 5천여 개의 슈톨퍼슈타인이 있음

- 1997년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걸림돌 프로젝트는 유럽으로 퍼져나가 현재 헝가리,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7만 개 이상의 슈톨퍼슈타인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음. 유럽 지역마다 20개국 언어로 각기 다르게 새겨

진 기념 판에는 “Hier wohnte…”(Here lived. 여기에 ○○○가 살았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모든 작업은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고, 슈톨퍼슈타인 하나 만드는데 120유로(15만7천 원)가 소요됨. 아직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120유로의 기부금이면 새로운 슈톨퍼슈타인을 만들 수 있음. 지금도 유럽 전역에 걸림돌이 늘어나고 있음

- 나치 시절 독일의 반유대주의와 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자는 뜻에서 시작, 독일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음

4) 해외 분쟁 접경지역의 변화 사례

- 에콰도르와 페루는 1820년대 스페인에서 독립할 때 확정된 국경선에 대해 반목을 거듭하다 1998년 국경을 콘도르 산맥 접경지로 정하고 1만 6425km² 규모의 접경 평화공원을 조성. 에콰도르가 불리한 국경선 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물류 이동을 위해 절실했던 아마존강의 항해권에 대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결국 합의의 기반은 경제적 공동이익임

- 남북으로 분단된 키프로스는 지자체의 작은 교류로 경험을 축적하는 게 소통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곳의 DMZ는 1964년 설치된 그린라인으로 수도인 니코시아에서 2008년 철거되었음. 남북 니코시아 시장이 1978년부터 하수처리 사업에 합의해 비정치적 협력의 문을 열었고 저어새·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보호, 접경지역 병충해 방제 등 작은 소통을 지속하며 신뢰를 쌓은 결과임

- 판문점·DMZ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

접경 지역	대립 상황	협력 상황	평화지대 면적
독일	철의 장막으로 삼엄한 이동통제	그뤼네스반트 생태 네트워크 조성	길이 1393km 폭 50~200m
예멘	이념 대립으로 분단 후 통제	유전 발견으로 공동개발	길이 약 1000km
키프로스	그린라인에 의해 분할돼 삼엄한 경계	지자체(수도 니코시아)의 작은 협력으로 실질적 경제협력단계 돌입	길이 186km 폭 7.4km 면적 346km ²
에콰도르·페루	식민지 독립 후 국경선 논란에 따른 영토분쟁	공동의 경제적 이익으로 점점 찾아 접경 평화공원 조성	면적 1만 6425km ²
동 카르파티아	작은 전투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 3국 주민 관계 악화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	면적 213km ²

표 38. 해외 분쟁 접경지역의 변화 사례 (자료: 경기 연구원)

5. 파주 스토리 아카이빙

1) 파주 원천 스토리 발굴의 필요성

- 판문점과 DMZ(Demilitarized zone)는 20세기 동서 냉전이 남긴 마지막 이데올로기의 흔적이며 평화, 안보, 문화, 역사, 생태 방면에서 그 가치가 높음
- 1953년 휴전한 이래 남북의 직접 대치 장소와 완충지대로서 판문점과 DMZ는 독보적인 존재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아직 세상에 선보이지 않

은 무수한 자원이 판문점과 DMZ에 감추어져 있음

-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 콘텐츠로 만드는 과정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지역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는 관광 자원화 사업에 필수 작업임

2) 스토리 발굴의 단계

(1) 원천 스토리 발굴 및 확보

- 판문점과 주변 지역의 시간성과 역사성, 장소성, 고유성, 진정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천 스토리 발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판문점의 경우, 판문점이 역사적 사건으로 탄생한 공간인 만큼 그 첫 단계는 판문점의 역사적이고 종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함
- 스토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으로 판문점과 주변이 ‘배경’이라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 ‘인물’ 부분은 인터뷰 등의 형식을 통해 수집, 확보해야 함

(2) 콘텐츠화를 위한 스토리 선별

- 원천 스토리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두 콘텐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이중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을 선별해야 함. 따라서 원천 스토리는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3) 문화 콜라주를 통한 스토리텔링

- 문화 콜라주는 OSMU(One Source Multi Use), MTOT(Multi-tasking for One Theme) 등이 있음. OSMU의 경우 단순발전 방식과 점진 발전방식, 동반발전 방식이 있고, MTOT는 다양한 소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테마의 메시지 전달 방향으로 활용 발전시키는 방법임

- 이를 통해 소설, 동화,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방법의 문화콘텐츠를 생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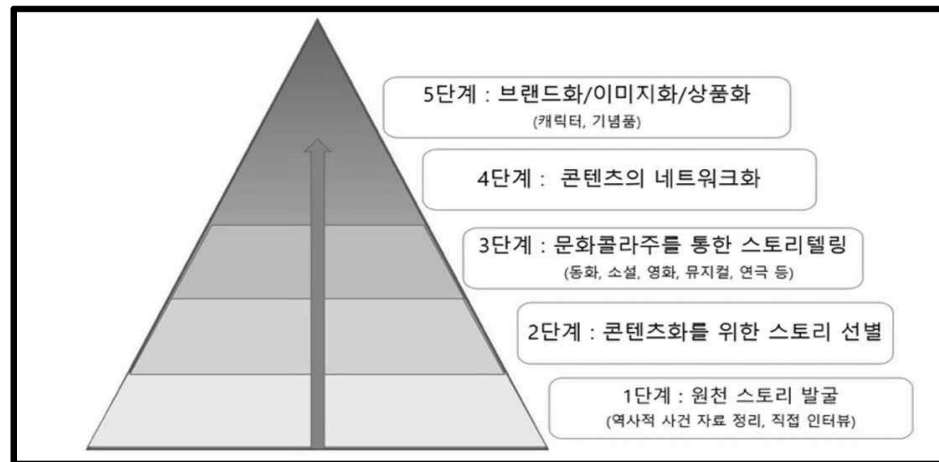


표 39. 이야기 발굴 단계

(4) 콘텐츠의 네트워크화

- 판문점 관련 콘텐츠로 전 세계에서 판문점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장소뿐 아니라 각 장소 간의 연관 관계를 알게 하고 이들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얻게 함. 이는 장소들 간뿐 아니라 장소와 기념품, 기념품과 여행코스 등 서로가 긴밀하게 얽히게 됨

- 이는 브랜드화 이미지화·상품화와 직결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방문 욕구를 상승시키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며 기억 속에 좋은 시간으로 남아

타인에게 방문을 추천하게 됨

3) 스토리 발굴의 방법

- 스토리 발굴은 직접 인터뷰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함. 파주와 판문점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적기에 80세 이상의 고령 인물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함

- 개인적인 사연의 원천 스토리 획득이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빠짐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은 매뉴얼 화하여 취득해야 함. 기억이 나는 음식과 재료, 만드는 법, 특별히 기억에 남는 상황, 남하할 때 가지고 온 물건은 무엇인지, 할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을 무엇인지, 기억나는 노래는 무엇인지, 가족사진 혹은 소장품이 있는지 등으로 이는 매우 좋은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음

질문	가상의 답변	개발 콘텐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 나는 음식은? • 재료와 만드는 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개성)에서 설날에 먹던 평만두 • 여름에 만들어 먹던 부추 만두 • 오리고기를 얹은 오리 국수 • 노릇노릇 구운 녹두전 • 누나 시집가던 날 먹던 문어 초무침 •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콩고기 밥 • 뜨끈하게/시원하게 먹는 감자국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과 인근 지역에 특화 식당 및 메뉴 개발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상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강가에서 미역감던 기억 • 형이 징집되어 가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에서 남하할 때 가지고 온 물건은? • 할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옥비녀 • 어릴 때 어머니가 머리의 이를 잡느라 매일 빗겨주던 참빗 • 헤어질 때 아버지가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주던 돈 • 불에 반쯤 탄 가족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에 전시 • 관련 동화 등 문화 콜라주 가능 • 콘텐츠 기념품 제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9월 9일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개봉 시 느낌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군은 정말 초코파이를 좋아하는지... •저렇게라도 북한과 연락이 되었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차이와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님 혹은 아버님에게 들었거나 기억나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과 같은 듯 다른 애국가 •남한과 비슷한 아리랑 •남북 교류 행사에서 많이 들던 '휘파람', '반갑습니다' •천리마 운동 때 부르던 노래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연극 등 공연 콘텐츠의 배경음악 •드라마 OST

표 40. 인터뷰를 통한 원천 스토리의 콘텐츠화

- 직접 인터뷰는 3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1988년 정주영 명예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성출생의 1세대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노년층, 2세대는 장년층 그리고 3세대는 청소년으로 한 사건에 대한 의미와 기억은 주관적이기에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치가 도출됨. 판문점과 주변을 찾는 방문객 역시 다양한 연령층이기에 그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함

4) 스토리 활용

- 다양한 스토리를 직접 인터뷰 방식을 통해 수집할 때 채록한 후 텍스트 화하고 동영상 촬영이 곁들여져야 함
- 확보된 원천 스토리를 하나씩 꺼내어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며 그 방식은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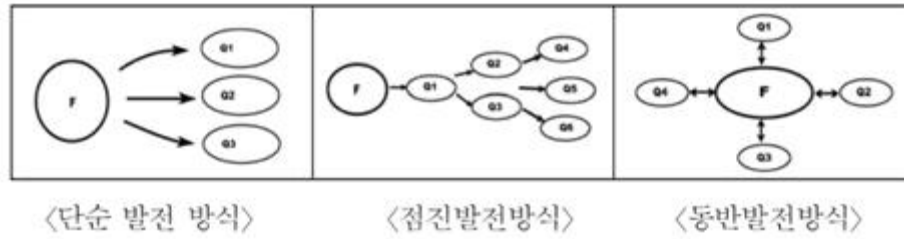


표 41. OSMU(One Source Multi Use)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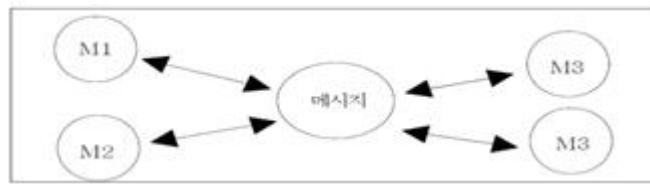


표 42. MTOT(Multi-tasking for One Theme) 방법

(1) 사례 / 국제시장

-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덕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풀었던 영화 <국제시장, Ode to My Father>(윤제균, 2014)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역사의 흐름과 엮어 가는 방법에 해당함. 한 사람 혹은 가족의 이야기를 종적 진행해 점진발전 방식으로 스토리텔링한 형태임

-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역사적 흐름을 보면, 1950년대 피난 중 함경남도 흥남에서 철수하는 미군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Meredith Victory)호를 타고 극적으로 남하하는 사건, 피난민이 되어 부산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배경, 독일로 떠나 파독 광부·간호사가 되어 힘겹게 살아내던 배경, 베트남 전쟁의 전선으로 가는 사건, KBS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동생을 찾는 사건 등 주인공을 1939년 출생으로 설정하고 70대 중반까지 다루며 역사의 굵직한 사건이 배경으로 작용함

-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직접 인터뷰를 통해 만나는 파주 사람들의 원천 스토리와 같은 형태임



그림 65. 영화 <국제시장>의 인물과 사건들

(2) 사례 / Mr. Men and Little Miss

- 영국 출신 작가 로저 하그리브스(Charles Roger Hargreaves)는 아동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1971년부터 Mr. Man 시리즈를 내놓음.
- Mr. Good, Mr. Cool, Mr. Rude 등 하나의 인물이 한 권으로 된 책에 글에 맞는 삽화가 간단히 그려져 있음. 각각의 책은 한 캐릭터를 다루었지만, 각 책의 인물은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로 연결됨
- 이후 Little Miss가 더해지며 현재 85명의 Mr. Men and Little Miss 캐릭터가 28개국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함
- 캐릭터 인형은 물론 게임, 장난감, 퍼즐 시계, 아기 앞치마, 티셔츠, 도

미노, 턱받이 등 다양한 굿즈(goods, 열성 팬 용 상품)를 판매하고 있음



그림 66. Mr. Men and Little Miss의 활용사례

(3) 사례 / The Avengers



그림 67. 어벤져스 전략의 사례

•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월트 디즈니 픽처스가 배급해 개봉한 미국의 슈퍼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The Avengers)는 캡틴 아메리카(Captain America), 아이언맨(Iron Man), 토르(Thor), 헐크(Hulk), 호크아이

(Hawkeye), 블랙 팬서(Black Panther) 등 각각의 슈퍼히어로가 어벤저스 형태로 뭉침으로써 팬덤(fandom, 열성 팬 조직)이 뭉치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생성함. MTOT 형태로 사례2의 Mr. Men and Little Miss와 유사함

6. ‘평화통일도시, 파주!’ 이미지 만들기 작업 ‘무궁화 심기’

- 무궁화는 조선의 윤치호 선생 등의 발의로 애국가를 만들면서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을 넣음. 이후 조선의 ‘나라꽃’이 되었다고 전해짐
- 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신라 시대부터 한국을 '무궁화 나라'(檣城) 라고 불렀다고 함. 파주 지역에 무궁화를 심어 ‘일편단심 통일’의 염원을 담아 파주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으면 함



그림 68. 통일의 이미지, 무궁화

- ‘파주=무궁화’라는 공식이 떠오르는 파주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무궁화 나무를 각 곳에 심어 평화통일도시 파주를 각인시키고 이미지화 시킨다면 지속 가능한 파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 도시를 디자인하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판문점 또는 그 주변 관광에 대한 단계별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것임

● 기획 감수

파주시 문화교육국 관광과	관광과장	안승면
	관광정책팀장	이학현
	담당자	박원재

● 연구진

책임 연구원	이동미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이사장 문화콘텐츠학 박사/안동대학교 겸임교수
연구원	전윤희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이사
	김미선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이사
보조연구원	김경아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유소정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자문위원	조영희	경기대학교 관광학 박사
	조정국	문화기획자 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장 전)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과 이사장

